조사보고서 2018-01

중 · 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 제7차(2017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기초분석보고서 –

송현주 | 임란 | 왕승현 | 이은영

NPS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청렴韓세상

조사보고서 2018-01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 제7차(2017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기초분석보고서 –

송현주 · 임란 · 왕승현 · 이은영

NPS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머 리 말

최근 우리사회는 저출산 및 기대수명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인구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연구 중에 있으나 관련 연구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기초자료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고령화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가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으나 이들 조사는 당시의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일회성으로 실시되거나 조사내용이 특정한 항목에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고령화 환경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는 개인들의 총체적 생활실태를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5년부터 격년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패널조사는 2005년에 당시 만 50세 이상의 중·고령자가 있는 5,110가구를 원표본으로 하여 패널을 구축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패널조사의 특성상 시간경과로 인해 2005년에 구축된 표본의 고령화로 특정 연령대의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2013년 5차 본조사에서 특정 연령대(50대)의 표본부족분을 해결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구축된 표본을 '13표본'으로 명명하였으며, 본 보고서에는 13표본의 7차년도 본조사(2017년) 결과 위주로 작성되었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가 고령화와 관련한 각종 국가정책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초자료로써 점차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며, 본 보고서가 이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 보고서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송현주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임란 전문연구원, 왕승현 주임연구원, 이은영 전문연구원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은 많은 공단 내·외부의 다양한 전문가와 전문조사기관, 아울러 검독과정에서 본 보고서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해 준 관계전문가에게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사용한 데이터는 데이터 클리닝 과정 중에 있는 베타버전 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향후 수치가 변동될 수 있음을 밝혀 둔다.

2018. 12.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 성 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이 용 하

목 차 | Contents

요 약 ····· 1

Ⅰ. 서 론 ····· 13

Ⅱ. 국민노후보장패널 7차년도 본조사 개요 ····· 17
1. 조사내용 ····· 17
2. 조사과정 및 방법 ····· 19
3. 조사결과 ····· 22

Ⅲ. 가계경제 ····· 43
1. 가계소득 ····· 43
2. 가계지출 ····· 54
3. 자산 및 부채 ····· 62

Ⅳ. 경제활동상태 ····· 65
1. 경제활동상태 ····· 65
2. 취업자 ····· 67
3. 비취업자 ····· 82

Ⅴ. 사회보장 적용 실태 ····· 89
1. 소득보장정책 ····· 90
2. 건강 및 의료보장정책 ····· 107

Ⅵ. 노후생활 ····· 113
1. 주관적 노후시작 시기 ····· 114
2. 노후생활비 ····· 117
3. 노후대책 마련 ····· 126
4. 여가생활 ····· 136

Ⅶ. 삶의 질 ····· 139
1. 가족관계 ····· 139
2. 건강 ····· 151
3. 삶의 만족도 ····· 161

Ⅷ. 패널조사 차수별 종합 비교분석 ····· 163
1. 가계경제 ····· 163
2. 경제활동상태 ····· 173
3. 노후생활 ····· 176
4. 사회보장 적용실태 ····· 179
5. 삶의 질 ····· 188
6. 공적연금 수급자의 생활실태 변화 ····· 195

참 고 문 헌 ····· 203

부 록 ····· 205
가. 13표본 가구 가중치 산출 ····· 206
나. 13표본 개인 가중치 산출 ····· 210
다. 05표본 종단 가중치 산출 ····· 212

표 차 례

〈표 Ⅱ-1〉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항목 ····· 18
〈표 Ⅱ-2〉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원칙 ····· 21
〈표 Ⅱ-3〉 13표본의 가구 응답현황 ····· 24
〈표 Ⅱ-4〉 13표본의 지역별 원표본가구 유지율 (통합 3차년도) ····· 25
〈표 Ⅱ-5〉 13표본 조사성공가구 가구 특성 ····· 28
〈표 Ⅱ-6〉 13표본 조사성공가구 가구주 특성 ····· 29
〈표 Ⅱ-7〉 7차년도 조사성공한 개인의 특성 ····· 31
〈표 Ⅱ-8〉 05표본 가구 응답현황 ····· 34
〈표 Ⅱ-9〉 05표본의 지역별 원표본유지율 ····· 35
〈표 Ⅱ-10〉 05표본 조사성공가구 가구 특성 ····· 37
〈표 Ⅱ-11〉 05표본 조사성공가구 가구주 특성 ····· 39
〈표 Ⅱ-12〉 5표본 조사성공한 개인의 특성 ····· 41
〈표 Ⅲ-1〉 가계소득의 측정내용 ····· 44
〈표 Ⅲ-2〉 가구주 특성별 가계소득 ····· 46
〈표 Ⅲ-3〉 소득 세부항목이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 48
〈표 Ⅲ-4〉 가구균등화지수를 사용한 가구주 특성별 가계소득 ····· 53
〈표 Ⅲ-5〉 소비지출의 측정내용 ····· 55
〈표 Ⅲ-6〉 비소비지출의 측정내용 ····· 57
〈표 Ⅲ-7〉 가구주 특성별 가계지출 ····· 58
〈표 Ⅲ-8〉 지출 세부항목이 전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 59
〈표 Ⅲ-9〉 가구균등화지수를 사용한 가구주 특성별 가계지출 ····· 61
〈표 Ⅲ-10〉 자산 및 부채 측정내용 ····· 62
〈표 Ⅲ-11〉 자산 및 부채, 순자산 보유액 ····· 64
〈표 Ⅳ-1〉 경제활동상태 ····· 66
〈표 Ⅳ-2〉 성별, 연령대, 최종 학력별 취업자 분포 ····· 67
〈표 Ⅳ-3〉 종사산업 현황 ····· 68

〈표 Ⅳ-4〉 직업 현황 ····· 69
〈표 Ⅳ-5〉 취업자의 고용형태 ····· 70
〈표 Ⅳ-6〉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비교 ····· 71
〈표 Ⅳ-7〉 임금근로자의 근무시간 형태 ····· 72
〈표 Ⅳ-8〉 임금근로자의 정규직 여부 ····· 73
〈표 Ⅳ-9〉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 ····· 74
〈표 Ⅳ-10〉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운영방식 ····· 76
〈표 Ⅳ-11〉 비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 ····· 77
〈표 Ⅳ-12〉 이직활동 여부 ····· 79
〈표 Ⅳ-13〉 이직을 원하는 종사산업 현황 ····· 79
〈표 Ⅳ-14〉 은퇴예상 시점 ····· 80
〈표 Ⅳ-15〉 은퇴 후 월 평균 예상생활비 ····· 81
〈표 Ⅳ-16〉 구직활동여부 ····· 82
〈표 Ⅳ-17〉 구직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 ····· 83
〈표 Ⅳ-18〉 구직활동 이유 ····· 84
〈표 Ⅳ-19〉 은퇴 여부 ····· 85
〈표 Ⅳ-20〉 은퇴 후 생활만족도 ····· 87
〈표 Ⅴ-1〉 공적연금 가입률 및 납부여부(60세 미만) ····· 90
〈표 Ⅴ-2〉 납부하고 있는 공적연금종류(60세 미만) ····· 91
〈표 Ⅴ-3〉 공적연금 납부자 특성(60세 미만) ····· 92
〈표 Ⅴ-4〉 공적연금 수급률 ····· 94
〈표 Ⅴ-5〉 수급받는 공적연금종류 ····· 94
〈표 Ⅴ-6〉 공적연금 급여종류별 수급현황 ····· 95
〈표 Ⅴ-7〉 공적연금 수급률(60세 이상) ····· 96
〈표 Ⅴ-8〉 수급받는 공적연금종류(60세 이상) ····· 96
〈표 Ⅴ-9〉 공적연금 수급자 특성(60세 이상) ····· 97
〈표 Ⅴ-10〉 국민연금 수급률(60세 이상) ····· 97
〈표 Ⅴ-11〉 국민연금 수급자 특성(60세 이상) ····· 98
〈표 Ⅴ-12〉 고용보험 가입률 ····· 99

〈표 Ⅴ-13〉 고용보험 가입자 특성 ····· 100
〈표 Ⅴ-14〉 산재보험 가입률 ····· 101
〈표 Ⅴ-15〉 산재보험 가입자 특성 ····· 102
〈표 Ⅴ-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 ····· 103
〈표 Ⅴ-17〉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주 특성 ····· 104
〈표 Ⅴ-18〉 기초연금 수급률 ····· 105
〈표 Ⅴ-19〉 기초연금 수급자 특성 ····· 106
〈표 Ⅴ-20〉 건강보험 가입률 ····· 107
〈표 Ⅴ-21〉 건강보험 가입자 특성 ····· 108
〈표 Ⅴ-22〉 의료급여 수급률 ····· 110
〈표 Ⅴ-23〉 의료급여 수급권자 특성 ····· 111
〈표 Ⅵ-1〉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노후시작 연령 ····· 115
〈표 Ⅵ-2〉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노후시작 사건 ····· 116
〈표 Ⅵ-3〉 노후에 필요로 하는 최소생활비 및 적정생활비 ····· 118
〈표 Ⅵ-4〉 주관적 노후해당자의 현재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1~3순위, 다중응답결과 ····· 119
〈표 Ⅵ-5〉 주관적 노후해당자 주요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 수와 1순위 방법 ····· 120
〈표 Ⅵ-6〉 주관적 노후비해당자의 경제적 준비 여부 ····· 121
〈표 Ⅵ-7〉 주관적 노후비해당자의 노후준비 방법-1~3순위, 다중응답결과 ····· 122
〈표 Ⅵ-8〉 주관적 노후비해당자 주요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 수와 1순위 방법 ····· 123
〈표 Ⅵ-9〉 주관적 노후비해당자의 노후준비가 충분한지에 대한 인식 124
〈표 Ⅵ-10〉 주관적 노후비해당자가 경제적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 … 125
〈표 Ⅵ-11〉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독립적 경제력 보유 여부 ····· 126
〈표 Ⅵ-12〉 독립적 경제력 없는 경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싶은 대상 … 127
〈표 Ⅵ-13〉 노후대책의 가장 주된 역할을 해야 할 주체 ····· 128

〈표 Ⅵ-14〉 노후대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본인 ····· 129
〈표 Ⅵ-15〉 노후대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사회 ····· 130
〈표 Ⅵ-16〉 주관적 노후시기 비해당자의 노후시기 자녀 동거 의향 ··· 131
〈표 Ⅵ-17〉 주관적 노후시기 비해당자의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를
원하는 이유 ····· 132
〈표 Ⅵ-18〉 노후시기 비해당자-노후시기 자녀와 동거 원하지 않는 이유 ··· 133
〈표 Ⅵ-19〉 노후비해당자-노후생활을 보내고 싶은 지역 ····· 134
〈표 Ⅵ-20〉 노후비해당자-노후시기 거주하고 싶은 주택 형태 ····· 135
〈표 Ⅵ-21〉 여가활동의 종류-다중응답결과 ····· 137
〈표 Ⅵ-22〉 여가활동에 소요되는 평균시간 ····· 138
〈표 Ⅶ-1〉 부모 생존 여부 ····· 140
〈표 Ⅶ-2〉 생존 부모와의 동거 실태 ····· 141
〈표 Ⅶ-3〉 생존 부모의 경제적상태 ····· 141
〈표 Ⅶ-4〉 생존 부모 수발 및 간병 여부 ····· 142
〈표 Ⅶ-5〉 자녀 유무 및 손자녀 유무 ····· 144
〈표 Ⅶ-6〉 손자녀 돌봄 여부 ····· 145
〈표 Ⅶ-7〉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대가 유무 ····· 146
〈표 Ⅶ-8〉 비동거하는 배우자 및 부모와의 왕래 빈도 ····· 147
〈표 Ⅶ-9〉 비동거하는 배우자 및 부모와의 연락 빈도 ····· 148
〈표 Ⅶ-10〉 비동거하는 자녀와의 왕래 빈도 ····· 149
〈표 Ⅶ-11〉 비동거하는 자녀와의 연락 빈도 ····· 150
〈표 Ⅶ-12〉 신체적 건강상태 ····· 152
〈표 Ⅶ-13〉 정신적 건강상태 ····· 153
〈표 Ⅶ-14〉 우울여부 ····· 155
〈표 Ⅶ-15〉 장애진단 경험 유무 ····· 156
〈표 Ⅶ-16〉 장애진단 유경험자들의 장애원인 ····· 157
〈표 Ⅶ-17〉 장애진단 유경험자들의 장애등급 ····· 158
〈표 Ⅶ-18〉 건강상 문제 또는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제한 여부 ····· 159

〈표 Ⅶ-19〉 일상생활활동 및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수준 ····· 160
〈표 Ⅶ-20〉 영역별 생활만족도 ····· 162
〈표 Ⅷ-1〉 명목가계소득의 변화 ····· 164
〈표 Ⅷ-2〉 실질가계소득의 변화 ····· 165
〈표 Ⅷ-3〉 가구균등화지수를 사용한 가계소득의 변화 ····· 167
〈표 Ⅷ-4〉 명목소비지출의 변화 ····· 169
〈표 Ⅷ-5〉 실질소비지출의 변화 ····· 170
〈표 Ⅷ-6〉 가구균등화지수를 사용한 소비지출의 변화 ····· 171
〈표 Ⅷ-7〉 성별, 연령대, 최종학력별 고용률 분포 ····· 173
〈표 Ⅷ-8〉 성별, 코호트별 고용률 분포 ····· 175
〈표 Ⅷ-9〉 필요 최소노후생활비 및 적정 생활비(명목) ····· 177
〈표 Ⅷ-10〉 필요 최소노후생활비 및 적정 생활비(실질) ····· 177
〈표 Ⅷ-11〉 가입한 공적연금종류 ····· 179
〈표 Ⅷ-12〉 공적연금 수급 ····· 180
〈표 Ⅷ-13〉 수급받는 공적연금종류 ····· 181
〈표 Ⅷ-14〉 수급받는 공적연금 급여종류 ····· 182
〈표 Ⅷ-15〉 공적연금 수급(60세 이상) ····· 183
〈표 Ⅷ-16〉 고용보험 가입 ····· 184
〈표 Ⅷ-17〉 산재보험 가입 ····· 184
〈표 Ⅷ-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 185
〈표 Ⅷ-19〉 건강보험 가입 ····· 186
〈표 Ⅷ-20〉 의료급여 수급권자 ····· 187
〈표 Ⅷ-21〉 신체적 건강상태 ····· 188
〈표 Ⅷ-22〉 신체적 건강상태 평균 ····· 189
〈표 Ⅷ-23〉 정신적 건강상태 ····· 191
〈표 Ⅷ-24〉 정신적 건강상태 평균 ····· 192
〈표 Ⅷ-25〉 삶의 만족도 평균 ····· 194
〈표 Ⅷ-26〉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제상태 만족도 추이 ····· 196
〈표 Ⅷ-27〉 국민연금 수급자의 삶의 전반적 만족도 추이 ····· 197

〈표 Ⅷ-28〉 공적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급액 만족도 ····· 198
〈표 Ⅷ-29〉 공적연금 수급자의 독립적 경제력 보유 인식 ····· 199
〈표 Ⅷ-30〉 노후준비방법의 1순위 국민연금 응답자의
노후준비 충분성 판단 여부 ····· 200
〈표 Ⅷ-31〉 공적연금 수급자의 취업여부 ····· 201
〈표 Ⅷ-32〉 이전소득 중 사적이전소득 비중 ····· 202
〈부표 1〉 tree 모형을 위해 사용한 설명 ····· 206
〈부표 2〉 각 cell 별 가구 무응답 보정 승수 ····· 208
〈부표 3〉 각 cell 별 가구 무응답 보정 승수 ····· 211

그림 차례

[그림 Ⅱ-1]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표 구성 및 조사진행순서 ····· 20
[그림 Ⅱ-2] 국민노후보장패널 표본 ····· 22
[그림 Ⅱ-3] 국민노후보장패널 표본개요 ····· 23
[그림 Ⅱ-4] 13표본의 지역별 원표본 유지율 (통합 3차년도) ····· 26
[그림 Ⅱ-5] 05표본 원표본가구 응답추이 ····· 33
[그림 Ⅱ-6] 05표본 지역별 원표본유지율 ····· 36
[그림 Ⅲ-1] 소득 세부항목이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 47
[그림 Ⅷ-1] 중·고령자의 고용률 분포 ····· 174
[그림 Ⅷ-2] 필요 최소노후생활비 및 적정 생활비(명목) ····· 178
[그림 Ⅷ-3] 필요 최소노후생활비 및 적정 생활비(실질) ····· 178
[그림 Ⅷ-4] 공적연금 수급 ····· 180
[그림 Ⅷ-5] 공적연금 수급(60세 이상) ····· 183
[그림 Ⅷ-6]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보장비율 ····· 187
[그림 Ⅷ-7] 신체적 건강상태 평균 ····· 190
[그림 Ⅷ-8] 정신적 건강상태 평균 ····· 193
[그림 Ⅷ-9] 삶의 만족도 평균 ····· 195
[그림 Ⅷ-10]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제상태 만족도 추이 ····· 196
[그림 Ⅷ-11] 국민연금 수급자의 삶의 전반적 만족도 추이 ····· 197
[그림 Ⅷ-12] 공적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급액 만족도 ····· 198
[그림 Ⅷ-13] 공적연금 수급자의 독립적 경제력 보유 인식 ····· 199
[그림 Ⅷ-14] 노후준비방법의 1순위 국민연금 응답자의 노후준비 충분성 판단 여부 ····· 200
[그림 Ⅷ-15] 공적연금 수급자의 취업여부 ····· 201

요 약

Ⅰ. 서 론

○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을 파악하여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자료를 구축하고자 2005년부터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를 실시함

○ 본 보고서는 7차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 대한 보고서로, 아래와 같이 구성됨

– 제1장 머리말, 제2장 국민노후보장패널의 개요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실사에 대한 내용임

– 제3장부터 7장까지는 13표본의 7차년도 조사항목의 기초분석임

– 제8장은 1~7차년도까지 모두 응답한 패널의 동일항목에 대한 조사차수별 종단 응답치를 분석하였으며, 공적연금 수급자의 생활실태 변화도 분석하였음

Ⅱ. 국민노후보장패널 7차년도 본조사 개요

○ KReIS에서는 2005년 최초 구축하여 조사하고 있는 05표본과 2013년 5차년도 조사에서 표본추가를 통해 구축한 13표본을 함께 조사하고 있음

– (13표본) 총 4,449가구를 조사성공함. 원표본유지율은 88.8%이며, 유효성공률은 92.0%임

– (05표본) 총 3,570가구가 조사완료됨. 원표본유지율은 68.7%이며, 유효성공률은 77.3%임

Ⅲ. 가계경제

○ KReIS는 가계의 소득, 지출 현황과 자산 및 부채 보유 실태를 응답받아 중·고령자의 가계경제 상태를 파악하고 있음

○ (가계소득) 2016년 중·고령자 가구의 가계소득 평균은 37,941천원

- 가계소득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61.0%(27,886천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공적이전소득(22.3%), 사적이전소득(10.4%), 부동산소득(2.9%), 기타소득(2.0%), 금융소득(1.0%)이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남

○ (가계소비지출) KReIS는 소비항목 조사 시 통계청 자료 및 국외 데이터와의 비교를 위해 COICOP 소비지출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음. 2016년 가구의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합한 가계지출은 27,928천원임

- 가계지출 27,928천원 중 소비지출은 23,104천원으로 86.5%, 비소비지출은 4,841천원으로 13.5%를 차지함

○ (자산, 부채) 중·고령 가구의 순자산(자산-부채)은 평균 216,314천원으로 나타났음

- 중·고령 가구의 총자산 평균은 249,175천원, 부채 평균은 32,512천원으로 나타났음

Ⅳ. 경제활동상태

○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중·고령자들의 취업상태와 은퇴에 대한 생각 등을 조사하였음

○ (고용률) 취업자를 1주일에 1시간 이상 소득을 목적으로 근로한 사람으로 정의하여 조사함

- 7차년도 조사 결과 중·고령자 고용률은 54.3%로 나타났음

○ 종사상 지위
- (임금근로자) 상용직 46.8%, 임시직 36.2%, 일용직 16.9%임
- (비임금근로자) 종업원 없는 고용주의 비율이 43.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무급가족 종사자 24.8%,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하는 자영업자 22.4%, 종업원 있는 고용주 9.2% 순임

○ 임금근로자의 근무형태
- 시간제와 전일제 근무의 비율이 각각 14.3%와 85.7%로 전일제 근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정규직 46.7%, 비정규직 53.3%로, 비정규직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은퇴 후 예상생활비) 부부기준 월평균 2,449천원, 개인기준 월평균 1,518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예상생활비가 높게 나타남

Ⅴ. 사회보장 적용 실태

○ 중·고령자의 사회보장 적용실태를 소득보장정책과 건강 및 의료보장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공적연금 적용실태는 다음과 같음
- (공적연금 가입) 60세 미만 개인조사대상자 중 공적연금 가입률은 57.0%이며, 전체 공적연금 가입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가 95.8%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적연금 납부) 공적연금 납부자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음
- (공적연금 수급 및 수급 종류) 공적연금 수급 역시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보다 국민연금을 수급 받는 경우가 많음. 60세 이상 개인조사대상자 중 공적연금 수급자의 비율은 37.6%로 나타났으며, 이 중 국민연금 수급자의 비율이 86.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업자의 약 31.0% 정도가 가입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 기준, 수급가구는 4.0%임. 수급가구의 개인을 기준으로 보면 2.4%[1]가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연금) 2016년 기준, 65세 이상 응답자 중 64.0%[2]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의료보장) 전 국민 의료보장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통해 이루어짐. 건강보험 가입비중은 97.0%에 달했으며, 그 외는 의료급여 수급권자(3.0%)로 나타남

Ⅵ. 노후생활

○ KReIS에서는 중·고령자들의 노후준비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노후시작 연령 및 사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 수준 및 준비 방법, 노후대책 마련의 주체 및 개인/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노후대책, 주중·주말 동안의 여가생활의 종류 및 소요시간 등에 대해 응답받음.

○ (주관적 노후시작연령)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노후시작 연령은 평균 68.5세로 나타남

- 응답자 중 스스로 노후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34.3%였으며, 노후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연령은 73.5세, 노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연령은 58.2세로 나타남

○ (주관적 노후시작사건)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노후시작 사건의 경우 응답자의 56.3%가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응답했으며, 이어 근로활동 중단 시기(24.3%), 공적연금 지급 시기(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 2016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률(개인)은 3.2%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e-나라지표).

2) 2016년 기준, 기초연금은 65세이상 노인 중 65.5%가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e-나라지표).

○ (주관적 노후 생활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노후 필요생활비의 수준을 조사한 결과, 최소 노후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평균 약 1,760천원, 개인 기준 1,081천원으로 나타났고, 적정 생활비로는 부부 기준 2,434천원, 개인기준 약 1,537천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인식함

○ 노후생활비 마련방법은 응답자 스스로가 노후시기에 진입했다고 여기느냐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

– (노후) 노후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경우, 정부보조금과 자식 및 친척에게 받는 용돈 등을 통해 노후시기 생활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비노후) 스스로를 노후에 아직 진입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중 37.1%만이 노후생활비를 준비함. 이들의 노후생활비 준비방법은 국민연금과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이 주된 방법이며, 53.9%는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함

○ 독립적 경제력

– (독립적 경제력 여부) 응답자의 51.5%는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경제력을 갖추었다고 응답하였음

– 독립적 경제력을 갖추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연령은 61.3세로 독립적 경제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연령 65.8세에 비해 낮게 나타남

– (도움을 받고싶은 대상) 주로 ‘자녀 및 손자녀’(42.2%)인 것으로 나타남

○ 노후시기 해당

– (주된 역할을 담당할 주체) ‘본인(60.8%)’이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음

– (본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경제적 문제(50.1%)’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 ‘건강/의료(39.2%)’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노후시기 비해당
- (향후 자녀동거 희망하는지 여부) 응답자의 91.1%는 자녀와 떨어져 살기를 원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따로 살아야 각자의 생활방식이 지켜질 것 같아서(47.1%)' 와 '자신이 불편하기 때문에(26.1%)'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 (향후 노후생활을 보내고 싶은 지역) '중소도시(41.1%)'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거주하고 싶은 주택 형태로는 '단독주택(47.4%)'과 '아파트(42.1%)'의 비중이 높았음

○ 여가
- (활동) 주중과 주말 모두 주된 여가활동으로 'TV 시청, 라디오 청취'와 같은 휴식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시간) 주중에는 27.8시간, 주말에는 13.5시간을 여가활동으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음

Ⅶ. 삶의 질

○ KReIS에서는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살펴보고자 가족관계, 건강, 삶의 만족도 항목을 측정하였음

○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부모관계) 개인조사대상의 부모 생존·동거비율을 살펴보면, 부친(1.6%)보다 모친(19.1%)의 생존 비율이 더 높았으며, 부모가 모두 생존한 비율은 6.7%로 나타남. 부모 동거비율은 모친만 생존한 경우(18.0%)에 가장 높았음
- (돌봄) 생존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가 있는 경우, 부모를 수발 및 간병하고 있는 비율은 0.8%로 극히 낮음. 손자녀가 있는 경우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비율은 7.5%였으며, 그 중 40.2%는 손자녀 돌봄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왕래, 연락빈도) 동거하지 않는 자녀와의 왕래 및 연락은 '한달~반년에 1~2회' 정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부모의 경우도 대체로 유사하였음. 주로 왕래에 비해 연락 빈도가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남

○ 건강과 관련된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음

- (건강상태)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신체적 건강상태는 5점 만점에 평균 3.2점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건강상태는 3.5점으로 나타났음.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는 고연령, 저학력, 비취업자인 경우에서 공통적으로 낮게 나타남
- (우울) CES-D 척도로 측정. 전체 대비 22.4%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와 유사하게 여성, 고연령, 저학력, 비취업자인 경우의 우울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장애) 장애진단을 경험한 비율은 6.5%였으며, 장애원인으로는 63.0%가 후천성 질환인 것으로 나타났음. 장애등급은 응답자 특성별로 서로 상이하였음
- (일상생활 활동)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일상·사회활동 제한을 겪는 비율은 전체 대비 5.3%였으며, 일상생활활동(ADL)과 도구적 일상생활활동(IADL) 수준 점수는 평균 20.9과 29.6점으로, 전반적으로 일상생활활동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삶의 만족도) 영역별 생활만족도는 '부부관계', '가족관계', '자녀관계'의 만족도가 높았던 영역이며,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4점으로 나타남

Ⅷ. 패널조사 차수별 종합 비교분석

1. 가계경제

○ (가계소득) 1차년도 25,652천원, 2차년도 27,110천원, 3차년도 27,135천원, 4차년도 25,967천원, 5차년도 28,126천원, 6차년도 26,687천원, 7차년도 29,629천원으로 나타남

- 가계소득은 모든 조사 차수에서 가구주가 남성일 때 여성인 경우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주 연령이 감소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실질 가계소득)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실질가계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1차년도 33,602천원에서 점차 감소하여 7차년도에는 29,345천원으로 나타났음

○ (가계 소비지출) 1차년도 16,281천원, 2차년도 19,780천원, 3차년도 20,271천원, 4차년도 16,902천원, 5차년도 18,428천원, 6차년도 18,355천원, 7차년도 18,409천원으로 나타남

- 가구주가 남성일 때의 소비지출이 여성일 때의 그것보다 많았으며, 가구주 연령이 낮아질수록 학력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음

○ (실질 가계소비지출) 물가상승을 반영한 실질가계소지지출의 경우 1차년도 21,326천원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다 7차년도에는 18,232천원으로 나타났음

2. 경제활동상태

○ (고용률) 1차년도 당시 만 50세 이상 개인의 고용률[3]은 53.0%, 2차년도 50.3%, 3차년도 49.2%, 4차년도 44.1%, 5차년도 41.4%, 6차년도 39.9%, 7차년도 36.1%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3) 고용률 = (취업자 수/전체인구 수)*100

3. 노후생활

○ (노후 생활비)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월평균 개인 및 부부기준 최소/적정 생활비를 조사차수별로 살펴본 결과, 1차에서 7차년도 조사까지 명목 필요 노후생활비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실질가치로 환산하면 부부와 개인 기준 최소 필요생활비 수준은 7차년도에 소폭 감소한 반면, 적정생활비 수준은 4차년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사회보장 적용실태

○ (공적연금) 공적연금 수급자가 증가함. 가입 및 수급 모두 국민연금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모두 노령(퇴직)연금 수급 비중이 가장 높음

○ (고용보험, 산재보험) 4차년도까지는 가입비중이 증가하다가 5차년도부터 줄어듦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가구 수급비중은 3차년도까지 높아졌으나, 4차년도부터 낮아지고 있음

○ (건강보험, 의료급여) 건강보험 가입비중은 3차년도까지 다소 감소하나 4차년도부터 소폭 증가하고 있음.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과 동일한 경향을 보임

5. 삶의 질

○ (신체적 건강상태) 1~7차년도 전반에 걸쳐 '보통' 혹은 '좋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약 70% 내외의 수준으로 나타남

○ (정신적 건강상태) 2차년도를 제외한 전체 조사차수에서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삶의 만족도) 1~7차년도 전반에 걸쳐 3.0~3.1점 수준으로 나타나 대체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모두에서 여성, 고연령, 저학력, 비취업자일수록 낮은 경향이 있었음

6. 공적연금 수급자의 생활실태 변화

○ (경제상태 만족도) 국민연금 수급자는 연금을 수급받지 않는 중고령자에 비해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1차년도에 5점 만점에 2.89점 수준이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7차년도에 3.17점으로 나타남

○ (삶의 만족도) 공적연금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전반적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음

○ (공적연금 수급액 만족도)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에 비해 수급액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독립적 경제력) 공적연금 수급자는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독립적 경제력을 가졌다는 인식이 53.7%에서 7차년도에는 65.1%까지 증가한 반면, 비수급자는 30.6%에서 24.4%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간 독립적 경제력 보유 인식의 차이가 커지고 있음

[일러두기]

본 보고서의 결과는 조사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한 수치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통합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는 조사시점의 가구분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13표본 구축시점의 분포를 반영하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종단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는 2005년에 구축한 표본 중 매 본조사에 조사한 표본이 2005년 시점의 분포를 반영하도록 설계된 가중치이므로, 결과 해석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조사항목 및 측정의 기준이 타 조사의 기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단순한 비교는 금함.

Ⅰ. 서 론

우리나라 2018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통계청, 2018). 동시에, 낮은 출산율과 유년인구의 감소로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재정안정화, 형평성 문제 등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나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한 통계적인 분석과 전망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저축과 근로, 세대 내, 세대 간 분배 등의 국민경제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국민들의 수요에 대한 판단근거의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근로인구의 감소와 저축의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의 둔화를 야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개인의 노후설계와 복지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향후 연금 및 의료보장 등 사회보장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듯 고령화 과정에서 연금(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저축과 자산, 가족, 건강, 퇴직, 근로, 소득 등에 있어 복잡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국민연금연구원은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정책을 위한 체계적인 자료를 구축하고자,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전국 5,110가구와 그 가구에 속하는 만 50세 이상 개인 8,689명을 추출하여 2005년부터 격년으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를 실시하고 있다. 본조사에서는 표본가구의 경제상황, 중·고령자의 고용현황 및 퇴직, 건강, 가족관계, 노후보장 현황 등 노후생활 전반에 걸친 주제들을 포괄적으로 조사한다. 현재는 1차부터 6차 본조사(2015년) 자료구축을 완료한 상태이며, 7차년도 본조사(2017년) 자료구축 단계에 있다.

또한 격년으로 진행되는 본조사 사이에는 본조사에서 측정하지 못한 이슈와

패널관리를 목적으로 부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차 부가조사(2006년)에서는 50대 가구주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지출 및 소득현황에 대해 심층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차 부가조사(2008년)에서는 2차 본조사 개인응답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만 15세 이후 일자리 변동이력과 공적연금 가입/수급이력에 대해 심층조사를 실시하였고, 3차 부가조사(2010년)는 개인조사대상의 주관적 노후시기 해당여부를 판별하고, 노후준비와 노후 관련 제도 인식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였으며, 4차 부가조사(2012년)는 중·고령자의 성공적 노후 수준과 노후 관련 제도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5차 부가조사(2014년)에서는 중·고령자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대처전략에 대해 조사하였다. 6차 부가조사(2016년)부터는 경제, 여가, 건강, 대인관계로 대표되는 노후대비 4대 영역 중 본조사에서 조사되는 경제부문을 제외한 비경제적 부문의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를 부가조사에서 반복조사하며, 패널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7차년도 본조사(2017년)는 2005년부터 원표본으로 구축된 표본에 대해서는 7번째 실시하는 본조사이며, 2013년에 구축한 13표본으로는 세 번째 맞이하는 본조사이다. 13표본의 경우 패널관리가 비교적 잘 이루어져 유지율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17년에 실시한 7차년도 본조사(2017년)에 대한 기초분석 보고서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은 7차년도 본조사의 개요로, 7차년도 본조사(2017년)의 실사과정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이다.

3장부터 7장까지는 7차년도 본조사(2017년)의 조사항목 가운데 가계경제, 경제활동상태, 사회보장 적용 실태, 노후생활, 삶의 질 부분에 대하여 기초분석을 실시하였다. 8장에서는 1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모두 조사한 조사대상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종단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7차년도 본조사(2017년)에는 13표본을 기준으로 할 때 신규가구나 개인조사대상자의 발생수가 적어 횡단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와 종단가중치 적용의

결과가 거의 유사하다. 이에 3장부터 7장까지는 2013년에 구축한 13표본을 기준으로 한 횡단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2005년 원표본으로 구축되어 7차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응답한 표본의 경우 8장에서는 종단가중치를 적용하여 1차부터 7차까지의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금번 보고서에서는 공적연금 수급자의 생활실태의 종단적 변화 분석결과를 추가하였다. 참고로 2005년 원표본으로 구축된 표본의 경우 연령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 표본을 추가하여 13표본을 구축하였으므로, 횡단적 의미보다는 2005년 이후의 종단적 변화 파악에 의미를 가질 수 있다. 13표본의 다수가 2005년부터 구축된 표본이므로, 13표본의 5차년도부터 7차년도의 종단분석 결과가 05표본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13표본의 종단분석은 본 보고서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본 보고서는 클리닝 과정 중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므로, 향후 데이터 클리닝 작업이 완료된 이후 공개될 자료와는 수치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Ⅱ. 국민노후보장패널 7차년도 본조사 개요

이 장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이하 KReIS) 7차년도 본조사(2017년) 개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KReIS 7차년도 본조사(2017년)에서 측정한 내용은 무엇이며, 변동된 사항은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어떠한지, 7차년도 본조사(2017년)에 조사 성공한 가구의 특성은 어떠한지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조사내용

KReIS는 동일한 내용이나 항목을 반복조사하는 특성을 갖는 패널조사이며, 본조사는 가구 조사, 개인 조사로 구성된다.

가구 조사는 가구용 조사표를 활용하며, 해당 가구의 경제상황 및 전반적인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가 응답하게 된다. 가구용 조사표에서는 가구원 인적사항, 주거, 가구지출, 가구소득 및 저축, 가구자산 및 부채에 대해 측정한다. 개인조사는 가구의 50세 이상인 자와 그의 배우자가 응답하게 되는데, 기존 조사자는 지난 조사 이후의 고용상태 및 일자리 이력을 추가 보완하고, 신규조사자는 15세 이후의 일자리 이력을 응답받게 된다. 현재 취업자는 현재 일자리의 고용상태 및 이직 계획을 조사하고, 비취업자는 은퇴 및 구직계획, 노후준비, 공적연금, 개인연금, 건강보험, 개인 소득 및 이전지출, 개인 자산 및 부채, 상속 및 증여, 돌봄노동, 건강,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다. KReIS의 조사항목은 〈표 Ⅱ-1〉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Ⅱ-1〉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항목

조사표	측정항목 및 측정내용	
가구용	가구원 인적사항	가구원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생년월일, 혼인상태, 학력 등, 변동가구원(분가, 사망) 등
	주거	거주주택의 종류, 점유형태 등
	가구지출	COICOP-K기준항목(식비, 주거비 등), 지출이 소득보다 많았던 달 여부 및 부족한 생활비 마련방법
	가구소득 및 저축	근로, 금융, 부동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기타소득 및 저축
	가구자산 및 부채	부동산, 금융, 기타자산 및 부채
개인용	취업자 -고용 및 이직	현재 종사하는 일자리, 퇴직급여, 정년 및 퇴직, 이직활동 및 은퇴계획
	비취업자 -은퇴 및 구직	구직활동, 은퇴여부 및 은퇴태도
	노후준비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노후해당여부, 노후생활비, 여가활동 등)
	공적연금	납부정보(종류, 가입시기, 보험료 등), 수급정보(수급급여, 월수급액, 만족도 등)
	개인연금	가입(유형,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 수급(수급시점, 수급액, 만족도 등)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가입, 납부), 의료급여, 민영건강보험
	소득 및 이전지출	근로, 금융, 부동산, 공적이전, 사적이전소득, 연금형태 수입, 기타소득, 저축
	자산 및 부채	거주주택 및 사업장 소유여부, 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
	상속 및 증여	상속(종류, 금액, 향후 상속여부 등), 증여(종류, 금액, 향후 증여여부 등)
	돌봄노동	손자녀 및 부모 돌봄
	건강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 장애, 질병(질환)정보, 일상생활활동 정보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가족관계	동거여부, 왕래 및 연락빈도
직업력	일자리 시작·종료시기, 직·산업관련 정보, 생애주된일자리여부, 주기적일자리, 4대보험 가입여부, 퇴직(사유, 퇴직금수령(액), 주 사용처)	

2. 조사과정 및 방법

KReIS 7차년도 본조사(2017년) 자료수집은 전문조사업체인 입소스주식회사에서 위탁하여 진행하였으며, 2017년 4월부터 9월까지 총 6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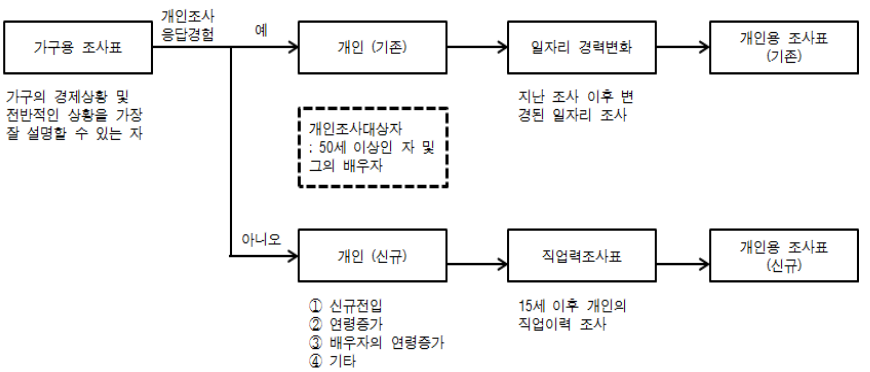
기존 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방법은 면접원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면접원이 기록하는 면접타계식(face-to-face interview)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전에 방문일자를 정하고 정해진 시간에 면접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KReIS는 타 조사방법은 허용하지 않는데, 본 조사의 특성상 조사대상자 연령이 50대 이상으로 고령자가 대다수 포함되어 있어 특정항목에 대해 응답을 기피하거나 문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기입할 가능성이 있어, 조사원들의 직접 방문을 통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진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우선 면접원은 조사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령하고, 조사지점 및 조사대상 가구에 대한 기초정보를 확인하였다. 기초정보를 확인 후, 조사지점의 주민센터나 마을 이장, 아파트 조사구는 아파트 관리소장 등의 협조를 얻어 조사안내 포스터 부착 및 조사진행 시 협조를 얻었다. 조사가 시작되면 면접원은 신분증과 조사준비물, 조사표 등을 가지고 직접 패널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재방문하였으며, 방문현황을 기록하였다. 가구 내 조사대상자의 조사를 완료하면, 조사표를 최종으로 확인하여 취합하고, 각 가구에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또한 향후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 이사 등의 이유로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민노후보장패널 전용 수신자 부담 전화 또는 공단으로 연락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KReIS 7차년도 본조사(2017년)는 조사표 별로 응답자가 다른데, 가구용 조사표는 원칙적으로 가구주나 가구주 배우자 중 가구의 경제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응답받았다. 개인용 조사표는 50세 이상 가구원과 배우자가 응답하였는데, 50세 이상 가구원이면 모두 조사했으며,

50세 미만이라도 50세 이상인 가구원의 배우자는 조사하였다. 개인용 조사는 기본적으로 기존 조사대상자인지, 이번 7차년도 본조사(2017년)에 새로 조사를 하게 된 대상자인지 구분(기존-개인, 신규-개인)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그림Ⅱ-1]).

[그림 Ⅱ-1]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표 구성 및 조사진행순서



KReIS 7차년도 본조사(2017년)의 실사는 다음의 원칙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패널로 구축된 가구와 그 가구의 50세 이상인 자와 그의 배우자가 조사대상이 되었다. 가구의 이사 또는 원표본 개인조사대상자의 이동에 대해서도 추적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개인조사대상자가 아닌 가구원이 이사 또는 분가할 경우, 추적조사에서 제외하였다. 개인조사대상자가 남아있지 않은 원가구의 경우, 미성년자만 남아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구조사를 진행하였다. 다만 가구원이 한 명인 단독가구의 경우, 개인조사대상자의 분가,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가구 및 개인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원가구 소멸로 간주하고 조사하지 않았다(〈표 Ⅱ-2〉 참고).

패널조사는 면접원 사전 교육 및 지침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현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조사내용 관련 사항 및 조사지역

상황 변화 등에 대해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KReIS는 가구방문조사라 주로 저녁 시간대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상황을 즉각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수신자 부담전화를 개설하여 면접원-조사회사-국민연금연구원이 유기적으로 상황에 대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II-2〉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원칙

실사상황		적용 원칙
가구	- 원표본 개인조사대상자의 분가 혹은 이혼	- 추적하여 조사
	- 원표본 추적대상자가 모두 분가하고 원가구에는 50세 미만의 가구원만 남음	- 원가구는 가구용조사만 진행 - 원표본 개인조사대상자가 있는 곳은 추적하여 조사
	- 원표본 개인조사대상자가 모두 분가하고 원가구에는 미성년자 가구원(만 18세 미만)만 남음	- 원가구 소멸, 조사하지 않음
	- 가구원이 한명인 단독가구의 원표본 개인조사대상자의 거주지 변경	- 거주지 추적하여 조사진행
	- 기존 조사에서 분가로 파악되었던 원표본 개인조사대상자가 다른 집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 - 기존 가구에는 개인조사대상자가 없음	- 기존 분가가구 소멸 새로 분가한 가구를 추적하여 가구와 개인조사 진행
	- 기존 조사에서 분가로 파악되었던 원표본 개인조사대상자가 다른 집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 - 기존 가구에는 또 다른 원표본 개인조사대상자가 있음	- 기존 가구와 원표본 개인조사대상자가 분가한 가구 모두 조사 진행
개인	- 지난 조사 당시에는 떨어져 살던 50세 이상의 가구원이 금번 조사 당시 패널가구에 합가	- 배우자와 함께 개인조사 진행
	- 지난 조사에는 개인조사대상이 아니었으나, 금번 조사 당시 만 50세 이상이 된 경우	- 배우자와 함께 개인조사 진행
	- 배우자가 금번 조사에서 만 50세 이상이 되어 새롭게 개인조사자가 된 경우	- 개인조사 진행
	- 전입하여 들어온 가구원으로서, 만 5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만 5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와 함께 개인조사 진행
조사 불가	- 가구원이 한명인 단독가구의 가구주 사망, 해외 이주, 장기수용시설 입소	- 원가구 소멸, 조사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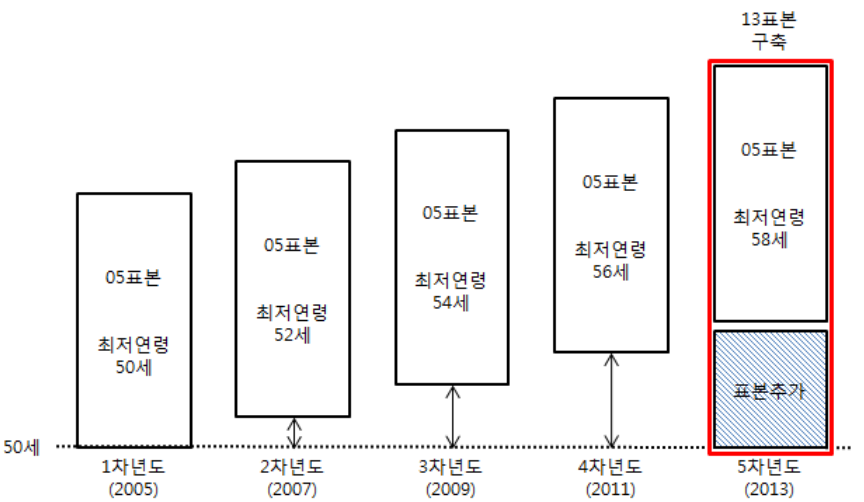
3. 조사결과

가. 13표본

1) 13표본 응답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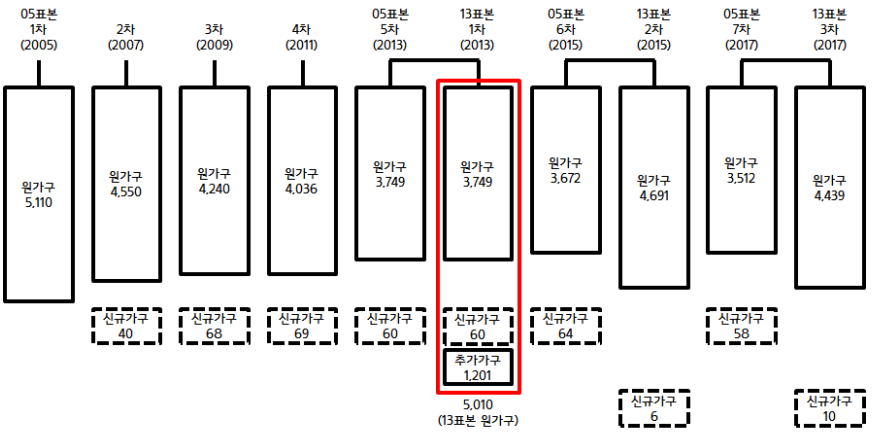
KReIS는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다. 2005년도에 최초 구축된 표본이 시간경과에 따라 당시 50세였던 최소 연령이 증가하게 되어 50대의 연령공백이 발생하게 되어,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5차년도 본조사에 표본추가하여 13표본을 구축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의 표본 개요는 아래 [그림 Ⅱ-2] 및 [그림 Ⅱ-3]과 같다.

[그림 Ⅱ-2] 국민노후보장패널 표본



[그림 Ⅱ-3] 국민노후보장패널 표본개요

(단위: 해당년도 조사성공가구 수)



주: 05표본 원가구 중 2013년도에 조사되지 않은 원가구가 2015년도 본조사에 조사된다면, 05표본에는 해당하지만 13표본의 원가구에는 속하지 않았으므로, 13표본에는 해당하지 않음. 13표본은 2013년에 조사성공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추적조사 하는 패널임

7차년도 본조사(2017년)는 2013년에 구축된 13표본의 3차년도 본조사이다. KReIS에서는 원표본유지율과 유효성공률 2가지를 제공하는데, 원표본유지율은 1차년도에 구축한 가구 대비 몇 가구를 성공하였는지 산출하는 것이고, 유효성공률은 사망, 이민 등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는 가구를 제외한 유효가구 대비 조사성공가구를 계산하는 것이다. 13표본 기준 총 4,449가구가 조사되었으며, 이 중 원표본가구는 4,439가구를 조사성공하였으며, 88.8%의 원표본유지율을 나타냈다. 신규가구는 원표본가구의 원표본개인이 이혼, 분가 등의 사유로 새롭게 발생한 가구인데, 7차년도 본조사(2017년)에서는 10가구가 조사성공되었다. KReIS에서의 신규가구는 여타 패널가구에서의 분가 개념과는 다른데, 50세 이상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므로 자녀가 혼인이나 직장 등의 사유로 분가한 개념과는 차이가 있어 분가가구가 아닌 신규가구로 개념을 정리

하였다. 유효성공률은 사망, 이민 등으로 더 이상 조사할 수 없는 부적격 가구를 제외한 유효원가구 대비 조사성공률을 나타낸 것인데, 유효 원표본가구 4,942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유효성공률은 92.0%로 나타났다(〈표 Ⅱ- 3〉)[4].

〈표 Ⅱ-3〉 13표본의 가구 응답현황

(단위: 가구, %)

구분	원표본 가구	조사 완료	원표본	신규	원표본 유지율	유효 원표본 가구	유효 성공률
통합 1차 본조사('13)	5,010	5,010	5,010	0	100.0	5,010	100.0
통합 2차 본조사('15)	5,010	4,697	4,691	6	93.6	4,942	94.9
통합 3차 본조사('17)	5,010	4,449	4,439	10	88.8	4,837	92.0

주 : 1) 유효원표본가구는 원표본가구에서 가구원의 사망, 이민 등으로 소멸한 원가구를 제외한 가구를 의미함
2) 유효성공률은 유효 원표본가구 대비 조사성공한 원표본 가구의 비율임
3) 13표본의 신규가구는 13표본의 원표본이 출가 등의 사유로 분가했을 때 발생

〈표 Ⅱ-4〉는 13표본의 지역별 가구 원표본유지율을 나타낸 것이다. 2013년도에 최초 구축된 13표본의 원가구 5,010가구를 기준으로 볼 때,

4) 13표본의 개인 응답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개인, %)

구분	원개인	조사 완료	원개인	신규개인	원표본 유지율	유효 원개인	유효 성공률
통합 1차년도('13)	8,411	8,411	8,411	0	100.0	8,411	100.0
통합 2차년도('15)	8,411	7,800	7,688	112	91.4	8,173	94.1
통합 3차년도('17)	8,411	7,315	7,122	193	84.7	7,983	89.2

주 : 1) 유효원표본개인은 원표본개인이 사망, 이민 등으로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한 개인 수를 의미함
2) 유효성공률은 유효 원표본개인 대비 조사성공한 원표본개인의 비율임

이번 7차년도 본조사(2017년)에서는 원표본유지율이 88.8%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북지역의 원표본유지율이 가장 높았으며(96.0%), 제주(81.8%) 지역의 원표본유지율이 가장 낮았다. 이번 3차년도 조사에서는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유지율이 낮았고, 강원 및 제주의 원표본 유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5]([그림 Ⅱ-4]).

〈표 Ⅱ-4〉 13표본의 지역별 원표본가구 유지율 (통합 3차년도)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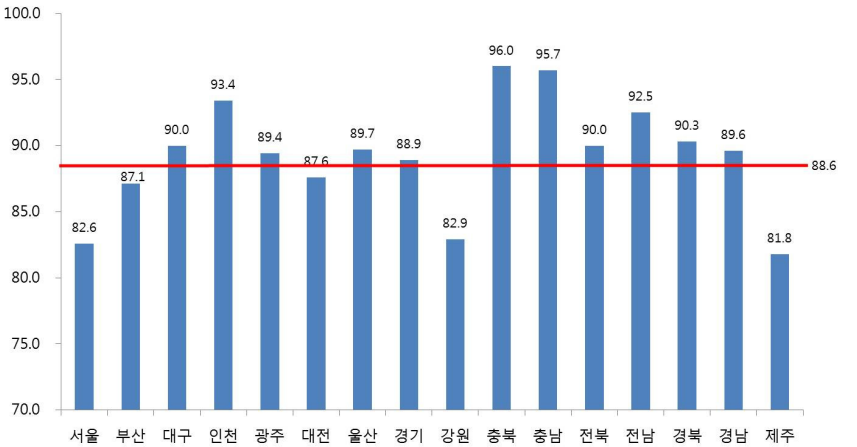
지역	통합 1차년도 원표본가구 수	통합 3차 본조사 조사성공 가구 수	각 지역 별 원표본유지율
서울	858	709	82.6
부산	363	316	87.1
대구	220	198	90.0
인천	241	225	93.4
광주	179	160	89.4
대전	161	141	87.6
울산	145	130	89.7
경기	984	875	88.9
강원	181	150	82.9
충북	176	169	96.0
충남	254	243	95.7
전북	219	197	90.0
전남	226	209	92.5
경북	351	317	90.3
경남	386	346	89.6
제주	66	54	81.8
전체	5,010	4,439	88.6

주: 지역구분은 최초 패널이 구축될 2005년도 당시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구분함
지역별 원표본유지율 = (조사성공 원표본가구수 / 통합1차 원표본가구수) × 100

5) 강원 및 제주의 원표본유지율이 낮은 이유를 본 고에서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 다만, 강원 및 제주는 지리적으로 고립된 공간이고,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사가구수가 많지 않아 유지율이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추후 위 지역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Ⅱ-4] 13표본의 지역별 원표본 유지율 (통합 3차년도)

(단위: %)



이번 7차년도 본조사(2017년)에서 통합 원표본가구 중 571가구는 조사실패하였다. 조사실패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조사를 거절하거나 3회 이상 부재하여 조사를 성공하지 못한 218가구(무응답), 주소 등 추적불가로 인해 조사를 더 이상 성공하지 못한 182가구(미상)와 사망, 장기수용시설 입소, 이민 등으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171가구(부적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등으로 조사에 대한 반감이 있어 조사를 강력하게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연락처 또는 거주지가 변경되어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향후 패널유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13표본 조사성공 가구특성별 현황

〈표 Ⅱ-5〉는 13표본의 조사성공가구의 가구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조사성공가구는 도 단위 지역이 가장 많았으며(57.7%), 광역시(26.3%), 서울(16.0%) 순으로 분포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성공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2.3명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원이 2인 가구가 가장 많고 1인 가구도 전체의 28.1%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조사성공가구는 단독주택(45.6%)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점포주택 등의 순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76.0%)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가구구성[6]은 노인부부가구(33.2%)나 노인단독가구(28.1%)보다는 그 외의 가구형태(38.7%)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표본의 원가구 특성도 전체가구의 특성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표본의 신규가구는 총 10가구가 조사성공되었는데, 분석가구가 적어 원가구 특성과 크게 비교하기 어렵지만, 평균 가구원수는 1.5명이고, 노인부부가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신규가구라고 부르지만 원 가구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분가한 가구를 의미하므로, 가구원수는 1인 또는 2인이 많으며, (노인)부부가구 보다는 (노인)단독가구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구구성 역시 단독가구나 그 외의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Ⅱ-6〉은 13표본 조사성공가구의 가구주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조사성공가구의 가구주는 여성(34.0%)보다는 남성(66.0%)이 더 많았으며, 가구주의 61.2%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67.6세였으나, 70대 가구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31.0%) 60대, 50대, 80세 이상, 50세 미만의 순으로 연령대가 나타났다. 가구주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으며, 가구주의 96.3%가 개인조사대상자였다.

---

6) 가구구성은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 그 외로 구분하였는데, 노인단독가구는 65세 이상 가구원 1인이 있는 가구를 의미하며, 노인부부가구는 부부 중 65세 이상인 자가 있는 가구를 의미하며, 부부와 자녀 등 다양한 가구구성은 그 외로 분류하였다.

조사성공한 13표본의 원가구의 가구주특성은 전체의 특성과 동일하며, 13표본 신규가구의 가구주는 여성이 더 많고,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68.5세이며, 10명 모두 개인조사대상자였다.

〈표 Ⅱ-5〉 13표본 조사성공가구 가구 특성

(단위: 가구, %)

구분		전체		13 원가구		13 신규가구	
거주 지역	서울	711	16.0	710	16.0	1	10.0
	광역시	1,170	26.3	1,169	26.3	1	10.0
	도	2,568	57.7	2,560	57.7	8	80.0
가구 원수	1명	1,249	28.1	1,243	28.0	6	60.0
	2명	1,784	40.1	1,781	40.1	3	30.0
	3명	692	15.6	691	15.6	1	10.0
	4명	501	11.3	501	11.3	0	0.0
	5명	145	3.3	145	3.3	0	0.0
	6명 이상	78	1.8	78	1.8	0	0.0
	평균(명)	2.3명		2.3명		1.5명	
주택 형태	단독주택	2,028	45.6	2,022	45.6	6	60.0
	아파트	1,715	38.5	1,715	38.6	0	0.0
	연립/다세대주택	560	12.6	556	12.5	4	40.0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104	2.3	104	2.3	0	0.0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33	0.7	33	0.7	0	0.0
	기타	9	0.2	9	0.2	0	0.0
주택 점유 형태	자가	3,396	76.3	3,395	76.5	1	10.0
	전세	362	8.1	360	8.1	2	20.0
	보증금 있는 월세	373	8.4	369	8.3	4	40.0
	보증금 없는 월세	45	1.0	45	1.0	0	0.0
	기타(무상주택, 사택 등)	273	6.1	270	6.1	3	30.0
가구 구성	노인단독	1,249	28.1	1,243	28.0	6	60.0
	노인부부	1,479	33.2	1,479	33.3	0	0.0
	그 외	1,721	38.7	1,717	38.7	4	40.0
전 체		4,449	100.0	4,439	100.0	10	100.0

〈표 Ⅱ-6〉 13표본 조사성공가구 가구주 특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13 원가구		13 신규가구	
성별	남성	2,935	66.0	2,933	66.1	2	20.0
	여성	1,514	34.0	1,506	33.9	8	80.0
배우자유무	있음	2,724	61.2	2,723	61.3	1	10.0
	없음	1,725	38.8	1,716	38.7	9	90.0
연령대	50세 미만	166	3.7	166	3.7	0	0.0
	50대	1,109	24.9	1,104	24.9	5	50.0
	60대	1,145	25.7	1,145	25.8	0	0.0
	70대	1,381	31.0	1,379	31.1	2	20.0
	80세 이상	648	14.6	645	14.5	3	30.0
	평균 연령(세)	67.6세		67.6세		68.5세	
최종 학력	무학	613	13.8	611	13.8	2	20.0
	초졸	1,077	24.2	1,074	24.2	3	30.0
	중졸	681	15.3	681	15.3	0	0.0
	고졸	1,419	31.9	1,414	31.9	5	50.0
	대학 재학 이상	658	14.8	658	14.8	0	0.0
	무응답	1	0.0	1	0.0	0	0.0
가구주 개인조사 대상여부	대상	4,285	96.3	4,275	96.3	10	100.0
	비대상	164	3.7	164	3.7	0	0.0
전 체		4,449	100.0	4,439	100.0	10	100.0

3) 13표본 조사성공 가구의 개인조사자 특성

KReIS의 개인조사대상자는 조사대상가구의 만50세 이상인 가구원과 그의 배우자이다. 조사성공개인은 13표본의 원가구와 그 원가구에서 분가한 신규가구에 속한 개인 중 이번 7차년도 개인조사에 성공한 자를 의미한다.

이번 7차년도 본조사(2017년)에서는 7,315명의 개인을 조사성공하였다. 조사에 성공한 개인 중 원표본 개인은 7,122명이며, 신규개인은 193명이다.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Ⅱ-7〉과 같다.

전체적으로 여성(58.6%)이 비율이 남성(41.4%)보다 높았다. 개인조사 성공자의 평균연령은 67.0세로 나타났으나, 50대 이하가 가장 많았고(30.4%), 70대(28.6%), 60대(27.6%), 80세 이상(13.4%)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조사성공자는 고등학교 졸업(31.6%)의 학력이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졸업(26.2%), 중학교 졸업(17.0%), 무학(13.5%), 대학 재학 이상(11.8%)의 학력을 보였다. 개인조사성공자의 대부분은 가구주(58.4%)였으며, 가구주의 배우자(35.3%), 가구주 및 가구주배우자의 부모(5.1%)도 개인조사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조사성공자의 47.4%는 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표본개인 조사성공자는 개인조사성공자 전체 특성과 거의 유사하나, 신규개인 조사성공자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조사성공자 중 남성(56.0%)의 비율이 여성(44.0%)보다 높았고, 평균연령도 52.5세로 나타났다. 50대(69.9%)가 가장 많았고 50세 미만(20.7%)도 많았는데, 신규개인은 연령증가 및 배우자의 연령증가로 조사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므로 부부 중 1인이 연령상승으로 인해 개인조사대상자가 되면 그 배우자도 개인조사대상자가 됨으로 이러한 연령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 가구주(45.1%)였으며 가구주의 배우자(31.6%)도 많았으나, 그 외(가구주의 자녀 등, 20.7%)인 자도 많았다. 조사성공자의 취업여부에서도 13표본의 원개인과 차이가 나는데, 72.0%가 취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7〉 7차년도 조사성공한 개인의 특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13 원개인		13 신규개인	
성별	남성	3,026	41.4	2,918	41.0	108	56.0
	여성	4,289	58.6	4,204	59.0	85	44.0
연령대	50세 미만	152	2.1	112	1.6	40	20.7
	50대	2,072	28.3	1,937	27.2	135	69.9
	60대	2,018	27.6	2,008	28.2	10	5.2
	70대	2,094	28.6	2,089	29.3	5	2.6
	80세 이상	979	13.4	976	13.7	3	1.6
	평균 연령	67.0세		67.4세		52.5세	
최종 학력	무학	984	13.5	978	13.7	6	3.1
	초졸	1,913	26.2	1,898	26.6	15	7.8
	중졸	1,241	17.0	1,227	17.2	14	7.3
	고졸	2,310	31.6	2,206	31.0	104	53.9
	대학 재학 이상	863	11.8	812	11.4	51	26.4
	무응답	4	0.1	1	0.0	3	1.6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본인)	4,272	58.4	4,185	58.8	87	45.1
	배우자	2,584	35.3	2,523	35.4	61	31.6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	376	5.1	371	5.2	5	2.6
	그 외	83	1.1	43	0.6	40	20.7
취업 여부	취업자	3,470	47.4	3,331	46.8	139	72.0
	비취업자	3,845	52.6	3,791	53.2	54	28.0
전 체		7,315	100.0	7,122	100.0	193	100.0

나. 05표본

1) 응답현황

국민노후보장패널의 원표본가구는 2005년에 표본으로 구축된 가구로써, 50세 이상 가구원(개인조사대상)이 있는 가구를 의미하며, 신규가구는 원표본가구의 원표본 개인조사대상이 분가하여 새롭게 구성된 가구를 의미[7] 한다. 7차년도 본조사(2017년)에서는 총 3,570가구[8]를 조사성공하였는데, 원표본가구는 5,110가구 중 3,512가구[9]가 조사되었으며, 신규가구는 58가구가 조사되었다(〈표 Ⅱ-8〉).

원표본유지율은 68.7%로 나타났는데, 직전차수 조사에 비해 약 3.2%p

7) KReIS에서의 신규가구는 여타 패널가구에서의 분가 개념과는 다른데, 50세 이상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므로 자녀가 혼인이나 직장 등의 사유로 분가한 개념과는 차이가 있어 분가가구가 아닌 신규가구로 개념을 정리하였다.

8) KReIS 7차년도 본조사(2017년)의 개인 응답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개인, %)

구분	원개인	조사 완료	원개인	신규개인	원표본 유지율	유효 원개인[1)]	유효 성공률[2)]
1차 본조사 (2005)	8,689	8,567	8,567	0	98.6	8,689	98.6
2차 본조사 (2007)	8,689	7,684	7,591	93	87.4	8,392	90.5
3차 본조사 (2009)	8,689	7,023	6,809	214	78.4	8,075	84.3
4차 본조사 (2011)	8,689	6,691	6,343	348	73.0	7,872	80.6
5차 본조사 (2013)	8,689	6,157	5,746	411	66.1	7,393	77.7
6차 본조사 (2015)	8,689	5,978	5,471	507	63.0	7,185	76.1
7차 본조사 (2017)	8,689	5,660	5,113	547	58.8	7,039	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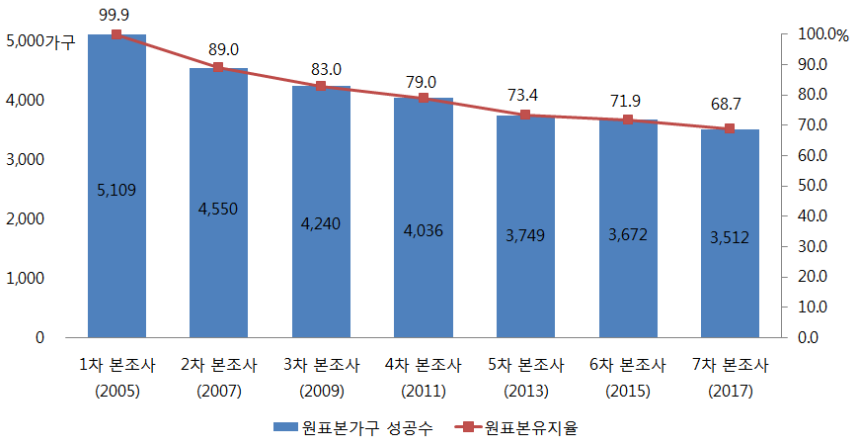
주 : 1) 유효원표본개인은 원표본개인이 사망, 이민 등으로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한 개인수를 의미함

2) 유효성공률은 유효 원표본개인 대비 조사성공한 원표본개인의 비율임

9) KReIS 7차년도 본조사(2017년)에서 원표본가구 중 1,598가구는 조사실패하였다. 조사실패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조사를 거절하거나 3회 이상 방문 시 부재하여 조사를 성공하지 못한 362가구(무응답), 주소 등 추적불가로 인해 조사를 성공하지 못한 600가구(미상)와 사망, 장기수용시설 입소, 이민 등으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636가구(부적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도 차이를 보였다. 유효성공률은 4,546 유효가구 기준 77.3%이며, 직전 차수에 비해 2.4%p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응답한 가구는 3,061가구이며, 원표본가구 5,110대비 59.9%의 지속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Ⅱ-5] 05표본 원표본가구 응답추이



〈표 Ⅱ-8〉 05표본 가구 응답현황

(단위: 가구, %)

구분	원표본	조사 완료	원표본	신규	원표본 유지율	유효 원표본[1]	유효 성공률[2]	1~7차 지속 응답 가구	지속 응답률
1차 본조사 (2005)	5,110	5,109	5,109	0	99.9	5,110	99.9	5,109	100.0
2차 본조사 (2007)	5,110	4,590	4,550	40	89.0	5,042	90.2	4,550	89.0
3차 본조사 (2009)	5,110	4,308	4,240	68	83.0	4,983	85.1	4,171	81.6
4차 본조사 (2011)	5,110	4,105	4,036	69	79.0	4,925	81.9	3,722	72.9
5차 본조사 (2013)	5,110	3,809	3,749	60	73.4	4,885	76.7	3,404	66.6
6차 본조사 (2015)	5,110	3,736	3,672	64	71.9	4,609	79.7	3,250	63.6
7차 본조사 (2017)	5,110	3,570	3,512	58	68.7	4,546	77.3	3,061	59.9

주 : 1) 유효원표본가구는 원표본가구에서 가구원의 사망, 이민 등으로 소멸한 원가구를 제외한 가구를 의미함
2) 유효성공률은 유효 원표본가구 대비 조사성공한 원표본 가구의 비율임

〈표 Ⅱ-9〉는 지역별 조사가구의 원표본가구 유지율을 나타낸 것이다. 7차년도 본조사(2017년)의 전체 원표본가구 유지율은 68.7%였으나, 지역별 성공률은 차이를 보였다. 원표본유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87.4%)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54.7%)이었다. 특히 서울, 부산, 경기, 대구, 제주는 평균 원표본유지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 광주, 경북, 경남, 전북지역은 타 지역보다 원표본가구 유지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9〉 05표본의 지역별 원표본유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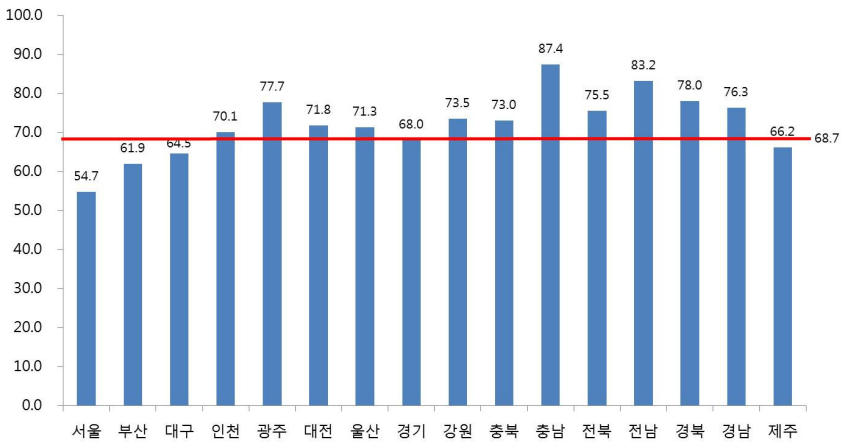
(단위: 가구, %)

지역	원표본가구 수	7차년도 본조사(2017년) 조사성공 가구 수	각 지역 별 원표본유지율
서울	1,043	571	54.7
부산	388	240	61.9
대구	231	149	64.5
인천	271	190	70.1
광주	157	122	77.7
대전	174	125	71.8
울산	150	107	71.3
경기	920	626	68.0
강원	170	125	73.5
충북	189	138	73.0
충남	231	202	87.4
전북	212	160	75.5
전남	214	178	83.2
경북	323	252	78.0
경남	372	284	76.3
제주	65	43	66.2
전체	5,110	3,512	68.7

주: 지역구분은 최초 패널이 구축될 2005년도 당시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구분함
지역별 원표본유지율 = (조사성공 원표본가구수 / 1차년도 원표본가구수) × 100

[그림 Ⅱ-6] 05표본 지역별 원표본유지율

(단위: %)



2) 05표본 조사성공 가구특성별 현황

7차년도 본조사(2017년)에서는 1차년도부터 조사한 기존가구와 5차년도부터 구축된 13표본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었다. 본 절에서는 조사성공한 05표본가구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KReIS에서는 50세 이상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005년도 1차조사 당시 구축했던 원표본가구와 원표본가구에서 분가 등의 사유로 신규발생한 가구까지 포함하여 조사하게 된다. 1차 본조사에서는 5,109가구를 조사성공하였고, 2차 본조사는 4,590가구, 3차 본조사는 4,308가구, 4차 본조사에서는 4,105가구를 조사성공하였으며, 5차 본조사에서는 3,809가구를, 6차년도에는 3,736가구를 조사성공하였다. 이번 7차 본조사에서는 3,570가구를 조사성공하였으며, 이 중 원표본가구는 3,512가구, 신규가구는 58가구를 조사성공하였다.

다음 〈표 Ⅱ-10〉은 05표본 조사성공가구의 가구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대부분의 가구는 도(57.2%)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광역시

(26.5%), 서울(16.3%)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전체 및 원표본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2.1명이었으며, 가구원수가 2명인 가구가 가장 많았고(43.5%), 1명(33.4%), 3명(11.8%), 4명 이상의 가구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0〉 05표본 조사성공가구 가구 특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원표본가구		신규가구		1~7차 계속응답가구	
거주 지역	서울	581	16.3	572	16.3	9	15.5	477	15.6
	광역시	946	26.5	932	26.5	14	24.1	777	25.4
	도	2,043	57.2	2,008	57.2	35	60.3	1,807	59.0
가구 원수	1명	1,192	33.4	1,160	33.0	32	55.2	1,015	33.2
	2명	1,554	43.5	1,539	43.8	15	25.9	1,361	44.5
	3명	421	11.8	416	11.8	5	8.6	354	11.6
	4명	215	6.0	211	6.0	4	6.9	182	5.9
	5명	113	3.2	111	3.2	2	3.4	89	2.9
	6명 이상	75	2.1	75	2.1	0	0.0	59	1.9
	평균	2.1명		2.1명		1.8명		2.1명	
주택 형태	단독주택	1,811	50.7	1,783	50.8	28	48.3	1,616	52.8
	아파트	1,217	34.1	1,196	34.1	21	36.2	994	32.5
	연립 /다세대주택	435	12.2	426	12.1	9	15.5	359	11.7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77	2.2	77	2.2	0	0.0	67	2.2
	비주거용건물내주택 (상가,공장등)	23	0.6	23	0.7	0	0.0	19	0.6
	기타	7	0.2	7	0.2	0	0.0	6	0.2
주택 점유 형태	자가	2,716	76.1	2,683	76.4	33	56.9	2,355	76.9
	전세	282	7.9	275	7.8	7	12.1	231	7.5
	보증금 있는 월세	270	7.6	259	7.4	11	19.0	217	7.1
	보증금 없는 월세	40	1.1	39	1.1	1	1.7	31	1.0
	기타 (무상주택, 사택 등)	262	7.3	256	7.3	6	10.3	227	7.4
가구 구성	노인단독	1,192	33.4	1,160	33.0	32	55.2	1,015	33.2
	노인부부	1,298	36.4	1,288	36.7	10	17.2	1,147	37.5
	그 외	1,080	30.3	1,064	30.3	16	27.6	899	29.4
전 체		3,570	100.0	3,512	100.0	58	100.0	3,061	100.0

신규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1.8명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원 수가 1명(55.2%)이 가장 많았고, 2명(25.9%), 3명(8.6%) 순으로 나타나 1인가구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원표본가구나 신규가구 모두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주택의 점유형태인데, 전체적으로 본인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신규가구의 경우 전세나 보증금 있는 월세로 거주하는 비중이 원표본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구성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노인단독가구에 비해 노인부부가구의 비중이 근소하게 높고, 그 외의 가구 형태가 많았으나, 신규가구의 경우 노인부부가구(17.2%)보다는 노인단독가구(55.2%)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가구가 발생하는 이유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가족의 이혼이나 건강상의 이유 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여 분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패널조사는 매 차수 동일한 가구와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표 Ⅱ-10〉에서도 이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1차년도부터 계속 응답한 가구는 총 3,061가구이며, 해당 가구의 가구주 특성을 분석한 결과 원표본가구의 특성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Ⅱ-11〉은 05표본 조사성공가구의 가구주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가구주는 여성(39.0%)보다는 남성(61.0%)의 비중이 높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55.5%)가 더 많았다. 원표본가구의 가구주는 전체 가구의 특성과 비슷했으나, 신규가구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63.8%)가 더 많았다. 조사성공가구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70.6세로 나타났으며, 가구주의 연령대는 70대(39.7%)가 가장 많았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신규가구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67.9세였으며, 가구주 연령대는 원표본가구 및 전체 분포와 동일하게 7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29.4%)이 가장 많았으며, 원표본가구 및 신규가구 역시 초등학교 졸업인 가구주가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가구주(95.1%)가 개인조사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1〉 05표본 조사성공가구 가구주 특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원표본가구		신규가구		1~7차 계속응답가구	
성별	남성	2,179	61.0	2,153	61.3	26	44.8	1,873	61.2
	여성	1,391	39.0	1,359	38.7	32	55.2	1,188	38.8
배우자 유무	있음	1,981	55.5	1,960	55.8	21	36.2	1,708	55.8
	없음	1,589	44.5	1,552	44.2	37	63.8	1,353	44.2
연령대	50세 미만	175	4.9	171	4.9	4	6.9	136	4.4
	50대	269	7.5	256	7.3	13	22.4	211	6.9
	60대	1,037	29.0	1,024	29.2	13	22.4	851	27.8
	70대	1,419	39.7	1,400	39.9	19	32.8	1,256	41.0
	80세 이상	670	18.8	661	18.8	9	15.5	607	19.8
	평균 연령	70.6세		70.7세		67.9세		71.1세	
최종 학력	무학	629	17.6	621	17.7	8	13.8	567	18.5
	초졸	1,049	29.4	1,029	29.3	20	34.5	923	30.2
	중졸	575	16.1	567	16.1	8	13.8	488	15.9
	고졸	920	25.8	906	25.8	14	24.1	753	24.6
	대학 재학 이상	396	11.1	388	11.0	8	13.8	329	10.7
	무응답	1	0.0	1	0.0	0	0.0	1	0.0
개인조사 대상여부	대상	3,396	95.1	3,342	95.2	54	93.1	2,926	95.6
	비대상	174	4.9	170	4.8	4	6.9	135	4.4
전 체		3,570	100.0	3,512	100.0	58	100.0	3,061	100.0

3) 05표본 조사성공 가구의 개인조사자 특성

KReIS의 개인조사대상자는, 조사대상가구의 만50세 이상인 가구원과 그의 배우자이다. 본 장에서는 기존가구의 개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가구의 개인은 원표본개인과 신규개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표본개인은 2005년 당시 구축했던 원표본가구의 개인조사대상자를 의미하며, 신규개인은 1차년도 조사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50세가 된 경우 혼인이나 합가 등으로 인해 50세 이상 가구원이 들어오는 경우를 의미한다. 7차년도 조사에서는 개인조사대상자 총 5,660명을 조사성공하였으며, 이 중 원개인은 5,113명, 신규개인은 547명이다.

〈표 Ⅱ-12〉는 7차년도 본조사(2017년)에 조사성공한 개인들의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남성(39.4%)보다는 여성(60.6%)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표본개인 역시 남성(37.8%)보다는 여성(62.2%)이 더 많았으나, 신규개인은 남성(53.6%)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조사된 개인의 평균연령은 70.6세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원표본개인은 60대와 70대의 비율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2005년 구축 당시 연령이 50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시간흐름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신규개인은 평균연령이 55.2세로, 신규개인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 자체가 50세에 진입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50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살펴보았는데, 원표본개인은 초등학교 졸업자(32.8%)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신규개인은 고등학교 졸업자(51.9%)가 가장 많았다. 조사완료된 개인과 가구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역시 가구주(본인)가 가장 많고, 가구주의 배우자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원표본개인은 부모의 비중이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데 비해 신규개인은 가구주의 자녀 등 그 외의 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개인 자체가 70대 이상의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녀가 50세 이상이 되어 신규개인조사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차년도부터 7차년도 조사까지 계속 응답한 개인은 총 4,405명이며, 개인의 특징은 원표본개인 특징과 유사하다.

〈표 Ⅱ-12〉 05표본 조사성공한 개인의 특성

(단위: 명, %)

구 분		전체		원표본개인		신규개인		1-7차 계속응답 개인	
성별	남성	2,228	39.4	1,935	37.8	293	53.6	1,671	37.9
	여성	3,432	60.6	3,178	62.2	254	46.4	2,734	62.1
연령대	50세 미만	66	1.2	4	0.1	62	11.3	4	0.1
	50대	604	10.7	207	4.0	397	72.6	159	3.6
	60대	1,877	33.2	1,806	35.3	71	13.0	1,503	34.1
	70대	2,140	37.8	2,131	41.7	9	1.6	1,878	42.6
	80대 이상	973	17.2	965	18.9	8	1.5	861	19.5
	평균 연령	70.6세		72.2세		55.2세		72.5세	
최종 학력	무학	979	17.3	962	18.8	17	3.1	841	19.1
	초졸	1,856	32.8	1,801	35.2	55	10.1	1,589	36.1
	중졸	1,048	18.5	973	19.0	75	13.7	832	18.9
	고졸	1,327	23.4	1,043	20.4	284	51.9	864	19.6
	대학 재학 이상	445	7.9	333	6.5	112	20.5	279	6.3
	무응답	5	0.1	1	0.0	4	0.7	0	0.0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본인)	3,383	59.8	3,104	60.7	279	51.0	2,698	61.2
	배우자	1,854	32.8	1,665	32.6	189	34.6	1,434	32.6
	(가구주,배우자의) 부모	342	6.0	335	6.6	7	1.3	267	6.1
	그 외	81	1.4	9	0.2	72	13.2	6	0.1
취업 여부	취업자	1,327	23.4	1,785	34.9	404	73.9	1,557	35.3
	비취업자	3,471	61.3	3,328	65.1	143	26.1	2,848	64.7
전 체		5,660	100.0	5,113	100.0	547	100.0	4,405	100.0

Ⅲ. 가계경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는 가계의 재정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항목을 측정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가계소득, 가계지출, 자산 및 부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중·고령 가구의 가계 경제 상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가계소득

KReIS는 가계소득을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의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응답받고 있다. 각 영역별 소득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소득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이(가구원 중 비경제활동인구와 무급가족종사자 제외) 근로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의 총액을 의미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 자영업자의 소득 등을 포함한다.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의 운용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등이 포함된다. 부동산소득은 토지, 주택, 건물 등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등을 말한다.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사회보장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제외)로 나누어 조사하는데, 가구원의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및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 수급액 총액을 응답하도록 한다. 사적이전소득은 가구원이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친척·친지로부터 일정주기마다 받은 지원금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보조금의 총액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은 개인연금, 개인연금저축, 퇴직보험, 퇴직연금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소득, 퇴직금, 공적연금 및 산재보험으로부터 받은 일체의 일시금, 민간보험

회사의 보험금,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돈이나 현물, 결혼 및 장례를 치르면서 받은 경조사금, 복권당첨금 등과 같이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일시적인 소득의 총액을 포함한다.

KReIS의 소득 측정은 3차년도를 기점으로 그 방식이 변경되었다. 2차년도까지 50세 이상의 개인조사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개인 및 부부단위로 측정하고 나머지 연령집단은 가구조사에서 기타가구원이라는 항목으로 측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가계소득의 각 항목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3차년도부터 이를 조정하여 가구조사에서는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측정하고 50세 이상 개인조사대상자의 개인소득은 여전히 개인조사에서 측정하고 있다. 각 영역별 소득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표 Ⅲ-1〉과 같다.

〈표 Ⅲ-1〉 가계소득의 측정내용

조사항목		측정내용
근로소득		근로(일)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등)
금융소득		금융자산의 운용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등)
부동산소득		집세, 토지/건물 임대료 등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서 받은 연금형태의 수급액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대상 가구에서 수급 받고 있는 현금급여 금액
	사회보장급여	국가에서 지급해 준 일체의 정기성 현금지원금. 산재 및 고용보험에서 받은 돈, 기초연금, 보훈연금, 장애인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특별현금 급여 등

주 : 7차년도 KReIS 가구소득 조사 기준

〈표 Ⅲ-1〉 가계소득의 측정내용(계속)

조사항목	측정내용
사적이전소득	용돈, 생활비, 교육비 목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가족(부모, 형제자매, (손)자녀), 친척/친지 또는 사회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이혼한 배우자가 매달 주는 별거수당 등
기타소득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소득, 퇴직금, 공적연금/산재보험으로부터 받은 일체의 일시금, 민간보험회사의 보험금,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돈이나 현물, 결혼 및 장례를 치르면서 받은 경조사금, 복권당첨금, 주식의 매매차익, 부동산의 매매차익 등의 일시적 소득

주 : 7차년도 KReIS 가구소득 조사 기준

가계소득은 조사시점 기준 작년 한 해 동안(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얻은 소득으로 세전 소득을 의미하며[10], 연간 총액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표 Ⅲ-2〉는 이와 같이 측정된 중·고령자 가구의 연간 가계소득을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과 거주지역, 가구구성 형태별로 보여준다. 전체 중·고령자 가구의 가계소득 평균은 37,941천원이며, 가구주 성별에 따라 남성일 경우 45,299천원으로 여성일 때의 22,809천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50대가 51,744천원으로 60대 38,453천원, 70대 22,265천원, 80세 이상 13,044천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11] 또한 가구주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가계소득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0) 가계소득은 가계의 경상소득(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기타소득)의 합이며, 소득세 등과 공적이전소득이 분리되지 않은 총소득 개념임.

11) 가구주 60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득의 경우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총소득은 2,442(천원), 경상소득은 2,189(천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각각 2,934천원), 2,805(천원)으로 나타남. 양 조사 간 조사결과의 차이는 가구주 의미, 가구주 평균 연령, 조사기간 등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가계동향조사의 경우 분기별 월소득 측정 후 연간화하여 제공하나, 노후보장패널의 경우 조사직전 한해 동안의 소득을 이용하여 월평균 값을 구함).

가구주가 대학 재학 이상인 경우의 가계소득은 62,798천원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 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에 살고 있는 가구의 가계소득이 47,343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광역시 37,483천원, 도 지역의 경우 35,008천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구구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노인단독 가구 14,946천원에 비해 노인부부 가구의 연 평균 소득이 32,624천원으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Ⅲ-2〉 가구주 특성별 가계소득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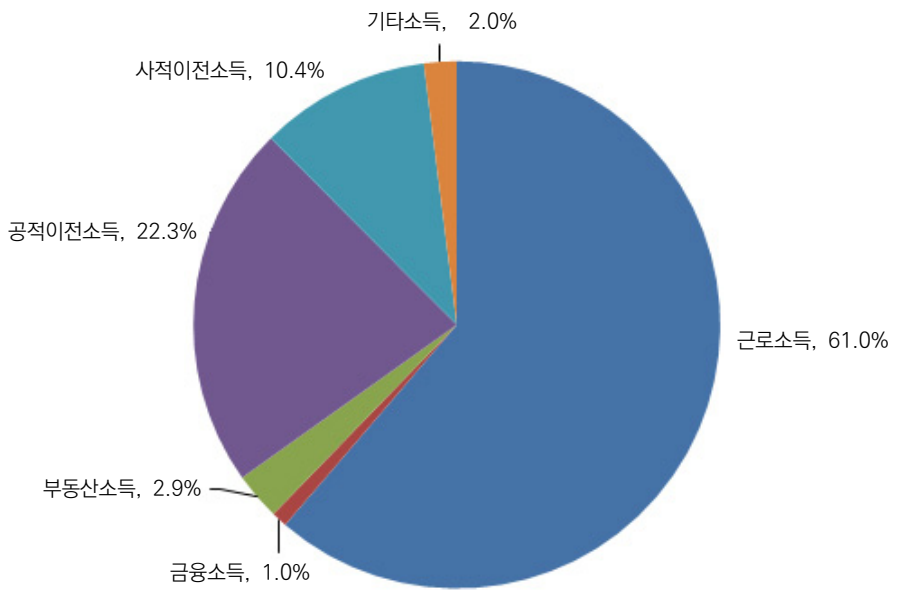
구분		가계소득
가구주 성별	남	45,299
	여	22,809
가구주 연령	50세 미만	45,948
	50대	51,744
	60대	38,453
	70대	22,265
	80세 이상	13,044
가구주 학력	무학	12,347
	초졸	24,563
	중졸	30,646
	고졸	43,012
	대학 재학 이상	62,798
거주지역	서울	47,343
	광역시	37,483
	도	35,008
가구구성	노인단독	14,946
	노인부부	32,624
	그 외	53,782
전 체		37,941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3) 가계소득의 변동계수(CV) 산출결과 5% 미만으로 나타남

[그림 Ⅲ-1]은 가계소득의 세부 항목별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중·고령자 가구의 연 평균 근로소득은 27,886천원으로 전체 가계소득에서 약 6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소득(325천원)이 1.0%, 부동산소득(1,304천원)이 2.9%, 공적이전소득(4,075천원)이 22.3%, 사적이전소득(1,529천원)이 10.4%, 기타소득(2,677천원)이 2.0%로 나타났다.

[그림 Ⅲ-1] 소득 세부항목이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표 Ⅲ-3〉은 소득 세부항목이 총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구주의 인적 특성과 가구의 거주지역, 구성형태 별로 살펴본 것이다. 먼저 가구주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가구주가 남성일 경우 전체 가계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0.9%로 가주구가 여성일 경우의 근로소득 비중인 40.7%에 비해 약 30.2%p 높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에는 남성인 경우에 비해 가계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의 비중은 성별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주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계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소득은 50대부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그 비중이 증가하다가, 80세 이상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구주의 최종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가계소득 중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비중의 경우 학력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근로소득 비중은 무학부터 고졸까지 학력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학 재학 이상의 근로소득 비중(73.9%)은 고졸의 근로소득 비중(74.2%)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금융소득과 부동산 소득의 비중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Ⅲ-3〉 소득 세부항목이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천원, %)

구분		세부항목	천원	비중
가구주 성별	남	근로소득	35,298	70.9
		금융소득	433	1.0
		부동산소득	1,533	2.9
		공적이전소득	4,207	17.1
		사적이전소득	1,212	6.0
		기타소득	2,599	1.9
	여	근로소득	12,644	40.7
		금융소득	101	0.9
		부동산소득	831	2.8
		공적이전소득	3,802	32.8
		사적이전소득	2,180	19.4
		기타소득	2,837	2.1

주 : 통합가중치 적용

〈표 Ⅲ-3〉 소득 세부항목이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계속)

(단위: 천원, %)

구분		세부항목	천원	비중
가구주 연령	50세 미만	근로소득	37,945	83.7
		금융소득	131	0.3
		부동산소득	1,130	1.5
		공적이전소득	3,050	8.6
		사적이전소득	1,466	4.6
		기타소득	2,225	1.3
	50대	근로소득	46,120	88.2
		금융소득	400	0.6
		부동산소득	896	1.4
		공적이전소득	1,324	4.8
		사적이전소득	688	2.6
		기타소득	2,206	2.1
	60대	근로소득	25,938	61.1
		금융소득	357	1.5
		부동산소득	1,420	3.1
		공적이전소득	5,628	23.5
		사적이전소득	1,456	8.1
		기타소득	3,405	1.9
	70대	근로소득	8,090	29.1
		금융소득	283	1.0
		부동산소득	2,004	5.0
		공적이전소득	6,034	41.1
		사적이전소득	2,494	21.1
		기타소득	3,223	2.3
	80세 이상	근로소득	3,325	13.8
		금융소득	119	0.9
		부동산소득	755	3.7
		공적이전소득	5,350	51.7
		사적이전소득	2,862	28.6
		기타소득	603	1.3

주 : 통합가중치 적용

〈표 Ⅲ-3〉 소득 세부항목이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계속)

(단위: 천원, %)

구분		세부항목	천원	비중
가구주 학력	무학	근로소득	5,295	23.1
		금융소득	54	0.5
		부동산소득	299	1.9
		공적이전소득	3,815	45.8
		사적이전소득	2,281	26.5
		기타소득	380	1.6
	초졸	근로소득	13,762	44.7
		금융소득	115	0.8
		부동산소득	643	2.5
		공적이전소득	4,137	32.4
		사적이전소득	2,031	16.9
		기타소득	3,634	2.0
	중졸	근로소득	21,111	58.6
		금융소득	399	0.9
		부동산소득	1,780	3.9
		공적이전소득	4,043	23.6
		사적이전소득	1,575	10.7
		기타소득	1,493	1.5
	고졸	근로소득	34,672	74.2
		금융소득	296	0.9
		부동산소득	1,040	2.1
		공적이전소득	3,637	14.5
		사적이전소득	1,242	5.9
		기타소득	2,031	2.0
	대학 재학 이상	근로소득	47,589	73.9
		금융소득	715	1.5
		부동산소득	2,805	4.7
		공적이전소득	5,170	13.5
		사적이전소득	1,122	3.7
		기타소득	5,381	2.6

〈표 Ⅲ-3〉 소득 세부항목이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계속)

(단위: 천원, %)

구분		세부항목	천원	비중
거주지역	서울	근로소득	32,865	63.5
		금융소득	400	1.2
		부동산소득	2,604	6.1
		공적이전소득	4,069	18.7
		사적이전소득	1,656	7.7
		기타소득	5,730	2.8
	광역시	근로소득	28,971	61.4
		금융소득	335	0.6
		부동산소득	936	2.1
		공적이전소득	4,285	23.4
		사적이전소득	1,574	10.7
		기타소득	1,250	1.4
	도	근로소득	25,696	60.0
		금융소득	294	1.0
		부동산소득	1,044	2.2
		공적이전소득	3,976	22.9
		사적이전소득	1,464	11.2
		기타소득	2,338	2.0

주 : 통합가중치 적용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의 경우,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소득의 비중이 높고,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이외의 소득 항목에서는 광역시와 도 지역 거주 가구 간 괄목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Ⅲ-3〉 소득 세부항목이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계속)

(단위: 천원, %)

구분		세부항목	천원	비중
가구구성	노인단독	근로소득	5,050	30.4
		금융소득	181	2.0
		부동산소득	602	3.8
		공적이전소득	2,934	37.3
		사적이전소득	1,740	23.8
		기타소득	634	2.7
	노인부부	근로소득	17,685	51.2
		금융소득	481	1.8
		부동산소득	2,275	5.3
		공적이전소득	5,816	28.0
		사적이전소득	1,630	11.0
		기타소득	1,893	2.7
	그 외	근로소득	42,087	83.6
		금융소득	548	0.8
		부동산소득	1,145	2.1
		공적이전소득	2,476	8.7
		사적이전소득	963	3.2
		기타소득	1,520	1.7
전 체		근로소득	27,886	61.0
		금융소득	325	1.0
		부동산소득	1,304	2.9
		공적이전소득	4,075	22.3
		사적이전소득	1,529	10.4
		기타소득	2,677	2.0

주 : 통합가중치 적용

마지막으로 가구구성 형태 별로 살펴본 결과, 노인단독 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37.3%로 가장 높고, 근로소득이 30.4%, 사적이전소득이 23.8%로 나타난 반면, 노인부부 가구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51.2%로 가장

높았고,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은 각각 28.0%, 11.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Ⅲ-4〉 가구균등화지수를 사용한 가구주 특성별 가계소득

(단위: 천원)

구분		가계소득
가구주 성별	남	26,447
	여	17,106
가구주 연령	50세 미만	24,132
	50대	29,530
	60대	25,329
	70대	15,496
	80세 이상	10,249
가구주 학력	무학	9,710
	초졸	17,675
	중졸	19,834
	고졸	25,584
	대학 재학 이상	35,830
거주지역	서울	29,651
	광역시	22,588
	도	21,678
가구구성	노인단독	14,371
	노인부부	22,459
	그 외	28,913
전 체		23,391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 Ⅲ-4〉에서는 가구의 규모를 고려하여 가계소득을 비교하기 위해 가구명목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이다. 가구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가구주가 남성일 때 균등화된 가계소득은

26,447천원으로 가구주가 여성일 때의 17,106천원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났지만 가구원 수를 고려하지 않은 〈표 Ⅲ-2〉에 비해 차이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주 연령, 학력, 거주지역, 가구구성 별 차이 역시 균등화하기 이전과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의 집단별 차이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가계지출

가계의 생산활동이 경제적 복지를 향유하기 위한 자원인 소득을 획득하는 행동이라면, 가계의 소비행동은 획득한 소득을 이용하여 가계가 추구하는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궁극적 목표인 경제적 복지를 실현해가는 행동이다. 따라서 소비는 가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계가 소유한 자원으로 재화와 용역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것이며, 가계의 복지는 소비의 결과를 통해 나타난다.

KReIS는 이와 같은 가계의 소비지출을 통계청 자료 및 국외 데이터와 비교하기 위해 소비지출의 분류체계 COICOP[12] 기준에 따라 작년 한 해 동안(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소비한 생활비를 측정하였다. 생활비는 식비, 담배 및 주류, 주거비, 광열수도비, 피복비, 교통·통신비, 문화생활비, 숙박비, 보건의료비, 가구집기 및 가사서비스 구입비, 교육비, 보육비, 혼인 지출,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지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2) 목적별 개인소비 분류(COICOP,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According to Purpose) : 유엔 통계위원회에서 작성된 국민계정체계 및 ILO 등에서 권고하는 소비지출 분류체계

〈표 Ⅲ-5〉 소비지출의 측정내용

조사항목		측정내용
식비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구 내부에서 소비하는 식품구입비, 주식비, 부식비, 비주류음료 구입비(커피 및 차) 등
	음식비	가구 외부에서 소비하는 음식비(식당, 주점,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직장 및 학교 단체급식비, 외부숙박시설에서 소비한 식사 목적의 음식비, 집에서 주문한 음식에 지출한 비용 등)
담배및주류	주류비	알콜성 음료(소주, 과일주, 맥주, 탁주, 증류주, 기타주류) 구입비 등
	담배비	담배 구입비
주거비		월세, 주택 보수·수리 및 관리비, 아파트 관리비 등
광열수도비		냉난방비, 수도, 전기료 등
피복비		의복·신발 구입·수선비 등
교통통신비	교통비	공공교통비, 렌트비, 차량유지를 위해 지출한 연료비·수리비, 부품구입비, 엔진오일교환비, 자동차 구입비(월 할부금 포함) 등
	통신비	핸드폰·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통신장비 구입비 등
문화생활비		TV수신료, 유선케이블 방송 수신료, 위성방송 수신료, 극장/영화관 입장료, 스포츠장비구입비, 스포츠시설 이용료, 컴퓨터구입비, 교양/오락비, 교양/오락을 목적으로 한 강습비 등
숙박비		관광 및 여행으로 인한 외부 숙박시설 이용료, 호텔, 여관, 콘도, 기타숙박시설 등 이용료

〈표 Ⅲ-5〉 소비지출의 측정내용 (계속)

조사항목		측정내용
보건의료비	양약 및 한약	병·의원 및 한의원/한약방의 진단을 통해 구입한 약품이나 한약 등의 본인부담금
	건강보조식품	치료의 목적이 아닌 건강유지 및 강화를 위해 구입한 식품비 (영양보조제, 인삼, 홍삼, 자양강장제 등)
	의료 서비스	병·의원 및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 지불한 수술/입원비,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보건의료 용품 및 기구	반창고, 붕대 등의 보건의료용 소모품, 안경/콘택트 렌즈, 보청기, 체온계, 혈압계 등의 구입비 및 임대비
가구집기·가사서비스비	가구집기 구입비	가구(장롱, 책상, 응접세트 등), 주방용품(식기 등), 가정용 기기(냉장고, 전자레인지, 정수기, 에어컨, 날로, 세탁시 등) 등의 구입비(월 할부금 포함)
	가사 서비스비	가사서비스에 관련된 지출비, 가정부 및 요리사 이용비, 일반가구 또는 가정용 기기(에어컨, 정수기 등)의 임대·설치·수리·청소비, 정수기필터 교체 및 청소 비용 등
교육비	공교육비	취학한 가구원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 공교육기관에 납부하는 제경비 및 납입금, 초·중·고·대학교·대학원 등록금 등
	사교육비	개인교습비, 학원수강료, 평생교육기관에서 수강하는 교육서비스비 이용료 등
보육비		미취학 가구원의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관련 지출비용, 보육 외 별도의 관련 비용(시댁이나 친척에 보육, 베이비시터 이용, 보육시설에서의 부가비용(현장실습비, 소풍비, 선물비용 등))
기타상품 및 서비스 지출		귀금속 구입비, 가구원 잡비, 목욕료, 화장품 구입비, 장례비용, 공공기관 관련 수수료, 부동산 수수료, 응시료, 주택화재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등

가계의 총 지출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의 합으로 산출되며, 비소비지출의 세부 항목은 아래 〈표 Ⅲ-6〉과 같다.

〈표 Ⅲ-6〉 비소비지출의 측정내용

조사항목		측정내용
대출금 이자상환		가계를 위해 차입한 비사업목적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액(대출 원금 상환은 제외)
생활보조금	해외유학 (손)자녀 교육비	해외에서 유학 중인 (손)자녀에게 송금한 교육비 및 생활보조금
	가구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보조	가구원이 아닌 사람(비동거 부모님, 분가한 기혼자녀 등)에게 송금한 금액
	타지역 거주 가구원에 대한 보조	학업 등의 이유로 국내 타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원에게 송금한 생활비(하숙비, 자취비, 의료비 포함, 교육비 제외)
세금		비사업용 모든 세금을 포함(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부담금, 벌과금		과태료, 자동차 관련 법칙금 등 규약을 위반해서 지불한 금액, 적십자회비 등
기타 비소비지출		가구원 생활보조금, 경조사 부조금, 기부금, 교제비, 모임회비 등 통상적인 제 생활유지비, 사회/종교단체 지원금, 결혼비용 등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의 합으로 측정된 가계지출을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과 거주지역, 가구구성 별로 살펴보면 〈표 Ⅲ-7〉과 같다. 남성이 가구주일 경우 가계지출은 33,257천원으로 여성이 가구주일 경우 16,938천원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과 최종학력에 따른

〈표 Ⅲ-7〉 가구주 특성별 가계지출

(단위: 천원)

구분		가계지출
가구주 성별	남	33,257
	여	16,938
가구주 연령	50세 미만	34,696
	50대	39,209
	60대	26,576
	70대	15,997
	80세 이상	12,115
가구주 학력	무학	10,019
	초졸	17,572
	중졸	22,503
	고졸	32,474
	대학 재학 이상	44,687
거주지역	서울	34,838
	광역시	26,152
	도	26,469
가구구성	노인단독	11,820
	노인부부	24,087
	그 외	39,093
전 체		27,928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3) 가계지출의 변동계수(CV) 산출결과 5% 미만으로 나타남

차이를 보면 가계소득의 경우와 같이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력이 낮아질수록 가계지출 역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거주지별 가계지출의 경우 서울이 34,838천원, 광역시가 26,152천원, 도가 26,469천원으로 나타났다. 가구구성별 가계지출은 노인단독 가구가 11,820천원으로 노인부부 가구의 24,087천원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표 Ⅲ-8〉은 중·고령자 가구의 총 가계지출에서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봤을 때, 소비지출은 총 가계지출의 8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가구주인 경우 84.8%로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의 90.1%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과 최종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최종학력이 낮아질수록 소비지출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이 84.1%, 광역시는 87.1%, 도는 87.0%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가구구성별로 보면, 노인단독 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은 91.7%인데 반해 노인부부 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은 86.1%로 나타났다.

〈표 Ⅲ-8〉 지출 세부항목이 전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천원, %)

구분		세부항목	가계지출	비중
가구주 성별	남	소비지출	27,259	84.8
		비소비지출	5,960	15.2
	여	소비지출	14,505	90.1
		비소비지출	2,526	9.9
가구주 연령	50세 미만	소비지출	29,404	85.9
		비소비지출	5,372	14.1
	50대	소비지출	31,549	82.5
		비소비지출	7,372	17.5
	60대	소비지출	22,262	86.1
		비소비지출	4,568	13.9
	70대	소비지출	13,688	90.9
		비소비지출	2,309	9.1
	80세 이상	소비지출	10,738	93.6
		비소비지출	1,425	6.4

〈표 Ⅲ-8〉 지출 세부항목이 전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계속)

(단위: 천원, %)

구분		세부항목	가계지출	비중
가구주 학력	무학	소비지출	9,374	94.1
		비소비지출	824	5.9
	초졸	소비지출	14,735	89.9
		비소비지출	2,806	10.1
	중졸	소비지출	19,491	87.7
		비소비지출	3,387	12.3
	고졸	소비지출	26,735	84.7
		비소비지출	5,535	15.3
	대학 재학 이상	소비지출	35,373	81.1
		비소비지출	9,122	18.9
거주지역	서울	소비지출	28,598	84.1
		비소비지출	6,063	15.9
	광역시	소비지출	21,754	87.1
		비소비지출	4,306	12.9
	도	소비지출	21,885	87.0
		비소비지출	4,680	13.0
가구구성	노인단독	소비지출	10,267	91.7
		비소비지출	1,618	8.3
	노인부부	소비지출	19,735	86.1
		비소비지출	4,429	13.9
	그 외	소비지출	31,978	83.8
		비소비지출	6,814	16.2
전 체	소비지출		23,104	86.5
	비소비지출		4,841	13.5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3) 가구 소비지출 및 비소비지출의 변동계수(CV) 산출결과 5%미만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가구의 규모를 반영한 소비지출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명목 소비액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보았다. 〈표 Ⅲ-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주가 남성일 때 균등화된 가계지출은 19,448천원으로 가구주가 여성일 때의 12,757천원에 비해 여전히 크게 나타났으나 균등화하지 않았을 때보다 차이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구주 연령, 최종학력, 거주지역, 가구구성 별로 나누어 살펴본 경우 균등화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집단 간 차이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표 Ⅲ-9〉 가구균등화지수를 사용한 가구주 특성별 가계지출

(단위: 천원)

구분		가계지출
가구주 성별	남	19,448
	여	12,757
가구주 연령	50세 미만	18,151
	50대	22,507
	60대	17,191
	70대	11,699
	80세 이상	9,430
가구주 학력	무학	8,141
	초졸	12,237
	중졸	14,684
	고졸	19,506
	대학 재학 이상	25,487
거주지역	서울	21,210
	광역시	16,028
	도	16,536
가구구성	노인단독	11,390
	노인부부	16,638
	그 외	20,870
전 체		17,263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3. 자산 및 부채

자산은 소득과 달리 저량의 개념이므로 일정 시점에서 측정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산 운용소득이라는 또 다른 소득을 창출하는 원천이며, 재화를 얻기 위해 화폐로 전환될 수도 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자산 운용소득은 근로소득보다 훨씬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KReIS에서는 기존에 부부단위로 측정하였던 자산과 부채를 3차년도 조사부터 가구단위로 측정하도록 설계하였다. 자산은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으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조사시점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세부 측정내용은 〈표 Ⅲ-10〉과 같다. 먼저 부동산자산은 소유주택, 소유사업체, 기타 소유 부동산, 임차주택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 등을 포함한다. 금융자산은 금융기관 예·적금 잔고, 개인연금 총 불입액(보험, 신탁), 저축성 보험 총 불입액, 투자한 주식의 평가총액, 회사채/국공채 등 유가증권의 시가총액 등을 포함한다. 기타자산에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승용차, 트럭, 선박, 버스, 항공기, 농기계, 콘도 및 골프 등의 회원권, 금속(예물),

〈표 Ⅲ-10〉 자산 및 부채 측정내용

조사항목	측정내용
부동산자산	소유주택, 소유 사업체, 기타 소유 부동산 임차주택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 등
금융자산	금융기관 예·적금 잔고, 개인연금 총 불입액(보험, 신탁), 저축성 보험 총 불입액, 투자한 주식의 평가총액, 회사채/국공채 등 유가증권의 시가총액 등
기타자산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승용차, 트럭, 선박, 버스, 항공기, 농기계, 콘도 및 골프 등의 회원권, 금속(예물), 그림 등 소장 예술품 등
부채	금융기관이나 회사에서 빌린 돈의 잔액, 역모기지론으로 인한 부채액, 사채나 친인척으로부터 빌린 돈,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생활비 목적 이외에 사용한 신용카드 할부금/현금서비스액 등

주 : 조사시점 기준으로 응답받음

그림 등 소장 예술품 등이 포함되며, 부채 항목으로는 금융기관이나 회사에서 빌린 돈의 잔액, 역모기지론으로 인한 부채액, 사채나 친인척으로부터 빌린 돈,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생활비 목적 이외에 사용한 신용카드 할부금/현금서비스액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측정된 가구의 자산 및 부채를 〈표 Ⅲ-11〉에서 살펴보면, 중·고령 가구의 총자산 평균액은 249,175천원으로 나타났고, 부채는 32,512천원,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순자산은 216,314천원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성별에 따른 순자산 차이를 보면, 가구주가 남성일 때, 257,388천원으로 여성일 때 130,823천원에 비해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별로 살펴보면, 가구주 연령이 50대일 때 순자산이 249,132천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순자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가구주의 최종학력이 증가할수록 순자산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365,770천원)이 광역시(165,441천원), 도(189,503천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가구구성별로는 노인부부 가구가 273,760천원으로 노인단독 가구의 109,629천원에 비해 약 2.5배 높게 나타났다.

〈표 Ⅲ-11〉 자산 및 부채, 순자산 보유액

(단위: 천원)

구분		총자산 (A)	부채 (B)	순자산 (C=A-B)
가구주 성별	남	298,198	40,702	257,388
	여	147,232	15,523	130,823
가구주 연령	50세 미만	220,806	34,129	186,465
	50대	293,610	44,658	249,132
	60대	274,704	33,723	239,904
	70대	196,636	20,540	176,091
	80세 이상	115,958	5,644	110,077
가구주 학력	무학	69,540	3,732	65,619
	초졸	149,976	17,463	132,140
	중졸	191,814	24,192	166,541
	고졸	243,061	34,079	209,120
	대학 재학 이상	521,267	69,376	453,210
거주지역	서울	431,184	65,069	365,770
	광역시	184,294	18,871	165,441
	도	217,892	27,857	189,503
가구구성	노인단독	115,988	6,020	109,629
	노인부부	309,009	34,358	273,760
	그 외	284,546	45,439	239,038
전 체		249,175	32,512	216,314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Ⅳ. 경제활동상태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중·고령자들의 경제활동상태를 취업자, 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여 보고, 성별, 연령, 학력의 차이에 따른 고용률을 비교한다. 다음으로는 각 집단별 해당하는 조사 내용을 분석하는데, 먼저 중·고령 취업자를 대상으로 종사산업 및 직업 현황을 살펴보고, 취업자를 다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하여 종사상 지위, 근무시간 형태, 월 평균 급여 등을 비교한다. 이어 중·고령 근로자의 이직활동과 은퇴계획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비취업자의 구직활동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비경제활동인구의 은퇴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활동상태

KReIS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근로한 사람을 취업자로 정의하였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가구원의 일을 도운 경우에도 무급가족종사자로 정의하여 취업자에 포함하였다. 또한 최근 1개월 동안 생업을 위해 일자리(사업구상 포함)를 찾고 있었고, 지난 일주일 동안 직장을 구했다면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을 구직자로 정의하였다. 취업자와 구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며, 지난 일주일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일자리를 찾지 않았으며, 일자리를 구했더라도 일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표 Ⅳ-1〉은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를 보여준다. 전체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보았을 때 취업자가 54.3%, 구직자가 0.9%, 비경제활동인구가 4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취업자의 비중이 71.9%로 여성의 41.9%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비경활인구의 경우에는 여성이 57.2%로 남성의 27.2%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구직자의 비중은 0.9%로 남성과 여성이 같게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취업자 비중의 경우 50대가 7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상승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 비중 역시 이와 같은 양상을 보였으며, 비경활자의 비중은 연령이 상승할수록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며 80세 이상이 8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Ⅳ-1〉 경제활동상태

(단위: %)

구분		성 별		연령대					전 체
		남	여	50세 미만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취업자		71.9	41.9	58.6	73.9	53.2	30.6	13.6	54.3
비취업자	구직자	0.9	0.9	2.3	1.1	1.0	0.4	0.1	0.9
	비경활자	27.2	57.2	39.1	25.1	45.9	69.0	86.4	44.8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통합가중치 적용

〈표 Ⅳ-2〉는 성별, 연령, 최종 학력에 따른 취업자 분포를 보여준다. 전체 중·고령자 중 취업자 비중은 54.3%로 나타났으며, 여성(41.9%)에 비해 남성(71.9%)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최종 학력이 높아질수록 취업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 성별, 연령대, 최종 학력별 취업자 분포

(단위: %)

구분		고용률
성별	남	71.9
	여	41.9
연령대	50세 미만	58.6
	50대	73.9
	60대	53.2
	70대	30.6
	80세 이상	13.6
최종학력별	무학	25.2
	초졸	45.5
	중졸	52.3
	고졸	62.6
	대학 재학 이상	65.6
전 체		54.3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2. 취업자

〈표 Ⅳ-3〉은 취업자의 종사산업 분포를 보여준다. 농업, 임업 및 어업의 비중이 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조업(12.8%), 도매 및 소매업(10.2%), 건설업(7.6%), 숙박 및 음식점업(7.0%) 등이 뒤를 이었다.

〈표 Ⅳ-4〉는 취업자의 직업 분포이다. 농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의 비중이 2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 18.2%,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0.8%, 서비스 종사자 10.6%, 판매 종사자가 1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 종사산업 현황

(단위: %)

구분	비율
농업, 임업 및 어업	22.2
광업	0.01
제조업	12.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3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0.3
건설업	7.6
도매 및 소매업	10.2
운수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7.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7
금융 및 보험업	2.0
부동산업 및 임대업	3.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4.1
교육서비스업	3.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5.1
따로 분류되지 않은 자가생산 활동	0.9
국제 및 외국기관	0.1
전 체	100.0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취업자 중 광업 종사자의 비율은 0.02%임

〈표 Ⅳ-4〉 직업 현황

(단위: %)

구분	비율
관리자	5.5
전문가	7.6
사무종사자	6.4
서비스 종사자	10.6
판매 종사자	10.3
농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21.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6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0.8
단순 노무 종사자	18.2
전 체	100.0

주 : 통합가중치 적용

한편 취업자는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임금근로자란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임금이나 보수 등 어떤 형태로든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하며, 비임금근로자는 개인기업의 경영주와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정규적인 보수 없이 일하고 있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다.

〈표 Ⅳ-5〉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을 보여준다. 전체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보면 임금근로자가 50.2%, 비임금근로자가 49.8%로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근소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임금근로자가 50.9%, 비임금근로자가 49.1%로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은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50.8%로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학력이 증가할수록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표 Ⅳ-5〉 취업자의 고용형태

(단위: %)

구분		고용형태		총합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성별	남	50.9	49.1	100.0
	여	49.2	50.8	100.0
연령대	50세 미만	62.2	37.8	100.0
	50대	57.3	42.7	100.0
	60대	44.4	55.6	100.0
	70대	34.3	65.7	100.0
	80세 이상	15.8	84.2	100.0
최종 학력	무학	26.6	73.4	100.0
	초졸	36.2	63.8	100.0
	중졸	45.7	54.3	100.0
	고졸	54.5	45.5	100.0
	대학 재학 이상	62.8	37.2	100.0
전 체		50.2	49.8	100.0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가. 임금근로자

KReIS에서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의 세 가지로 구분하며, 상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또는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임시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경우이며, 일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표 Ⅳ-6〉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비교

(단위: %)

구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총합
성별	남	57.0	25.0	17.9	100.0
	여	34.2	50.1	15.7	100.0
연령대	50세 미만	60.0	33.3	6.7	100.0
	50대	58.8	28.4	12.8	100.0
	60대	29.8	47.1	23.1	100.0
	70대	11.2	57.8	30.9	100.0
	80세 이상	2.6	60.3	37.1	100.0
최종 학력	무학	3.7	54.2	42.1	100.0
	초졸	15.7	47.4	36.8	100.0
	중졸	22.6	51.4	26.0	100.0
	고졸	54.1	32.3	13.6	100.0
	대학 재학 이상	69.0	26.6	4.4	100.0
전 체		46.8	36.2	16.9	100.0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 Ⅳ-6〉에서 2017년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의 비중은 각각 46.8%, 36.2%, 16.9%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상용직이 57.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임시직의 비중이 5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의 상용직 비중이 58.8%로 가장 높았고, 60대에 이르면 29.8%로 상용직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후 70대에는 11.2%, 80대에는 2.6%로 감소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용직에서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종사상 지위가 변경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학력별 상용직의 비중을 살펴보면, 무학이 3.7%, 초졸이 15.7%, 중졸이 22.6%, 고졸이 54.1%, 대학 재학 이상이 69.0%로 학력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 임금근로자의 근무시간 형태

(단위: %)

구분		근무시간형태		총합
		시간제	전일제	
성별	남	6.5	93.5	100.0
	여	23.9	76.1	100.0
연령대	50세 미만	17.1	82.9	100.0
	50대	9.5	90.5	100.0
	60대	15.6	84.4	100.0
	70대	42.0	58.0	100.0
	80세 이상	68.3	31.7	100.0
최종 학력	무학	47.9	52.1	100.0
	초졸	25.6	74.4	100.0
	중졸	13.6	86.4	100.0
	고졸	11.4	88.6	100.0
	대학 재학 이상	11.0	89.0	100.0
전 체		14.3	85.7	100.0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 Ⅳ-7〉은 임금근로자의 근무시간 형태 분포를 보여준다. KReIS는 임금근로자의 일자리를 근무시간 형태에 따라 시간제와 전일제로 구분하고, 시간제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 동안(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 또는 임금이 시간단위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시간근로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를 전일제로 정의한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전일제 근무자의 비중은 85.7%로 시간제 근무 비중인 14.3%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전일제 비중과 시간제 비중의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났는데, 전일제의 비중이 9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여성은 전일제의 비중이 76.1%를 차지하였

으며 남성에 비해 시간제 근무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50대의 경우 전일제 근무 비중이 90.5%로 가장 높았고,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일제의 비중은 감소하고 시간제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 구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대졸이상자의 전일제 근무 비중이 89.0%로 가장 높았으며 학력이 감소할수록 시간제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 임금근로자의 정규직 여부

(단위: %)

구분		정규직 여부		총합
		정규직	비정규직	
성별	남	56.9	43.1	100.0
	여	33.9	66.1	100.0
연령대	50세 미만	52.1	47.9	100.0
	50대	57.7	42.3	100.0
	60대	32.5	67.5	100.0
	70대	12.0	88.0	100.0
	80세 이상	2.6	97.4	100.0
최종 학력	무학	9.3	90.7	100.0
	초졸	16.8	83.2	100.0
	중졸	26.8	73.2	100.0
	고졸	50.5	49.5	100.0
	대학 재학 이상	71.9	28.1	100.0
전 체		46.7	53.3	100.0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 Ⅳ-8〉은 임금근로자의 정규직 여부를 보여준다. 정규직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응답자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의 비중은 46.7%, 비정규직은 53.3%로 나타났으며, 남성과 여성의 정규직 비중은 각각 56.9%, 33.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의 경우 정규직 비중이 57.7%였으며, 60대는 32.5%로 50대에서 60대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정규직의 비중은 대학 재학 이상에서 7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낮아질수록 정규직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9〉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

(단위: %)

구분		100만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이상	총합
성별	남	7.3	29.1	27.0	36.6	100.0
	여	33.5	53.5	7.9	5.1	100.0
연령대	50세 미만	16.6	61.0	18.5	3.9	100.0
	50대	10.2	37.1	21.1	31.6	100.0
	60대	24.3	46.4	17.5	11.8	100.0
	70대	65.3	31.0	2.2	1.5	100.0
	80세 이상	100.0	0.0	0.0	0.0	100.0
최종 학력	무학	74.5	25.5	0.0	0.0	100.0
	초졸	40.2	46.1	12.0	1.7	100.0
	중졸	25.3	57.7	12.7	4.3	100.0
	고졸	13.8	41.3	22.4	22.5	100.0
	대학 재학 이상	8.4	24.0	19.4	48.2	100.0
전 체		19.0	40.0	18.5	22.6	100.0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 Ⅳ-9〉는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는 월 평균 300만원 이상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36.6%, 여성의 경우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53.5%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 차이를 보면, 50대에서는 300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 임금근로자 비중이 31.6%로 가장 높았으며, 60대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46.4%), 70대(65.3%)와 80대(100.0%)는 1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무학력자는 1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74.5%, 초졸과 중졸과, 고졸의 경우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각 46.1%, 57.7%, 41.3%). 대학 재학 이상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임금근로자 비중이 48.2%로 가장 높았다.

나. 비임금근로자

KReIS는 비임금근로자를 사업체 운영방식에 따라 종업원 있는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경영하는 자영업자,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표 Ⅳ-10〉는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운영 형태별로 구분하여 본 것이다. 전체 비임금근로자 중 유급종업원 없는 자영업자가 4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종업원 있는 고용주의 비중이 9.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성의 경우 유급종업원 없는 자영업자가 46.2%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경영하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37.3%로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우는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가 49.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유급종업원 없는 자영업자가 40.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유급종업원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종업원 있는 고용주의 비율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차이를 보면, 초졸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에서는 유급종업원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초졸의 경우에는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0〉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운영방식

(단위: %)

구분		종업원 있는 고용주	무급가족 종사자와 함께 경영하는 자영업자	유급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총합
성별	남	12.8	37.3	46.2	3.6	100.0
	여	4.9	5.0	40.7	49.4	100.0
연령대	50세 미만	0.0	0.0	28.2	71.8	100.0
	50대	14.0	17.7	47.2	21.1	100.0
	60대	6.6	24.1	42.1	27.2	100.0
	70대	3.1	34.7	37.4	24.8	100.0
	80세 이상	2.5	31.1	51.8	14.7	100.0
최종 학력	무학	0.3	18.3	51.5	29.9	100.0
	초졸	1.2	25.8	31.7	41.3	100.0
	중졸	2.7	28.1	42.7	26.5	100.0
	고졸	9.1	21.4	49.9	19.6	100.0
	대학 재학 이상	34.6	14.0	43.8	7.6	100.0
전 체		9.2	22.4	43.7	24.8	100.0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비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 현황은 〈표 Ⅳ-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급여 구간 별로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었는데,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28.4%)와 300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 임금근로자(30.1%)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 1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68.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50대의 경우 급여 구간 별 비임근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60대에서는

〈표 Ⅳ-11〉 비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

(단위: %)

구분		100만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이상	총합
성별	남	18.4	28.4	23.1	30.1	100.0
	여	68.8	14.9	9.0	7.3	100.0
연령대	50세 미만	71.8	19.0	9.1	0.0	100.0
	50대	28.8	19.1	19.6	32.5	100.0
	60대	42.9	26.3	18.4	12.3	100.0
	70대	66.7	22.7	6.8	3.9	100.0
	80세 이상	78.3	19.1	1.7	0.8	100.0
최종 학력	무학	77.9	14.3	5.3	2.5	100.0
	초졸	70.5	17.9	7.6	4.1	100.0
	중졸	43.5	28.5	18.0	9.9	100.0
	고졸	28.6	25.2	20.2	26.0	100.0
	대학 재학 이상	13.0	15.8	24.0	47.2	100.0
전 체		41.7	22.2	16.6	19.6	100.0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100만원 미만을 받는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42.9%로 높게 나타났다. 70대와 80세 이상에서 이 비중은 더욱 증가하여 각각 66.7%와 78.3%로 나타났다. 학력별 차이를 보면, 무학(77.9%), 초졸(70.5%), 중졸(43.5%)의 경우 1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고졸은 상대적으로 급여 구간 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대학 재학 이상(47.2%)에서는 300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다. 이직활동

KReIS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동안 생업을 위해 현재와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표 Ⅳ-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직을 준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취업자의 0.5%에 불과하였으며, 이러한 비율은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직 시 원하는 종사산업은 〈표 Ⅳ-13〉에서 보듯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20.6%로 가장 높았으며,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16.9%, 운수업 13.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2.5%, 제조업이 12.4%로 뒤를 이었다. 대체적으로 1차 산업 분야 보다는 자영업이 가능한 서비스업 분야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2〉 이직활동 여부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총합
성별	남	0.5	99.5	100.0
	여	0.5	99.5	100.0
연령대	50세 미만	3.2	96.8	100.0
	50대	0.3	99.7	100.0
	60대	0.6	99.4	100.0
	70대	0.0	100.0	100.0
	80세 이상	0.0	100.0	100.0
최종 학력	무학	0.0	100.0	100.0
	초졸	0.5	99.5	100.0
	중졸	0.5	99.5	100.0
	고졸	0.6	99.4	100.0
	대학 재학 이상	0.3	99.7	100.0
전 체		0.5	99.5	100.0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 Ⅳ-13〉 이직을 원하는 종사산업 현황

(단위: %)

구분	비율
제조업	12.4
운수업	13.0
숙박 및 음식점업	6.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2.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6.9
전체	100.0

주 : 통합가중치 적용

라. 은퇴계획

KReIS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은퇴 계획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 때 은퇴란 생계를 목적으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더 이상 찾을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한다.

〈표 Ⅳ-14〉는 현재 취업자의 은퇴예상 시점을 응답받은 것이다. 성별에 따라 남성이 67.4세, 여성이 65.7세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 50대는 64.5세, 60대는 69.5세, 70대는 77.8세, 80세 이상은 86.0세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무학의 경우 77.7세, 초졸은 71.7세, 중졸은 69.4세, 고졸은 65.6세, 대학 재학 이상은 64.7세로 학력이 증가할수록 은퇴예상 연령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14〉 은퇴예상 시점

(단위: 세)

구분		연령
성별	남	67.4
	여	65.7
연령대	50세 미만	62.5
	50대	64.5
	60대	69.5
	70대	77.8
	80세 이상	86.0
최종학력	무학	77.7
	초졸	71.7
	중졸	69.4
	고졸	65.6
	대학 재학 이상	64.7
전 체		66.7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 Ⅳ-15〉는 은퇴 후 월 평균 예상생활비를 보여준다. 중·고령 취업자 중 은퇴시점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부기준 2,449천원, 개인기준 1,518천원의 월 평균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은퇴 후 필요한 월 평균 생활비를 조금 더 높게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은퇴 후 생활비를 낮게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은퇴 후 필요 생활비를 높게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5〉 은퇴 후 월 평균 예상생활비

(단위: 천원)

구분		부부기준	개인기준
성별	남	2,452	1,530
	여	2,446	1,501
연령대	50세 미만	2,402	1,490
	50대	2,596	1,628
	60대	2,254	1,355
	70대	1,881	1,158
	80세 이상	1,632	962
최종학력	무학	1,951	1,231
	초졸	1,999	1,210
	중졸	1,978	1,236
	고졸	2,412	1,507
	대학 재학 이상	2,886	1,778
전 체		2,449	1,518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3. 비취업자

KReIS 7차년도 조사에서 비취업자는 45.7%로 이 중 지난 일주일 동안 구직활동을 한 사람의 비중은 2.8%이다. 아래에서는 비취업자 중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의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와 새로운 일자리에서 원하는 고용형태 및 구직활동 이유 등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직활동

KReIS는 최근 1개월 동안 생업을 위해 일자리(사업구상 포함)를 찾고 있었고, 지난 일주일 동안 직장을 구했다면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을 구직자로 정의하였다. 〈표 Ⅳ-16〉은 인구학적 특성별

〈표 Ⅳ-16〉 구직활동여부

(단위: %)

구분		구직활동을 함	구직활동을 하지 않음	총합
성별	남	4.7	95.3	100.0
	여	2.1	97.9	100.0
연령대	50세 미만	8.3	91.7	100.0
	50대	6.3	93.7	100.0
	60대	2.7	97.3	100.0
	70대	0.8	99.2	100.0
	80세 이상	0.2	99.8	100.0
최종학력	무학	0.5	99.5	100.0
	초졸	1.6	98.4	100.0
	중졸	2.8	97.2	100.0
	고졸	4.3	95.7	100.0
	대학 재학 이상	4.2	95.8	100.0
전 체		2.8	97.2	100.0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구직자의 분포를 보여준다. 남성의 경우 비취업자 중 구직자의 비율이 4.7%로 여성의 2.1%에 비해 높았고, 연령대별로 50대의 구직자 비중은 6.3%로 60대의 2.7%, 70대의 0.8%, 80세 이상의 0.2%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고졸 집단에서 구직자의 비중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낮아질수록 구직자의 비중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구직자가 새로운 일자리에서 원하는 고용형태는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고용주나 자영업자 중 한 가지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은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랐다. 〈표 Ⅳ-17〉

〈표 Ⅳ-17〉 구직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

(단위: %)

구분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	총합
성별	남	44.3	52.5	3.2	100.0
	여	30.8	61.2	8.0	100.0
연령대	50세 미만	53.1	46.9	0.0	100.0
	50대	42.6	47.3	10.1	100.0
	60대	34.6	65.4	0.0	100.0
	70대	0.0	85.5	14.5	100.0
	80세 이상	0.0	100.0	0.0	100.0
최종학력	무학	100.0	0.0	0.0	100.0
	초졸	12.5	87.5	0.0	100.0
	중졸	32.5	67.5	0.0	100.0
	고졸	40.9	49.5	9.6	100.0
	대학 재학 이상	33.1	59.6	7.4	100.0
전 체		36.4	57.6	6.0	100.0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에서 볼 수 있듯이 중·고령 구직자가 원하는 고용형태의 비중은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36.4%,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57.6%,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가 6.0%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성의 44.3%와 여성의 30.8%가 정규직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정규직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8〉에서 볼 수 있듯이 중·고령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유지'로 74.0%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 '더욱 활기차고 보람된 생활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중이 12.3%, '장래 노후

〈표 Ⅳ-18〉 구직활동 이유

(단위: %)

구분		생계 유지	장래 노후 생활 대비	활기차고 보람된 생활	개인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총합
성별	남	85.6	5.9	3.2	5.4	100.0
	여	65.8	15.4	18.8	0.0	100.0
연령대	50세 미만	75.3	24.7	0.0	0.0	100.0
	50대	60.4	20.7	14.2	4.8	100.0
	60대	96.4	0.0	3.6	0.0	100.0
	70대	52.1	0.0	47.9	0.0	100.0
	80세 이상	100.0	0.0	0.0	0.0	100.0
최종학력	무학	100.0	0.0	0.0	0.0	100.0
	초졸	94.4	0.0	5.6	0.0	100.0
	중졸	68.4	0.0	31.6	0.0	100.0
	고졸	80.0	13.9	6.1	0.0	100.0
	대학 재학 이상	43.5	26.1	18.0	12.4	100.0
전 체		74.0	11.4	12.3	2.2	100.0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대비를 위해 저축'한다는 사람의 비중이 11.4%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중이 좀 더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 차이의 경우 60대와 80세 이상은 각각 96.4%, 100%가 생계 유지를 위해 구직활동을 한다고 응답했으나, 70대는 '생계 유지를 위해' 응답자 비중이 52.1%, '활기차고 보람된 생활을 위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47.9%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무학(100.0%)과 초졸(94.4%) 고졸(80.0%)은 대부분이 '생계 유지를 위해'라고 응답했으며, 대학 재학 이상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장래 노후생활 대비'(26.1%)와 '활기차고 보람된 노후생활을 위해'(18.0%)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Ⅳ-19〉 은퇴 여부

(단위: %)

구분		은퇴 함	은퇴하지 않음	총합
성별	남	95.6	4.4	100.0
	여	94.3	5.7	100.0
연령대	50세 미만	83.1	16.9	100.0
	50대	84.2	15.8	100.0
	60대	95.4	4.6	100.0
	70대	98.8	1.2	100.0
	80세 이상	99.5	0.5	100.0
최종학력	무학	98.8	1.2	100.0
	초졸	97.0	3.0	100.0
	중졸	93.8	6.2	100.0
	고졸	90.5	9.5	100.0
	대학 재학 이상	95.7	4.3	100.0
전 체		94.7	5.3	100.0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나. 은퇴

KReIS는 비취업자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에게 은퇴에 관해 질문하였다. 여기서 은퇴란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근로 및 소득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더 이상 찾지 않고 있으며 찾을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로 정의한다.

〈표 Ⅳ-19〉에서 중·고령 비경제활동인구 중 은퇴자는 94.7%이며, 남성이 95.6%, 여성이 9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의 84.2%, 60대의 95.4%, 70대의 98.8%, 80세 이상의 99.5%가 은퇴했다고 응답했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대학 재학 이상의 95.7%, 고졸자의 90.5%, 중졸자의 93.8%, 초졸자의 97.0%, 무학력자의 98.8%가 은퇴했다고 응답했다.

〈표 Ⅳ-20〉는 중·고령 은퇴자들의 은퇴 후 생활만족도를 보여준다. 중·고령 은퇴자의 50.3%가 은퇴 후 생활에 대해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매우 만족'은 1.3%, '매우 불만족'은 1.7%였다. 한편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 차이에서는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비중이 50대에서 가장 높게, 7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학력이 증가할수록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0〉 은퇴 후 생활만족도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총합
성별	남	2.8	20.5	47.5	28.5	0.7	100.0
	여	1.2	14.4	51.4	31.4	1.5	100.0
연령대	50세 미만	0.0	6.6	45.5	43.0	4.9	100.0
	50대	1.8	8.5	45.8	40.6	3.3	100.0
	60대	1.2	15.1	50.4	32.0	1.4	100.0
	70대	2.5	20.5	49.8	26.7	0.4	100.0
	80세 이상	1.0	18.7	57.4	22.7	0.1	100.0
최종 학력	무학	3.3	23.5	55.2	17.9	0.2	100.0
	초졸	2.4	19.3	54.9	23.1	0.2	100.0
	중졸	1.9	20.2	51.2	25.7	1.0	100.0
	고졸	0.3	10.7	48.6	38.2	2.2	100.0
	대학 재학 이상	0.8	4.4	34.1	57.1	3.7	100.0
전 체		1.7	16.2	50.3	30.6	1.3	100.0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Ⅴ. 사회보장 적용 실태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사회보장 적용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보장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항). KReIS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한 가입 및 수급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데, 사회보험에서는 공적연금(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실태를 볼 수 있으며, 공공부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현금급여와 의료급여, 또한 2008년부터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7월부터 고령층의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장은 7차년도 본조사(2017년)에 응답한 개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소득보장정책과 건강 및 의료보장정책으로 구분하여 가입 및 수급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소득보장정책으로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분석하였으며, 공공부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도 함께 분석하였다. 건강 및 의료보장정책으로는 사회보험방식인 국민건강보험과 공공부조 방식인 의료급여에 대해 분석하였다.

1. 소득보장정책

가. 사회보험

1) 공적연금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민간 피용자와 자영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사학연금), 부사관, 준사관, 장교 등 군인(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국장 및 사무원, 집배원(별정우체국연금)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으로 구성된다. 1960년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이래로 1988년 국민연금까지 도입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가 정립되었다.

KReIS에서는 앞서 언급한 공적연금의 가입 및 수급상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응답자가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지, 가입을 하고 있다면 어떤 종류의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또한 응답자가 공적연금을 수급을 하고 있다면 현재 어떤 종류의 공적연금 급여를 수급 받고 있는지 조사한다. 본 공적연금 부분에서는 각 차수별 공적연금 가입과 납부 및 수급현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V-1〉 공적연금 가입률 및 납부여부(60세 미만)

(단위: %)

구분		비율
공적연금 가입률		57.0
	보험료 납부	95.8
	보험료 납부안함	4.2

주 : 1) 공적연금 납부는 공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2) 통합가중치 적용

〈표 Ⅴ-1〉은 60세 미만인 자 중 공적연금에 가입한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60세 미만인 자 중 57.0%가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 현재 공적연금 가입자의 95.8%가 공적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4.2%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Ⅴ-2〉는 현재 공적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지 분석한 표이다. 본 분석에서는 공적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18세 미만과 60세 이상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공적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93.6%)은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외에 특수직역연금 중에서는 공무원연금(4.6%), 사학연금(1.6%), 군인연금(0.1%), 별정우체국연금(0.1%)에 가입하여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 납부하고 있는 공적연금종류(60세 미만)

(단위: %)

구분		비율
국민연금		93.6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	4.6
	사학연금	1.6
	군인연금	0.1
	별정우체국연금	0.1
전 체		100.0

주 : 1)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2) 통합가중치 적용

〈표 Ⅴ-3〉 공적연금 납부자 특성(60세 미만)

(단위: %)

구분		비율
성별	남	55.0
	여	45.0
연령대	50세 미만	4.4
	50-54세	30.4
	55-59세	65.1
최종학력	무학	0.3
	초졸	5.4
	중졸	9.4
	고졸	54.6
	대학 이상	30.3
취업상태	임금근로자	60.3
	비임금근로자	31.3
	비취업자	8.4
종사상 지위	상용직	46.8
	임시직	14.8
	일용직	4.2
	종업원 있는 고용주	7.5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7.4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16.3
	무급가족종사자	3.0
제도유형	특수직역	6.4
	국민연금	93.6

주 : 1)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2) 통합가중치 적용
3)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위의 〈표 Ⅴ-3〉은 현재 공적연금 가입자 중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납부자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자가 더 많았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55-59세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50-54세, 50세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가입자 중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계층은 남성이면서, 50대 후반이 많았다. 최종학력의 경우, 고졸, 대학 재학 이상, 중졸, 초졸, 무학의 순 이었다.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자의 91.6%가 취업자(임금근로자 60.3%, 비임금근로자 31.3%)이었으며,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의 순으로, 비임금근로자는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종업원 있는 고용주,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순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납부자의 93.6%가 국민연금 납부자이며 특수직역연금 가입 및 납부자는 6.4% 였다.

2016년 한 해 동안의 공적연금 수급여부, 수급했을 경우 급여 종류 및 수급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Ⅴ-4〉부터 〈표 Ⅴ-6〉까지는 공적연금의 수급현황, 수급종류, 급여별 수급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경우 만 60세가 되지 않더라도 수급 가능하므로, 〈표 Ⅴ-4〉부터 〈표 Ⅴ-6〉에서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수급현황을 살펴보았다.

〈표 Ⅴ-4〉는 전체 패널 중 공적연금(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수급률을 나타낸 것이다. 7차년도 본조사(2017년)에서는 23.0%가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4〉 공적연금 수급률

(단위: %)

구분	비율
공적연금 수급률	23.0

주 : 1) 60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음
2) 전체 응답자 중 공적연금을 수급한 비중을 의미함
3) 통합가중치 적용

〈표 Ⅴ-5〉는 공적연금을 수급한다고 응답한 패널이 어떤 종류의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공적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이 국민연금을 수급하며(85.5%), 공무원연금(8.9%), 군인연금(3.4%), 사학연금(1.8%), 별정우체국연금(0.4%)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5〉 수급받는 공적연금종류

(단위: %)

구분		비율
국민연금		85.5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	8.9
	사학연금	1.8
	군인연금	3.4
	별정우체국연금	0.4
전 체		100.0

주 : 1) 60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음
2) 공적연금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3) 통합가중치 적용

〈표 Ⅴ-6〉은 공적연금의 급여종류별 수급현황을 살펴보았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해서 보았는데, 비슷한 수급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약 85.6%정도에 해당하는 다수가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었으며,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의 순으로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특수직역연금 중에서도 퇴직연금의 수급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73.0%),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순으로 수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Ⅴ-6〉 공적연금 급여종류별 수급현황

(단위: %)

구분		비율
국민연금	노령연금	85.6
	유족연금	12.3
	장애연금	1.5
	분할연금	0.6
	전 체	100.0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73.0
	유족연금	25.1
	장애연금	1.9
	전 체	100.0

주 : 1) 공적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100.0%)과 특수직역연금(100.0%)으로 각각 나누어 분석함
2) 통합가중치 적용

다음 〈표 Ⅴ-7〉과 〈표 Ⅴ-8〉은 60세 이상인 자의 공적연금 수급비중 및 수급받는 공적연금 종류를 나타낸 결과이다. 앞의 분석 결과, 공적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장 많고,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므로 본 부분에서는 연령을 만 60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살펴보았다. 본 분석 결과, 60세 이상인 자 중 37.6%가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종류와 유사하게 국민연금 수급비중이 가장 높았다.

〈표 Ⅴ-7〉 공적연금 수급률(60세 이상)

(단위: %)

구분	비율
공적연금 수급률	37.6

주: 통합가중치 적용

〈표 Ⅴ-8〉 수급받는 공적연금종류(60세 이상)

(단위: %)

구분		비율
국민연금		86.4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	8.2
	사학연금	1.6
	군인연금	3.3
	별정우체국연금	0.5
전 체		100.0

주 : 1) 공적연금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2) 통합가중치 적용

60세 이상의 공적연금 수급자의 특성을 세분화해서 살펴보면(〈표 Ⅴ-9〉), 수급자 가운데 여성보다 남성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적연금 자체가 기여에 의한 급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 오래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남성의 수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60대에서 가장 많이 수급받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70대, 80세 이상의 순으로 공적연금을 수급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시작되어 그 역사가 길지 않아 상대적으로 80대 수급자의 비중이 적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공적연금 수급자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 초졸, 중졸, 대학 재학 이상, 무학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적연금 수급자들의 취업상태를 살펴보았는데,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음에도 절반 정도의 수급자들이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9〉 공적연금 수급자 특성(60세 이상)

(단위: %)

구분		비율
성별	남	64.7
	여	35.3
연령대	60대	59.2
	70대	35.7
	80세 이상	5.1
최종학력	무학	8.8
	초졸	26.0
	중졸	19.8
	고졸	31.5
	대학 재학 이상	14.0
취업상태	임금근로자	21.4
	비임금근로자	28.0
	비취업자	50.7

주 : 1) 60세 이상의 응답자 중 공적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2) 통합가중치 적용

공적연금 수급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특징을 별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60세 이상인 자 중 국민연금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는 32.6%로 나타났다(〈표 Ⅴ-10〉참고).

〈표 Ⅴ-10〉 국민연금 수급률(60세 이상)

(단위: %)

구분	비율
국민연금 수급률	32.6

주: 통합가중치 적용

이들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표 Ⅴ-11〉참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공적연금 수급자의 특성과 대부분 유사하다. 우선, 여성보다는 남성의 수급비중이 더 높으며, 60대 수급자가 가장 많고 수급자의 3.8%만이 8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공적연금 수급자와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으며, 공적연금 수급자 보다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다소 취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1〉 국민연금 수급자 특성(60세 이상)

(단위: %)

구분		비율
성별	남	64.2
	여	35.8
연령대	60대	61.2
	70대	35.0
	80세 이상	3.8
최종학력	무학	9.5
	초졸	28.4
	중졸	20.8
	고졸	30.8
	대학 재학 이상	10.6
취업상태	임금근로자	23.1
	비임금근로자	30.6
	비취업자	46.3

주 : 1) 60세 이상의 응답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2) 통합가중치 적용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소득보장정책으로만 분류하기에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고용보험은 소득보장정책의 성격을 가진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고용보장의 성격을 갖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고용안정화사업도 포함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소득보장정책의 성격을 가진 휴업급여와 의료보장정책의 성격을 갖는 요양급여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기본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실업, 질병, 산업재해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서 빈곤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므로, 소득보장정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Ⅴ-12〉 고용보험 가입률

(단위: %)

구분	비율
고용보험 가입률	31.6

주 : 1)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2) 통합가중치 적용

〈표 Ⅴ-12〉는 전체 취업자 중 31.6%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Ⅴ-13〉은 취업자 가운데 적용제외자[13]와 비가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특성을 살펴본 결과이다. 분석결과, 가입자 중 여성보다는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았다. 연령대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은 50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자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대학 재학 이상, 중학교,

13)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는 일반사업장에서의 적용제외근로자와 특정직종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사업장에서의 적용제외근로자란 65세 이상인 자(실업급여만 제외),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 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이다. 특정 직종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이 이에 해당한다.

초등학교, 무학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형태의 경우, 임금근로자가 대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들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았다. 대부분 임금근로자인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의 비중이 높았으며,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종업원 있는 고용주,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순으로 비중이 나타났다.

〈표 V-13〉 고용보험 가입자 특성

(단위: %)

구분		비율
성별	남	63.5
	여	36.5
연령대	50세 미만	4.2
	50대	68.8
	60대	23.9
	70대	2.9
	80세 이상	0.2
최종 학력	무학	0.8
	초졸	8.2
	중졸	10.5
	고졸	52.7
	대학 재학 이상	27.8
취업 형태	임금근로자	91.2
	비임금근로자	8.8
종사상 지위	상용직	60.6
	임시직	25.3
	일용직	5.2
	종업원 있는 고용주	5.5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자영업자	0.6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2.6

주 : 1)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2) 통합가중치 적용
3)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 Ⅴ-14〉와 〈표 Ⅴ-15〉는 취업자 중 산재보험 가입률과 가입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취업자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비중은 32.2%로 나타났다(〈표 Ⅴ-14〉참고).

〈표 Ⅴ-14〉 산재보험 가입률

(단위: %)

구분	비율
산재보험 가입률	32.2

주 : 1)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2) 통합가중치 적용

다음으로 적용제외자[14]와 비가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산재보험 가입자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표 Ⅴ-15〉참고). 산재보험 역시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중 여성보다는 남성의 비중이 높았다. 연령을 살펴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노동시장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50대 및 60대의 가입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 역시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90.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 가입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본 결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비중이 낮긴 하지만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자영업자 순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산재보험 적용제외자는 공무원연금법 도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 건설공사 중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연면적이 $330m^2$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농업 및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가 고용된 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표 Ⅴ-15〉 산재보험 가입자 특성

(단위: %)

구분		비율
성별	남	64.2
	여	35.8
연령대	50세 미만	4.0
	50대	68.2
	60대	24.6
	70대	3.1
	80세 이상	0.1
최종 학력	무학	1.0
	초졸	8.5
	중졸	11.3
	고졸	52.1
	대학 재학 이상	27.2
취업 형태	임금근로자	90.6
	비임금근로자	9.4
종사상 지위	상용직	59.2
	임시직	25.0
	일용직	6.5
	종업원 있는 고용주	5.6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자영업자	0.5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3.2

주 : 1) 산재보험에 가입한 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2) 통합가중치 적용
3)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나.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로서 빈곤에 대한 최종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인 소득인정액이 각 연도 중위소득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15]. 본 보고서에서도 '가구'와 수급가구의 가구주를 분석하였다[16].

〈표 Ⅴ-16〉는 7차년도 본조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현황을 나타낸 것인데, 전체가구 중 4.0%가 수급[17]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

(단위: %)

구분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률	4.0

주 : 1)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함
2) 통합가중치 적용

〈표 Ⅴ-17〉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주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수급가구의 가구주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중이 더 높았으며, 가구주의 연령대는 60대가 가장 많았으며, 70대, 80세 이상, 50대, 50세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급가구의 가구주 학력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았으며(31.6%), 무학, 고졸, 중졸, 대학 재학 이상의 순으로 비중이 나타났다. 거주지역을 보면 '서울' 보다는 '광역시', '광역시'보다는 '도'에

15) 2016년 기준, 생계급여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의 29%, 의료급여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의 43%, 교육급여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의 50%인 경우 선정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16) 보건복지부 등 통계자료에서는 개인을 기준으로 수급비율을 계산한다.
17)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의 수급개인의 비율은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3.2%이었다.

거주하는 비중이 높았고, 가구구성은 노인부부가구에 비해 노인단독가구의 비중이 4배 이상 높았으며, 그 외(자녀동거가구, 손자녀 동거가구 및 형제자매 동거 등)의 가구형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Ⅴ-17〉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주 특성

(단위: %)

구분		비율
가구주 성별	남	36.6
	여	63.4
가구주 연령	50세 미만	1.2
	50대	19.5
	60대	32.3
	70대	25.3
	80세 이상	21.7
가구주 학력	무학	24.4
	초졸	34.7
	중졸	17.5
	고졸	20.4
	대학 재학 이상	3.0
거주지역	서울	18.5
	광역시	34.8
	도	46.7
가구구성	노인단독	62.6
	노인부부	11.4
	그 외	26.1

주 :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함
2) 통합가중치 적용
3)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2) 기초연금

2008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노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시행 당시 70세 이상 노인의 하위 60%에서, 2009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노년층의 노후소득의 충분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70%를 목표로 하고 있고, 기초노령연금보다 수급 가능금액이 상향되었다.

〈표 Ⅴ-18〉은 2016년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65세 이상인 자 중 64.0%[18]가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8〉 기초연금 수급률

(단위: %)

구분	비율
기초연금 수급률	64.0

주 : 1) 6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2) 통합가중치 적용

18) 2016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률은 65.5%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2017), 2016년 국민연금 생생통계).

다음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표 Ⅴ-19〉참고). 정리하면, 수급자 중에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분포는 모든 범주에서 고르게 분포하였는데, 그 중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노인 전기(70-74세, 65-69세)의 비중이 노인 후기(75-79세, 80세 이상)의 비중보다 높았다. 학력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비중이 높았으며, 현재 비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9〉 기초연금 수급자 특성

(단위: %)

구분		비율
성별	남	33.9
	여	66.1
연령대	65-69세	26.9
	70-74세	27.6
	75-79세	25.1
	80세 이상	20.4
최종학력	무학	27.0
	초졸	40.7
	중졸	16.1
	고졸	13.6
	대학 재학 이상	2.8
취업형태	임금근로자	11.1
	비임금근로자	21.7
	비취업자	67.2

주 : 1)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2) 통합가중치 적용

2. 건강 및 의료보장정책

우리나라의 건강 및 의료보장정책은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19] 및 빈곤층에게 의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로 구성된다. 본 부분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중심으로 사회보장 적용실태를 살펴본다.

가. 사회보험 : 건강보험

1977년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1989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은 가입자 뿐 아니라 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의 배우자, 형제, 자매)를 포함하는 대상의 포괄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높은 적용률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현황 및 가입자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는데(〈표 Ⅴ-20〉참고), 전체 패널 중 97.0%[20]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0〉 건강보험 가입률

(단위: %)

구분	비율
건강보험 가입률	97.0

주 : 1)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2) 통합가중치 적용

건강보험 가입자의 특징을 살펴보면(〈표 Ⅴ-21〉), 우선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연령대는 50대가 39.0%로 가장 많았으며, 60대(32.4%), 70대(19.4%),

19) KReIS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여부를 묻는 것이 아닌, 현금성 국가지원금인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만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현금급여로 제공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수급이 과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20) 2016년 12월 기준, 건강보험 가입률은 97.1%이다(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

80세 이상(6.3%), 50대 미만(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대학 재학 이상, 무학 순 이었으며, 취업형태는 임금근로자 27.8%, 비임금근로자 27.7%, 비취업자 44.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1〉 건강보험 가입자 특성

(단위: %)

구분		비율
성별	남	41.4
	여	58.6
연령대	50세 미만	2.9
	50대	39.0
	60대	32.4
	70대	19.4
	80세 이상	6.3
최종학력	무학	8.6
	초졸	21.0
	중졸	16.7
	고졸	38.3
	대학 재학 이상	15.5
취업형태	임금근로자	27.8
	비임금근로자	27.7
	비취업자	44.5

주 : 1) 건강보험 가입자 특성: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2) 통합가중치 적용

나. 공공부조: 의료급여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제도이다(보건복지부, 2017[21]).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가 그 대상자이며, 행려환자 및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수급의 대상자[22]가 된다.

〈표 Ⅴ-22〉와 〈표 Ⅴ-23〉은 의료급여 수급률 및 수급권자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응답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3.0%로 나타났으며, 그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63.7%,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35.4%로

---

21) 보건복지부a, 2017. 2017년 의료급여사업안내.

22)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료급여 대상자가 명시되어 있다.

제3조(수급권자) ①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
10.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3조의2(난민에 대한 특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나타났다[23]. 의료급여 수급권자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41.4%)보다는 여성(58.6%)의 비중이 더 높았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과반으로 나타나 수급권자의 연령대가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최종학력은 고졸의 비율이 높았으며, 수급권자의 대다수가 비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2〉 의료급여 수급률

(단위: %)

의료급여 수급률	1종	2종
3.0	63.7	35.4

주 : 1)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2) 의료급여 종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100.0%)를 대상으로 분석함
3) 통합가중치 적용

23)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되는데,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 법 적용자가 이에 해당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가 2종 수급권자로 분류된다.

〈표 Ⅴ-23〉 의료급여 수급권자 특성

(단위: %)

구분		비율
성별	남	41.4
	여	58.6
연령대	50세 미만	2.9
	50대	39.0
	60대	32.4
	70대	19.4
	80세 이상	6.3
최종 학력	무학	8.6
	초졸	21.0
	중졸	16.7
	고졸	38.3
	대학 재학 이상	15.5
취업 형태	임금근로자	27.8
	비임금근로자	27.7
	비취업자	44.5

주 : 1) 의료급여 수급자(100.0%)를 대상으로 분석함
2) 통합가중치 적용
3)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Ⅵ. 노후생활

고령화로 인해 기대수명이 늘면서 노후준비는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KReIS에서는 중・고령자들의 노후[24]준비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노후생활에 관한 문항들을 측정하고 있다. '노후'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부재하므로 사람마다 '노후'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후준비나 노후생활 역시 다를 수 있다.

7차년도 조사에서는 개인별로 인식하는 노후에 대한 정의와 어떤 사건을 기반으로 노후가 시작된다고 받아들이는가에 대해 측정하였다. 또한 노후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제적 준비와 관련하여 노후에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부부와 개인 기준으로 최소노후생활비[25]와 적정노후생활비[26]를 응답받았다. 또한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개인별로 정의한 노후 해당여부에 따라 노후를 앞둔 사람들은 노후준비 방법, 노후에 들어선 사람들은 현재 노후생활비 조달방법을 살펴보았다.

노후대책과 관련하여 노후대책을 마련해야 할 주체에 대한 인식과 노후대책에서 우선시 되는 부분을 개인과 사회차원으로 나누어 측정했다. 노후를 앞둔 사람의 경우 노후생활 계획 등을 조사하였다.

더불어 은퇴자나 비취업자들의 비중이 높은 중・고령자들이 여가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도 함께 측정함으로써 노후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24) KReIS에서는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노후시작 사건(근로활동 중단, 첫손자 또는 손녀를 보는 시기, 회갑 이후, 공적 연금 지급,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 자녀 출가 등)이 발생하는 연령 이후를 노후로 본다.

25) 최소노후생활비란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26) 적정노후생활비란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 데 흡족한 비용을 의미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전반적 노후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관적 노후 인식여부, 노후생활비, 노후대책 마련, 그리고 여가생활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주관적 노후시작 시기

KReIS에서는 중고령자가 인식하는 노후 시작 시기와 노후시작 사건에 대해 측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평균 68.5세를 노후가 시작되는 시기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국민연금 수급시작 연령[27]이나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 기준인 65세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스스로를 노후로 인식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70대 이후로는 대부분 자신을 노후로 인식하는 반면, 60대까지는 스스로를 노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학력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노후 인식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 노후 인식 비율이 높은 반면, 중졸 이상의 학력 수준의 경우 노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취업형태에 따라서는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은 중·고령자들의 경우 스스로 노후시기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의 〈표 Ⅵ-1〉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령자들은 어떠한 사건을 경험할 때부터 노후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Ⅵ-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상관없이 '기력이 떨어지는 시기'부터 노후시기가 시작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과반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이외에도 '근로활동 중단' 이후를 노후시작 시점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24.3%로 나타났다.

---

27)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이다.

〈표 Ⅵ-1〉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노후시작 연령

(단위: %, 세)

구분		노후 시작시기	노후해당여부(%)		실제 연령(세)	
			노후	비노후	노후	비노후
성별	남	69.0	30.0	70.0	73.5	59.3
	여	68.1	37.2	62.8	73.6	57.4
연령대	50세 미만	67.1	0.0	100.0	–	46.6
	50대	68.1	1.0	99.0	57.9	55.4
	60대	68.5	29.6	70.4	66.3	63.4
	70대	69.0	91.2	8.8	74.2	72.4
	80세 이상	69.4	100.0	0.0	83.3	–
최종학력	무학	69.1	84.3	15.7	77.5	64.9
	초졸	68.6	57.3	42.7	73.6	62.0
	중졸	68.6	33.6	66.4	71.7	59.7
	고졸	68.3	17.0	83.0	70.6	57.0
	대학 재학 이상	68.1	16.5	83.5	72.6	56.5
취업형태	임금근로자	68.4	11.6	88.4	70.3	57.3
	비임금근로자	69.4	22.8	77.2	72.1	58.7
	비취업자	67.9	54.7	45.3	74.3	58.8
전 체		68.5	34.3	65.7	73.5	58.2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이를 토대로 할 때,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은 건강상태 악화나 소득상실 등으로 취약한 상태에 들어서기 시작하는 시점을 노후시작 시점으로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표 Ⅵ-2〉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노후시작 사건

(단위: %)

구분		노후 시작 시기 평균 (세)	노후시작사건						
			근로 활동을 중단하는 시기	첫 손자 또는 손녀를 보는 시기	회갑 이후	공적 연금이 지급되는 시기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는 시기	기타
성별	남	69.0	27.4	0.4	6.0	8.6	55.6	1.6	0.3
	여	68.1	22.1	1.1	7.6	10.1	56.8	2.1	0.2
연령대	50세 미만	67.1	24.7	1.7	12.2	13.2	42.2	5.0	1.0
	50대	68.1	28.0	0.7	7.1	8.4	53.3	2.3	0.2
	60대	68.5	23.8	1.0	6.5	10.1	56.3	1.9	0.2
	70대	69.0	20.5	0.5	6.5	9.5	61.9	0.9	0.2
	80세 이상	69.4	15.5	0.6	6.8	11.7	63.6	1.8	0.1
최종 학력	무학	69.1	16.5	0.8	6.1	9.9	65.7	1.0	0.0
	초졸	68.6	19.3	0.6	6.2	10.2	61.6	1.9	0.1
	중졸	68.6	20.9	1.0	6.6	11.7	58.1	1.6	0.2
	고졸	68.3	26.0	0.8	8.4	9.1	53.1	2.3	0.3
	대학 재학 이상	68.1	35.2	0.8	5.0	7.0	49.6	2.0	0.4
취업 형태	임금근로자	68.4	30.9	0.5	6.2	8.8	51.7	1.8	0.2
	비임금근로자	69.4	21.0	0.7	4.9	7.2	63.2	2.5	0.4
	비취업자	67.9	22.3	1.0	8.6	11.3	54.9	1.7	0.2
전 체		68.5	24.3	0.8	6.9	9.5	56.3	1.9	0.2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2. 노후생활비

KReIS에서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조사하는 동시에 노후시기에 필요로 하는 월평균 노후생활비를 조사하고 있다. 부부와 개인의 두 가지 차원으로 조사된 노후생활비는 객관적 생활비인 가계소비지출비용과 함께 가구유형에 따른 노후 필요자금 추정에 활용될 수 있으며, 본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경제적 복지 측정을 위해 최소생활비와 적정생활비로 나누어 응답받도록 하였다.

〈표 Ⅵ-3〉은 노후 시기에 필요로 하는 부부와 개인 기준의 최소 수준의 생활비와 적정 수준의 생활비를 응답한 것이다.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응답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월 최소 생활비로 부부는 약 1,760천원 개인은 약 1,081천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생활비로 부부는 약 2,434천원, 개인은 약 1,537천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에 필요로 하는 최소, 적정 생활비 수준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주관적 노후 인식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앞서 1절에서 살펴본 주관적 노후인식 여부에 따라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즉 노후시기 진입 여부에 따라 선호하는 노후생활비 마련방법은 다를 것이며, 이는 이들이 보유한 자원과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KReIS 4차 조사부터 주관적 노후인식 여부별로 노후해당자에게는 현재의 노후생활비 마련방법에 대해 측정하며, 노후비해당자에게는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방법에 대해 측정한다.

현재 노후시기에 해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중·고령자들이 현재 용돈이나 생활비 마련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표 Ⅵ-4〉에서 이들은 전반적으로 정부보조금과 자식 및 친척에게 받는 용돈 등을 통해 노후시기 생활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3〉 노후에 필요로 하는 최소생활비 및 적정생활비

(단위: 천원)

구분		필요최소노후생활비		필요적정노후생활비	
		부부기준	개인기준	부부기준	개인기준
성별	남	1,814.9	1,114.3	2,508.2	1,581.8
	여	1,721.7	1,057.2	2,381.8	1,505.8
연령대	50세 미만	1,910.8	1,157.3	2,685.9	1,646.0
	50대	1,949.6	1,200.4	2,679.8	1,686.6
	60대	1,749.9	1,069.3	2,423.6	1,532.2
	70대	1,500.3	931.6	2,089.4	1,339.6
	80세 이상	1,392.7	836.7	1,940.5	1,213.6
최종 학력	무학	1,338.3	812.5	1,847.2	1,168.7
	초졸	1,510.9	922.4	2,093.8	1,320.9
	중졸	1,650.9	1,021.3	2,285.0	1,453.3
	고졸	1,866.1	1,145.8	2,565.8	1,619.7
	대학 재학 이상	2,212.0	1,363.6	3,089.0	1,942.8
취업 형태	임금근로자	1,881.0	1,149.1	2,595.0	1,637.7
	비임금근로자	1,770.3	1,092.1	2,431.3	1,545.6
	비취업자	1,681.3	1,032.9	2,338.7	1,471.6
주관적노후 인식여부	노후	1,527.4	923.5	2,141.2	1,333.4
	비노후	1,881.4	1,162.7	2,586.5	1,643.3
거주지역1	서울	1,991.5	1,224.4	2,844.5	1,771.6
	광역시	1,740.3	1,010.8	2,361.1	1,393.9
	도	1,690.7	1,064.1	2,328.1	1,523.3
거주지역2	동부	1,833.0	1,124.1	2,550.1	1,599.9
	읍면부	1,537.1	948.1	2,078.7	1,345.3
전 체		1,760.1	1,080.7	2,433.9	1,537.1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 Ⅵ-4〉 주관적 노후해당자의 현재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1~3순위, 다중응답결과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다중응답
일반적금 및 예금	3.9	11.3	21.4	9.3
주식이나 채권 수익	0.1	0.0	–	0.1
부동산 관련 수익(투자 등)	4.1	3.2	2.7	3.6
근로활동	18.5	2.7	3.4	10.4
개인연금	0.0	0.2	0.0	0.1
사적보험(개인연금제외)	0.0	0.0	0.1	0.0
퇴직금(퇴직연금)	–	0.1	0.1	0.0
자식 및 친척에게 받는 생활비 및 용돈	15.2	27.8	37.6	23.2
본인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	12.6	15.1	7.5	12.8
본인 및 배우자의 기타 공적연금(특수연금)	4.4	0.6	0.4	2.4
유산	0.0	0.1	–	0.1
배우자의 소득	16.7	6.1	2.5	10.6
정부보조금	24.2	32.4	23.5	27.1
사회단체 보조금	0.0	0.3	0.6	0.2
기타	0.1	0.0	0.1	0.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주 : 통합가중치 적용

주관적으로 노후로 인식하는 경우, 특성에 따라 주요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의 개수와 1순위 생활비 마련방법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이 약 2개로 나타났다. 생활비 마련 방법 1순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낸 항목이 성별, 연령, 학력수준, 취업형태에 따라 달랐는데,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은 근로활동, 여성은 정부보조금을 주요 생활비 마련방법 1순위로 응답하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하는 배우자의 소득, 7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정부보조금이 1순위

생활비 마련방법이었다. 학력 수준별로는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 소지자는 정부보조금을, 중졸은 배우자의 소득, 고졸은 근로활동을,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연금을 1순위로 꼽았다. 취업형태별로는 취업자는 근로활동을, 비취업자는 정부보조금이 1순위 생활비 마련방법이었다.

〈표 Ⅶ-5〉 주관적 노후해당자 주요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 수와 1순위 방법

(단위: 개, %)

구분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 평균 갯수	생활비 마련방법	
			1순위	%
성별	남	2.2	근로활동	30.6
	여	2.0	정부보조금	28.3
연령대	50대	1.4	배우자의 소득	61.2
	60대	2.0	배우자의 소득	27.3
	70대	2.2	정부보조금	25.4
	80세 이상	2.0	정부보조금	41.3
최종 학력	무학	2.1	정부보조금	41.2
	초졸	2.1	정부보조금	26.9
	중졸	2.1	배우자의 소득	22.0
	고졸	2.1	근로활동	22.4
	대학 재학 이상	2.0	본인 및 배우자의 기타 공적연금(특수연금)	23.6
취업 형태	임금근로자	2.4	근로활동	78.9
	비임금근로자	2.4	근로활동	60.9
	비취업자	2.0	정부보조금	31.0
전 체		2.1	정부보조금	24.2

주 : 통합가중치 적용

노후시기에 아직 진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중·고령자들에게 노후를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측정한 결과, 이들의 62.9%는 노후를 위해 경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 없이 노후에 들어설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표 Ⅵ-6〉 주관적 노후비해당자의 경제적 준비 여부

(단위: %)

구분		준비하고(되어) 있음	준비하고(되어) 있지 않음
성별	남	46.8	53.2
	여	29.4	70.6
연령대	50세 미만	23.1	76.9
	50대	41.2	58.8
	60대	32.6	67.4
	70대	27.6	72.4
	80세 이상	–	–
최종학력	무학	10.0	90.0
	초졸	21.7	78.3
	중졸	25.9	74.1
	고졸	37.0	63.0
	대학 재학 이상	60.9	39.1
취업형태	임금근로자	47.3	52.7
	비임금근로자	38.1	61.9
	비취업자	24.0	76.0
전체		37.1	62.9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노후준비 방법으로 1순위로는 국민연금(57.5%), 2순위로는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45.5%), 3순위로는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34.5%)과 부동산 운용(23.7%)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를 무시하고 1, 2, 3순위 모두를 총괄할 경우, 가장 많이 선택된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36.4%)과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28.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7〉 주관적 노후비해당자의 노후준비 방법-1~3순위, 다중응답결과

(단위: %)

준비방법	1순위	2순위	3순위	다중 응답
국민연금	57.5	14.2	12.3	36.4
기타 공적연금(특수직역연금)	8.5	1.5	1.2	5.1
개인연금	3.5	11.4	14.2	7.6
퇴직금(퇴직연금)	4.7	7.9	11.7	6.7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14.8	45.5	34.5	28.3
부동산 운용	9.9	17.3	23.7	14.2
주식, 채권 등	0.2	0.5	1.0	0.4
기타	1.0	1.7	1.4	1.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주 : 통합가중치 적용

주요 노후생활비 마련방법 수는 1.9개로, 생활비 마련방법의 1순위는 특성별 차이 없이 모두 국민연금으로 나타났다.

〈표 Ⅵ-8〉 주관적 노후비해당자 주요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 수와 1순위 방법

(단위: 개, %)

구분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 평균 갯수	생활비 마련방법	
			1순위	비율
성별	남	2.0	국민연금	65.3
	여	1.8	국민연금	47.8
연령대	50세 미만	1.8	국민연금	45.8
	50대	2.0	국민연금	58.4
	60대	1.9	국민연금	56.6
	70대	2.1	국민연금	57.2
	80세 이상	–	–	–
최종 학력	무학	2.0	국민연금	63.1
	초졸	1.7	국민연금	58.7
	중졸	1.7	국민연금	61.4
	고졸	1.9	국민연금	58.2
	대학 재학 이상	2.1	국민연금	54.8
취업 형태	임금근로자	2.1	국민연금	62.6
	비임금근로자	1.9	국민연금	63.1
	비취업자	1.7	국민연금	36.6
전 체		1.9	국민연금	57.5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주관적 노후 기준에서 노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신이 하고 있는 노후준비 방법이 노후를 위한 경제적 대책으로 충분하다고 인식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53.9%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교 이상의 학력, 비취업자의 경우에는 현재의 노후준비가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Ⅵ-9〉 주관적 노후비해당자의 노후준비가 충분한지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충분하다고 생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
성별	남	46.9	53.1
	여	45.0	55.0
연령대	50세 미만	37.2	62.8
	50대	46.1	53.9
	60대	47.3	52.7
	70대	36.6	63.4
	80세 이상	–	–
최종 학력	무학	40.2	59.8
	초졸	23.1	76.9
	중졸	41.3	58.7
	고졸	45.5	54.5
	대학 재학 이상	54.7	45.3
취업 형태	임금근로자	43.9	56.1
	비임금근로자	44.3	55.7
	비취업자	53.9	46.1
전 체		46.1	53.9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주관적 노후 비해당자 중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대체로 '준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으며,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기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도 3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10〉 주관적 노후비해당자가 경제적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아직 노후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기 때문	준비할 능력이 없기 때문	자녀의 결혼 비용을 준비해야 하기(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의탁할 계획이기 때문	기타
성별	남	7.0	43.3	43.3	6.1	0.3	0.0
	여	5.6	24.9	61.4	6.1	0.9	1.2
연령대	50세 미만	11.2	36.1	48.1	4.7	0.0	0.0
	50대	6.1	38.1	47.1	7.4	0.3	1.0
	60대	5.7	23.4	64.4	4.7	1.2	0.6
	70대	3.6	10.1	84.9	0.0	1.4	0.0
	80세 이상	–	–	–	–	–	–
최종 학력	무학	5.8	23.4	62.8	3.9	2.0	2.1
	초졸	3.2	22.2	67.4	5.6	1.2	0.5
	중졸	4.8	26.7	62.4	5.1	0.6	0.5
	고졸	6.7	35.0	50.8	6.3	0.4	0.8
	대학 재학 이상	10.3	42.7	37.4	8.1	0.4	1.1
취업 형태	임금근로자	5.3	40.3	47.1	6.6	0.4	0.2
	비임금근로자	8.1	43.3	42.2	6.1	0.1	0.2
	비취업자	5.1	15.1	71.2	5.5	1.3	1.7
전체		6.1	31.7	54.7	6.1	0.7	0.8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3. 노후대책 마련

조사 시점 현재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받은 결과는 〈표 Ⅵ-11〉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응답자의 51.5%는 독립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61.3세였다. 남성, 50~60대, 고졸 이상, 취업자,

〈표 Ⅵ-11〉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독립적 경제력 보유 여부

(단위: %, 세)

구분		있다		없다	
		비율	연령	비율	연령
성별	남	75.6	62.1	24.4	68.2
	여	34.6	60.0	65.4	65.2
연령대	50세 미만	44.7	46.8	55.3	46.5
	50대	64.4	55.5	35.6	55.2
	60대	52.1	63.9	47.9	64.7
	70대	35.5	73.6	64.5	74.3
	80세 이상	22.0	82.6	78.0	83.5
최종 학력	무학	21.8	72.5	78.2	76.4
	초졸	36.4	66.5	63.6	69.9
	중졸	47.4	62.9	52.6	64.5
	고졸	59.7	58.9	40.3	59.9
	대학 재학 이상	74.2	59.2	25.8	59.0
취업 형태	임금근로자	81.2	58.5	18.8	60.3
	비임금근로자	71.0	61.5	29.0	62.5
	비취업자	22.0	66.9	78.0	67.4
노후인식 여부	노후	34.3	72.0	65.7	74.3
	비노후	60.5	58.1	39.5	58.5
전 체		51.5	61.3	48.5	65.8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스스로 노후에 아직 들어서지 않았다고 인식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독립적 경제력을 가졌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독립적인 경제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경제적 도움을 누구에게 받고 싶은지 응답받은 결과는 〈표 Ⅵ-12〉에 제시되어 있다. 자녀 및 손자녀의 응답비율(42.2%)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사회단체 및 정부(30.1%)나 배우자(27.4%)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표 Ⅵ-12〉 독립적 경제력 없는 경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싶은 대상

(단위: %)

구분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손자녀	형제자매 및 친인척	사회단체 및 정부
성별	남	9.0	0.3	45.7	0.5	44.6
	여	32.1	0.1	41.3	0.1	26.4
연령대	50세 미만	52.1	0.0	23.9	0.0	24.0
	50대	44.3	0.5	26.0	0.3	28.9
	60대	29.4	0.0	43.3	0.2	27.1
	70대	13.0	0.0	53.5	0.1	33.4
	80세 이상	5.7	0.0	57.6	0.1	36.6
최종 학력	무학	9.7	0.0	53.1	0.4	36.8
	초졸	21.2	0.1	45.6	0.2	33.0
	중졸	29.6	0.0	41.7	0.1	28.6
	고졸	36.8	0.2	36.4	0.2	26.3
	대학 재학 이상	39.5	0.8	33.4	0.0	26.3
취업 형태	임금근로자	22.3	0.2	33.9	0.2	43.4
	비임금근로자	40.2	0.2	35.0	0.3	24.4
	비취업자	25.2	0.1	45.0	0.2	29.5
노후인식 여부	노후	15.1	0.0	51.3	0.2	33.4
	비노후	38.2	0.3	34.1	0.2	27.2
전 체		27.4	0.1	42.2	0.2	30.1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노후대책 마련에 있어 누가 가장 주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응답한 결과는 〈표 Ⅵ-13〉과 같다. 전반적으로 개인의 노후대책 마련의 주체를 본인으로 응답한 비중이 60.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배우자, 정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특성별로는 남성, 50대, 대졸, 취업자, 본인이 노후에 들어섰다고 인식하지 않는 집단이 노후대책 마련 주체를 본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Ⅵ-13〉 노후대책의 가장 주된 역할을 해야 할 주체

(단위: %)

구분		본인	배우자	자녀	사회	정부	기타
성별	남	86.3	1.6	1.8	0.4	9.9	–
	여	42.8	36.6	4.3	0.3	15.9	0.0
연령대	50세 미만	47.4	37.8	1.3	0.0	13.5	–
	50대	66.5	24.8	0.5	0.6	7.6	–
	60대	62.5	22.6	2.4	0.1	12.4	–
	70대	53.9	17.1	7.5	0.2	21.3	–
	80세 이상	44.0	12.5	12.6	0.8	30.1	0.1
최종학력	무학	41.7	16.3	10.8	0.2	30.9	0.0
	초졸	50.9	24.0	5.4	0.3	19.4	–
	중졸	56.9	26.0	3.1	0.2	13.7	–
	고졸	66.7	22.9	1.3	0.5	8.7	–
	대학 재학 이상	75.2	16.9	1.1	0.3	6.4	–
취업형태	임금근로자	78.6	12.1	0.9	0.3	8.0	–
	비임금근로자	74.2	17.8	1.1	0.1	6.8	–
	비취업자	42.0	30.8	6.0	0.5	20.7	0.0
노후인식 여부	노후	51.9	18.3	7.5	0.3	21.9	0.0
	비노후	65.4	24.2	1.0	0.4	9.0	–
전 체		60.8	22.2	3.3	0.3	13.4	0.0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여성의 경우 노후대책의 주체가 본인(42.8%)이라는 응답비율과 배우자(36.6%)라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80대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노후대책 마련의 주체로 응답한 비중이 본인(44.0%) 다음으로 정부(30.1)의 응답 비율도 높았다.

노후대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자신이 처한 상태나 환경에 따라 다르며, 개인 기준에서 필요로 하는 노후대책의 우선 순위와 사회적 기준의 우선 순위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표 Ⅵ-14〉 노후대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본인

(단위: %)

구분		경제적 문제	건강/의료	일자리	주거
성별	남	51.0	42.9	5.2	0.9
	여	49.4	46.7	3.0	0.9
연령대	50세 미만	52.7	42.5	3.3	1.4
	50대	53.0	40.8	5.4	0.8
	60대	48.4	47.2	3.6	0.8
	70대	48.2	48.4	2.4	1.0
	80세 이상	45.3	51.3	1.6	1.8
최종학력	무학	50.0	46.6	2.2	1.2
	초졸	49.6	46.4	3.1	0.9
	중졸	50.7	45.1	3.3	0.9
	고졸	51.8	41.9	5.5	0.8
	대학 재학 이상	45.6	50.3	2.9	1.1
취업형태	임금근로자	52.2	41.2	5.6	0.9
	비임금근로자	53.0	42.9	3.6	0.5
	비취업자	47.0	48.7	3.1	1.2
노후인식 여부	노후	48.5	47.9	2.6	1.0
	비노후	50.9	43.6	4.6	0.9
전 체		50.1	45.1	3.9	0.9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먼저 응답자 자신에게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으로는 경제적 문제(50.1%)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의료(45.1%)가 중요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적으로 노후대책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부분으로는 건강/의료(39.2%)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문제(36.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15〉 노후대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사회

(단위: %)

구분		경제적 문제	건강/의료	일자리	주거
성별	남	34.5	38.9	22.9	3.7
	여	38.4	39.4	18.8	3.2
연령대	50세 미만	28.4	40.2	26.8	4.6
	50대	33.1	38.3	24.6	3.8
	60대	38.1	38.0	20.6	3.3
	70대	41.0	42.1	14.0	2.9
	80세 이상	43.4	41.2	12.4	2.9
최종학력	무학	42.5	42.2	12.1	3.2
	초졸	38.5	40.7	17.0	3.8
	중졸	37.4	38.0	21.5	3.1
	고졸	34.3	38.8	23.5	3.3
	대학 재학 이상	36.7	37.6	21.8	3.5
취업형태	임금근로자	31.0	38.2	26.6	4.1
	비임금근로자	36.8	39.6	20.8	2.7
	비취업자	40.3	39.5	16.7	3.5
노후인식 여부	노후	40.1	41.6	15.0	3.3
	비노후	35.1	37.9	23.4	3.5
전 체		36.8	39.2	20.5	3.4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KReIS에서는 자신이 주관적으로 정의한 노후시기에 진입하기 이전으로 응답한 사람들(주관적 노후시기 비해당자)에게 향후 노후시기에 자녀와 동거 의향, 노후시기를 보내고 싶은 지역, 노후시기에 거주하고 싶은 주택 형태에 대해 추가적으로 응답받았다.

〈표 Ⅵ-16〉에서는 노후시기 비해당자들의 향후 노후시기 자녀 동거 의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응답자의 91.1%는 향후 노후시기에 자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해, 노후시기에 진입하더라도 자녀와 동거를 통해 부양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16〉 주관적 노후시기 비해당자의 노후시기 자녀 동거 의향

(단위: %)

구분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	자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
성별	남	7.6	92.4
	여	9.8	90.2
연령대	50세 미만	12.6	87.4
	50대	8.5	91.5
	60대	9.0	91.0
	70대	9.1	90.9
	80세 이상	–	–
최종 학력	무학	17.8	82.2
	초졸	8.4	91.6
	중졸	10.7	89.3
	고졸	9.2	90.8
	대학 재학 이상	5.5	94.5
취업 형태	임금근로자	9.0	91.0
	비임금근로자	8.5	91.5
	비취업자	9.0	91.0
전 체		8.9	91.1

주 : 1) 자녀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분석함
2) 통합가중치 적용
3)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 Ⅵ-16〉에서 향후 노후시기에 자녀와 동거를 원한다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자녀와 동거를 원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는 〈표 Ⅵ-17〉과 같다. 자녀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자녀 동거 이유로는 '노후시기에 자녀와 함께 지내면 외로움이 덜 할 것 같아서'(61.2%)의 비중이 가장

〈표 Ⅵ-17〉 주관적 노후시기 비해당자의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를 원하는 이유

(단위: %)

구분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을 것이기) 때문에	노환 및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이 불편할 것 같아서	자녀와 함께 지내면 외로움이 덜 할 것 같아서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은 당연하므로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기타
성별	남	21.3	8.7	59.8	4.9	5.4	0.0
	여	23.5	5.4	62.0	2.7	5.2	1.3
연령대	50세 미만	7.8	0.0	82.9	3.6	5.6	0.0
	50대	16.5	6.9	64.0	4.8	6.9	0.9
	60대	31.7	6.8	55.9	1.6	3.2	0.8
	70대	62.3	11.4	23.4	2.9	0.0	0.0
	80세 이상	–	–	–	–	–	–
최종학력	무학	62.2	3.2	24.8	1.9	7.8	0.0
	초졸	22.4	11.3	54.4	0.0	12.0	0.0
	중졸	23.5	8.6	62.7	2.2	3.0	0.0
	고졸	23.9	4.7	60.9	6.0	3.4	1.1
	대학 재학 이상	2.2	6.8	80.0	0.0	9.1	1.9
취업형태	임금근로자	18.6	6.3	65.2	3.9	6.0	0.0
	비임금근로자	11.0	11.6	70.2	3.1	3.4	0.7
	비취업자	38.9	2.0	47.6	3.4	6.3	1.8
전 체		22.6	6.6	61.2	3.5	5.3	0.8

주 : 1) 노후시기 비해당자 중 향후 노후시기에 자녀와 동거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분석함
2) 통합가중치 적용
3)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를 원하는 이유가 외로움을 덜기 위함인 가운데, 70대, 무학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을 것이기) 때문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Ⅵ-16〉에서 향후 노후시기에 자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표 Ⅵ-18〉 노후시기 비해당자-노후시기 자녀와 동거 원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자녀가 불편해 하기 때문에	본인이 불편 하기 때문에	관심사 다르고 대화가 통하지 않으므로	따로 살아야 각자의 생활방식이 지켜질 것 같아서	소외 될 것 같아서	기타
성별	남	12.6	26.3	12.4	47.4	1.3	0.0
	여	11.1	25.9	14.0	46.8	2.0	0.1
연령대	50세 미만	13.1	25.8	14.3	43.4	2.5	0.8
	50대	11.3	26.2	13.1	48.3	1.1	0.0
	60대	12.6	26.3	12.8	45.8	2.6	0.0
	70대	10.1	21.9	22.4	44.1	1.2	0.4
	80세 이상	–	–	–	–	–	–
최종 학력	무학	19.6	26.7	24.8	23.9	5.0	0.0
	초졸	13.7	24.1	13.6	45.5	3.0	0.1
	중졸	10.2	25.6	13.6	47.7	2.7	0.3
	고졸	12.7	29.0	13.0	44.0	1.2	0.0
	대학 재학 이상	8.8	20.8	12.1	57.5	0.9	0.0
취업 형태	임금근로자	11.7	23.4	12.2	51.7	0.8	0.2
	비임금근로자	13.9	26.9	14.3	43.0	1.9	0.0
	비취업자	9.7	28.3	13.4	45.9	2.6	0.0
전 체		11.8	26.1	13.3	47.1	1.7	0.1

주 : 1) 노후시기 비해당자 중 향후 노후시기에 자녀와 동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분석함
2) 통합가중치 적용
3)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사람들의 이유를 살펴본 결과(〈표 Ⅵ-18〉), '따로 살아야 각자의 생활 방식이 지켜질 것 같아서'의 응답이 4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본인이 불편하기 때문에'가 26.1%로 나타났다.

노후시기 비해당자들이 노후에 진입하면 노후시기를 보내고 싶은 지역을 살펴보면(〈표 Ⅵ-19〉), 중소도시 41.1%, 대도시 26.7%, 농어촌 24.6%, 어느 지역이든 관계없이 자녀의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 7.6%로 나타나, 특정 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았다.

〈표 Ⅵ-19〉 노후비해당자-노후생활을 보내고 싶은 지역

(단위: %)

구분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어느 지역이든 관계없이 자녀의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
성별	남	26.2	42.1	25.5	6.2
	여	23.4	40.2	27.7	8.7
연령대	50세 미만	27.4	31.1	27.0	14.5
	50대	23.5	40.3	28.8	7.4
	60대	24.9	43.8	23.7	7.6
	70대	42.8	37.0	19.1	1.1
	80세 이상	-	-	-	-
최종 학력	무학	38.9	40.1	12.8	8.2
	초졸	41.7	34.4	19.0	4.9
	중졸	31.8	38.7	22.5	7.1
	고졸	21.2	44.8	25.8	8.2
	대학 재학 이상	13.2	38.7	39.6	8.5
취업 형태	임금근로자	18.9	45.0	29.4	6.7
	비임금근로자	40.4	31.9	21.4	6.4
	비취업자	15.3	45.8	28.9	9.9
전 체		24.6	41.1	26.7	7.6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농어촌의 경우 70대 이상, 학력 수준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사람,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선호 비율이 높았다. 중소도시의 경우 50~60대, 임금근로자, 비취업자의 선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시기 비해당자들에 대해 향후 노후시기에 거주하고 싶은 주택형태를 응답 받은 결과(〈표 Ⅵ-20〉), 응답자의 47.4%는 노후시기에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파트(42.1%)인 것으로 나타나, 주로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집중되었다.

〈표 Ⅵ-20〉 노후비해당자-노후시기 거주하고 싶은 주택 형태

(단위: %)

구분		단독 주택	빌라 등 다세대 주택	아파트	무료/ 실버 노인 복지 시설	유료 노인 복지 시설	기타
성별	남	50.4	8.2	38.8	1.9	0.4	0.3
	여	45.0	8.1	44.6	1.7	0.5	0.1
연령대	50세 미만	39.3	6.8	51.0	1.3	1.6	0.0
	50대	44.5	7.5	45.3	2.1	0.4	0.2
	60대	52.0	9.3	36.7	1.5	0.4	0.1
	70대	63.4	9.0	26.6	1.1	0.0	0.0
	80세 이상	–	–	–	–	–	–
최종 학력	무학	67.4	12.9	19.4	0.3	0.0	0.0
	초졸	67.5	9.0	21.7	1.7	0.0	0.0
	중졸	54.9	9.2	34.8	0.9	0.1	0.0
	고졸	44.7	8.8	43.8	2.5	0.3	0.0
	대학 재학 이상	30.8	4.3	61.3	1.2	1.6	0.8
취업 형태	임금근로자	41.0	9.5	46.4	2.3	0.6	0.1
	비임금근로자	63.8	6.6	28.2	0.9	0.3	0.2
	비취업자	38.1	8.1	51.1	2.2	0.4	0.2
전 체		47.4	8.1	42.1	1.8	0.5	0.2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4. 여가생활

여가생활은 중·고령자의 경우 여가활동이 삶의 질과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중·고령자들은 어떠한 여가활동을 하고 있으며, 본 절에서는 여가활동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가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개인은 여러 종류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응답자는 자신이 하고 있는 여가활동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여가활동의 종류와 할애 시간을 3순위까지 응답하였다.

〈표 Ⅵ-21〉은 응답자들의 복수의 여가활동의 종류를 모두 취합하여 다중응답 분석한 결과이다.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이 주중에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의 종류는 'TV 시청, 라디오 청취(31.6%)', '조깅, 낚시 등의 혼자 하는 운동(14.9%)', '가족 및 친구, 친척, 이웃, 동네 주민과의 대화(13.3%)' 등으로 나타났다. 주말에 하는 여가활동 또한 주중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주중과 주말을 합쳐 약 41.3시간으로 나타났다. 주중에는 27.8시간을 여가로 보내며, 주중에 가장 오래하는 여가활동의 소요 시간은 15.2시간이었다. 주말에는 13.5시간을 여가로 보내며, 주말에 가장 오래하는 주요 여가활동의 소요 시간은 7.1시간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시간은 여성, 고연령자, 학력수준이 낮은 집단, 비취업자, 자신을 노후라고 인식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여가활동 소요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21〉 여가활동의 종류-다중응답결과

(단위: %)

구분		주 중	주 말
휴식활동	목욕, 낮잠 등	9.6	12.3
	TV 시청, 라디오 청취	31.6	29.7
	요가, 단전호흡, 묵상	0.8	0.2
취미 오락활동	컴퓨터 인터넷	4.9	2.4
	독서	1.8	1.1
	화초・정원손질, 텃밭 가꾸기, 애완동물 기르기	6.6	5.1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활동	놀이(화투, 장기, 바둑, 카드놀이)	1.1	0.8
	노인학교, 교양강좌, 사회교육원, 복지관 내 프로그램 등 자기개발	2.5	0.2
	공연이나 전시관람	0.2	0.8
스포츠 관람 및 참여활동	서예, 사군자, 그림, 노래, 춤 등 창조적 활동	1.3	0.2
	혼자 하는 운동(조깅, 낚시, 산책, 등산, 수영 등)	14.9	11.0
	여럿이 하는 운동(배드민턴, 춤, 족구 등)	2.0	1.4
관광활동	소풍, 관광 등 여행	0.2	3.2
	가족동반 외식, 외출	0.6	4.9
	가족돌보기 등(손자녀 등)	1.3	1.1
사회 및 기타활동	가족 및 친구, 친척, 이웃, 동네주민과의 대화	13.3	11.3
	사회봉사활동	0.3	0.2
	종교활동	1.7	7.6
기타	정치단체나 사회단체 활동	0.1	0.0
	계모임이나 동창회 또는 노인정 등의 친목활동	5.2	6.6
	기타	0.2	0.1
전 체		100.0	100.0

주 : 통합가중치 적용

〈표 Ⅵ-22〉 여가활동에 소요되는 평균시간

(단위: 시간)

구분		전 체 (주중+주말)	주 중		주 말	
			1순위	전체 (1~3순위 총합)	1순위	전체 (1~3순위 총합)
성별	남	39.6	14.2	26.3	6.9	13.3
	여	42.5	15.9	28.8	7.2	13.6
연령대	50세 미만	37.0	13.3	24.5	6.4	12.5
	50대	38.5	13.3	25.3	6.7	13.2
	60대	40.9	15.2	27.4	7.1	13.5
	70대	45.8	17.9	31.7	7.7	14.1
	80세 이상	47.8	19.2	33.7	7.9	14.1
최종 학력	무학	47.5	19.0	33.3	7.9	14.2
	초졸	44.1	17.0	30.2	7.5	13.8
	중졸	41.0	15.4	27.9	6.9	13.1
	고졸	39.3	14.1	26.2	6.8	13.2
	대학 재학 이상	39.0	12.9	25.1	7.0	13.9
취업 형태	임금근로자	36.5	12.4	23.4	6.7	13.1
	비임금근로자	38.4	13.4	25.5	6.6	12.9
	비취업자	45.9	18.0	31.8	7.6	14.1
노후인식 여부	노후	45.8	18.1	31.8	7.7	14.0
	비노후	39.2	13.8	25.9	6.8	13.3
전 체		41.3	15.2	27.8	7.1	13.5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Ⅶ. 삶의 질

본 장에서는 KReIS에서 측정한 가족관계, 건강, 삶의 만족도 항목들을 통하여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관계 영역에서는 개인조사대상자들의 부모・자녀・손자녀 유무와 함께 부모 및 손자녀 돌봄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비동거 부모와의 왕래빈도와 연락빈도를 함께 조사하였다. 건강 영역에서는 신체적・심리적 건강상태, 우울여부, 장애진단 경험, 장애등급, 장애원인, 그리고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 영역에서는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주거환경, 일(직업) 등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요인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본 장은 앞서 언급한 가족관계, 건강, 삶의 만족도라는 3개 영역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현재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1. 가족관계

가. 부모관계

1) 부모 생존 및 동거

7차년도 개인조사 응답자의 부모 생존 여부는 〈표 Ⅶ-1〉과 같다. KReIS의 개인조사대상자는 만 50세 이상이므로 이들의 부모는 고령으로 인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조사 결과에서 부친과 모친 모두 사망한 경우가 72.6%로 가장 높았다. 모친 홀로 생존한 경우는 19.1%로 부친 홀로 생존한 경우(1.6%)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이는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Ⅷ-1〉 부모 생존 여부

(단위: %)

구분		부친만 생존	모친만 생존	부친과 모친 모두 생존	부친과 모친 모두 사망
성별	남	1.8	22.3	6.0	70.0
	여	1.5	16.8	7.2	74.5
연령대	50세 미만	3.4	25.3	32.5	38.9
	50대	3.2	32.5	13.2	51.1
	60대	0.8	16.4	2.0	80.9
	70대	0.1	2.6	0.1	97.2
	80세 이상	0.0	0.0	0.0	100.0
최종 학력	무학	0.3	2.0	0.5	97.2
	초졸	0.7	9.9	1.4	88.0
	중졸	0.7	16.1	4.4	78.8
	고졸	2.5	26.6	8.5	62.4
	대학 재학 이상	2.3	26.4	15.8	55.4
취업 형태	임금근로자	2.9	27.2	9.1	60.8
	비임금근로자	1.6	21.3	8.3	68.8
	비취업자	0.8	12.9	4.4	81.9
전 체		1.6	19.1	6.7	72.6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동거는 일상생활을 통한 접촉과 상호작용을 통해 물질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함께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부모와의 동거 경향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데(방하남 외, 2010), 〈표 Ⅷ-1〉의 부모 생존 여부를 기초로 하여 생존하는 부모가 있을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실태를 〈표 Ⅷ-2〉에서 살펴보면, 부친만 생존하는 경우 동거 비중은 12.5%, 모친만 생존하는 경우 동거 비중은 18.0%, 부친과 모친이 모두 생존하는 경우 동거 비중은 6.2%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생존부모를 모시는 중고령자 비율이 극히 낮을 것을 알 수 있다.

〈표 Ⅶ-2〉 생존 부모와의 동거 실태

(단위: %)

구분	부친만 생존	모친만 생존	부친과 모친 모두 생존
동거	12.5	18.0	6.2
비동거	87.5	82.0	93.8
총합	100.0	100.0	100.0

주 : 통합가중치 적용

2) 생존 부모의 경제적 상태

생존 부모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부친의 경우 '보통이다(58.9%)'와 '좋지 않은 편이다(22.3%)'의 비중이 높았으며, 모친의 경우도 '보통이다(54.9%)'와 '좋지 않은 편이다(28.7%)'의 비중이 높았다.

〈표 Ⅶ-3〉 생존 부모의 경제적상태

(단위: %)

구분	부친	모친
매우 좋지 않다	5.9	7.7
좋지 않은 편이다	22.3	28.7
보통이다	58.9	54.9
좋은 편이다	12.4	8.4
매우 좋다	0.5	0.3
총합	100.0	100.0

주 : 통합가중치 적용

3) 부모 수발 및 간병

노인 부양이란 사적인 또는 사회적 지지망을 통해 개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조추용, 2004)이며, 그 중에서도 부모를 부양하는 부모의 수발 및 간병이란 그러한 원조를 자녀들이 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KReIS 7차년도 조사에서는 고령인 응답자들의 생존 부모들에 대한 수발

〈표 Ⅷ-4〉 생존 부모 수발 및 간병 여부

(단위: %)

구분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성별	남	0.8	99.2
	여	0.8	99.2
연령대	50세 미만	1.6	98.4
	50대	1.2	98.8
	60대	0.7	99.3
	70대	0.4	99.6
	80세 이상	0.0	100.0
최종학력	무학	0.2	99.8
	초졸	0.5	99.5
	중졸	0.4	99.6
	고졸	1.0	99.0
	대학 재학 이상	1.5	98.5
취업형태	임금근로자	0.9	99.1
	비임금근로자	1.0	99.0
	비취업자	0.6	99.4
전 체		0.8	99.2

주 : 1) 생존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가 1인 이상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1명 이상의 부모를 수발 간병하는가의 여부임
2) 통합가중치 적용
3)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및 간병 여부에 대해 측정하였다. 〈표 Ⅶ-4〉는 본인 부모나 배우자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해 각 대상에 대해 수발 및 간병하고 있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생존 부모를 수발 또는 간병하고 있는 응답자는 0.8%에 불과해,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자녀 관계 및 손자녀 관계

KReIS에서 파악하는 자녀는 조사시점 현재 생존하는 자녀이며, 손자녀의 경우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연령인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손자녀로 동거 또는 비동거하고 있는 친손자녀와 외손자녀이다.

개인조사 응답자들의 자녀와 손자녀 유무를 살펴본 결과는 〈표 Ⅶ-5〉와 같다. 이는 KReIS에서는 생존하는 자녀 및 손자녀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손자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녀 유무와 손자녀 유무는 개별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응답자가 중·고령자이므로 자녀가 있는 비중은 96.9%에 이르며, 손자녀가 있는 비중은 27.5%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손자녀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응답자가 거의 도맡아 돌봐주는 손자녀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7.5%로 나타났다. 여성(10.2%), 비취업자(11.6%)인 경우에 손자녀 돌봄 비중이 높았다(〈표 Ⅶ-6〉).

〈표 Ⅷ-5〉 자녀 유무 및 손자녀 유무

(단위: %)

구분		자녀		손자녀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성별	남	95.9	4.1	27.0	73.0
	여	97.6	2.4	27.8	72.2
연령대	50세 미만	97.3	2.7	7.4	92.6
	50대	95.6	4.4	16.5	83.5
	60대	97.5	2.5	43.4	56.6
	70대	98.4	1.6	29.8	70.2
	80세 이상	97.3	2.7	15.5	84.5
최종 학력	무학	97.0	3.0	25.1	74.9
	초졸	97.4	2.6	34.6	65.4
	중졸	97.9	2.1	37.4	62.6
	고졸	96.7	3.3	23.4	76.6
	대학 재학 이상	95.6	4.4	17.9	82.1
취업 형태	임금근로자	96.0	4.0	22.5	77.5
	비임금근로자	97.9	2.1	30.1	69.9
	비취업자	96.9	3.1	28.9	71.1
전 체		96.9	3.1	27.5	72.5

주 : 1) 자녀의 경우 조사 시점 현재 생존한 자녀를, 손자녀의 경우 동거 또는 비동거하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손자녀를 의미함(친손자녀, 외손자녀 모두 포함)
2) 통합가중치 적용
3)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 Ⅶ-6〉 손자녀 돌봄 여부

(단위: %)

구분		돌봄을 함	돌봄을 하지 않음
성별	남	3.6	96.4
	여	10.2	89.8
연령대	50세 미만	0.0	100.0
	50대	10.7	89.3
	60대	8.0	92.0
	70대	3.4	96.6
	80세 이상	6.6	93.4
최종 학력	무학	4.7	95.3
	초졸	7.2	92.8
	중졸	7.1	92.9
	고졸	8.5	91.5
	대학 재학 이상	8.9	91.1
취업 형태	임금근로자	3.5	96.5
	비임금근로자	4.1	95.9
	비취업자	11.6	88.4
전 체		7.5	92.5

주 : 1) 동거 또는 비동거하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손자녀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분석함
2) 통합가중치 적용
3)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손자녀를 돌본다고 응답한 경우, 돌봄의 대가를 받는지에 대해 응답받았다(〈표 Ⅶ-7〉). 손자녀를 돌보는 응답자 중 돌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40.2%로 나타났다. 돌봄에 대한 대가로 월평균 501천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손자녀 돌봄을 하는 비율이 낮은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손자녀 돌봄을 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표 Ⅷ-7〉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대가 유무

(단위: %, 천원/월)

구분		돌봄 대가 없음	돌봄 대가 있음	금액
성별	남	87.4	12.6	117.0
	여	53.2	46.8	523.3
연령대	50세 미만	0.0	0.0	0.0
	50대	53.5	46.5	469.7
	60대	60.3	39.7	538.6
	70대	70.4	29.6	294.0
	80세 이상	87.0	13.0	1200.0
최종 학력	무학	93.9	6.1	500.0
	초졸	56.6	43.4	435.7
	중졸	54.6	45.4	644.4
	고졸	56.9	43.1	477.0
	대학 재학 이상	71.0	29.0	483.0
취업 형태	임금근로자	75.8	24.2	578.2
	비임금근로자	74.1	25.9	685.8
	비취업자	55.0	45.0	475.7
전 체		59.8	40.2	501.4

주: 1) 동거 또는 비동거하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손자녀가 있고, 손자녀 돌봄을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분석함
2) 통합가중치 적용
3)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다. 비동거 가족과의 왕래 및 연락

KReIS에서는 가족과의 왕래 및 연락 항목을 측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비동거하고 있는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와의 왕래빈도 및 연락빈도가 포함된다.

비동거 배우자의 경우 한달~반년에 1~2회 정도(34.0%) 왕래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왕래가 거의 없는 경우도 27.6%로 나타났다. 생존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중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부모와의 왕래 및 연락 빈도를 살펴보면, 비동거하는 부친, 모친, 배우자 부친, 배우자 모친 모두 한 달~반년에 1~2회 정도의 응답이 79% 이상으로 집중되었다.

〈표 Ⅶ-8〉 비동거하는 배우자 및 부모와의 왕래 빈도

(단위: %)

구분		일주일 1~7회 정도	한달~ 반년에 1~2회 정도	1년에 1~2회 또는 몇 년에 한 번	왕래 거의 없음	전체
배우자		22.4	34.0	16.0	27.6	100.0
부모	부친	6.5	84.5	8.2	0.9	100.0
	모친	10.0	80.4	8.6	1.0	100.0
	배우자 부친	7.7	81.7	9.7	0.9	100.0
	배우자 모친	8.9	79.8	9.8	1.6	100.0

주 : 통합가중치 적용

비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부모와 연락하는 빈도를 〈표 Ⅷ-9〉에서 살펴보면,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의 경우 일주일에 1~7회 정도의 연락을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왕래에 비해 연락 빈도가 더 잦음을 알 수 있다.

비동거하는 부모와의 연락 빈도를 살펴보면 한달~반년에 1~2회 정도의 응답이 약 6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주일에 1~7회 정도의 응답이 그 다음으로 많게 나타났다.

〈표 Ⅷ-9〉 비동거하는 배우자 및 부모와의 연락 빈도

(단위: %)

구분		일주일 1~7회 정도	한 달 ~반년에 1~2회 정도	1년에 1~2회 또는 몇 년에 한 번	연락 거의 없음	전체
배우자		39.2	22.1	2.1	36.6	100.0
부모	부친	36.0	61.0	2.1	1.4	100.0
	모친	35.5	59.8	2.2	2.0	100.0
	배우자 부친	31.4	64.8	2.6	1.1	100.0
	배우자 모친	30.4	64.4	2.5	2.7	100.0

주 : 통합가중치 적용

2) 비동거 자녀와의 왕래 및 연락 빈도

응답자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녀와 얼마나 자주 왕래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한달~반년에 1~2회 정도'에 응답이 집중되었다(〈표 Ⅶ-10〉).

응답자들이 비동거 자녀와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일주일에 1~7회 정도와 한달~반년에 1~2회 정도의 응답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동거하는 자녀와 왕래하는 빈도보다 연락을 취하는 빈도가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10〉 비동거하는 자녀와의 왕래 빈도

(단위: %)

구분	일주일 1~7회 정도	한 달 ~반년에 1~2회 정도	1년에 1~2회 또는 몇 년에 한 번	왕래 거의 없음	전체
첫째 자녀	11.3	81.8	5.8	1.1	100.0
둘째 자녀	11.1	82.5	5.3	1.2	100.0
셋째 자녀	8.8	85.6	5.0	0.6	100.0
넷째 자녀	7.8	85.8	5.7	0.7	100.0
다섯째 자녀	6.1	85.4	7.2	1.3	100.0
여섯째 자녀	7.4	80.6	11.0	1.0	100.0
일곱째 자녀	7.7	75.9	13.5	2.8	100.0
여덟째 자녀	4.1	94.6	1.3	0.0	100.0
아홉째 자녀	0.0	100.0	0.0	0.0	100.0
열째 자녀	0.0	100.0	0.0	0.0	100.0

주 : 1) 비동거하는 자녀에 한해 분석함
2) 통합가중치 적용

〈표 Ⅷ-11〉 비동거하는 자녀와의 연락 빈도

(단위: %)

구분	일주일 1~7회 정도	한 달 ~반년에 1~2회 정도	1년에 1~2회 또는 몇 년에 한 번	왕래 거의 없음	전체
첫째 자녀	50.5	47.1	1.2	1.1	100.0
둘째 자녀	52.6	45.1	1.1	1.2	100.0
셋째 자녀	47.5	50.7	1.2	0.7	100.0
넷째 자녀	42.7	54.5	2.0	0.8	100.0
다섯째 자녀	41.1	55.0	2.6	1.2	100.0
여섯째 자녀	36.6	58.8	4.0	0.6	100.0
일곱째 자녀	44.0	48.8	4.4	2.8	100.0
여덟째 자녀	51.7	48.3	0.0	0.0	100.0
아홉째 자녀	68.0	32.0	0.0	0.0	100.0
열째 자녀	100.0	0.0	0.0	0.0	100.0

주 : 1) 비동거하는 자녀에 한해 분석함
2) 통합가중치 적용

2. 건강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차원 전반에 걸친 안녕 상태”를 의미한다(WHO, 1947). KReIS에서는 건강영역을 측정하기 위해 신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 질환 및 장애, 일상생활활동 및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심리상태를 측정하였다.

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

1) 신체적 건강상태

중·고령자는 노화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문제는 개인·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며 특히 노인의 유병장수 현상은 그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진다(김대희, 1999).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KReIS에서는 신체적 건강상태를 ‘귀하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응답범주는 ‘매우 좋지 않다’를 1점으로 하여 ‘좋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좋은 편이다’ 4점, ‘매우 좋다’를 5점으로 한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Ⅶ-12〉를 살펴보면, 50대 이상의 중·고령자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5점 만점에 3.2점으로 나타나, 보통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에 못 미치는 집단은 70대 이상(70대 2.7점, 80대 이상 2.5점)의 고령자, 초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자(무학 2.5점, 초졸 2.8점), 비취업자(2.9점)로, 고령 응답자들의 경우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표 Ⅷ-12〉 신체적 건강상태

(단위: 점/5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	3.3	0.9
	여	3.1	0.9
연령대	50세 미만	3.7	0.7
	50대	3.5	0.8
	60대	3.2	0.9
	70대	2.7	0.9
	80세 이상	2.5	0.9
최종학력	무학	2.5	0.8
	초졸	2.8	0.9
	중졸	3.1	0.9
	고졸	3.4	0.8
	대학 재학 이상	3.6	0.8
취업상태	임금근로자	3.5	0.8
	비임금근로자	3.4	0.8
	비취업자	2.9	0.9
전 체		3.2	0.9

주 : 1) 각 응답범주를 점수화(1 : 매우 좋지 않다 ~ 5 : 매우 좋다)하여 평균을 계산함.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함
2) 통합가중치 적용
3)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2) 정신적 건강상태

일반적으로는 신체적 건강상태를 노년기 건강과 동일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나, WHO가 정의하는 총체적인 안녕(complete well-being)으로서의 건강을 규명하기 위해서 신체적 건강과 함께 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이미숙, 2009). 이러한 측면에서 KReIS에서는 응답자 스스로 정신적 건강상태를 '매우 좋지 않다' 1점, '좋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이다'

〈표 Ⅷ-13〉 정신적 건강상태

(단위: 점/5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	3.6	0.7
	여	3.5	0.8
연령대	50세 미만	3.8	0.6
	50대	3.7	0.7
	60대	3.5	0.7
	70대	3.2	0.8
	80세 이상	3.0	0.8
최종학력	무학	3.0	0.8
	초졸	3.3	0.8
	중졸	3.5	0.8
	고졸	3.7	0.7
	대학 재학 이상	3.8	0.6
취업상태	임금근로자	3.7	0.6
	비임금근로자	3.6	0.7
	비취업자	3.3	0.8
전 체		3.5	0.8

주 : 1) 각 응답범주를 응답을 점수화(1:매우 좋지 않다 ~ 5:매우 좋다)하여 평균을 계산함.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함
2) 통합가중치 적용
3)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3점, '좋은 편이다' 4점, '매우 좋다' 5점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자 전체의 정신적 건강상태 평균 점수는 3.5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3) 심리상태

KReIS에서는 응답자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한국형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척도를 포함하였다. 이는 우울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이며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의 발생빈도에 '극히 드물다(일주일 동안 1일 이하)'는 0점, '가끔 있다(일주일 동안 1~2일)' 1점, '종종 있었다(일주일 동안 3~4일)' 2점, '대부분 그랬다(일주일 동안 5일 이상)'에 3점을 주어 총 60점 만점에 16점 이상인 경우 우울상태로 판정한다.

CES-D로 우울여부를 판정한 결과, 응답자 전체 중 22.4%는 우울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24.5%), 80세 이상(38.3%), 무학(38.0%), 비취업자(28.5%) 집단이 우울상태로 판정된 사람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Ⅶ-14〉 우울여부

(단위: %)

구분		비우울	우울
성별	남	80.6	19.4
	여	75.5	24.5
연령대	50세 미만	81.1	18.9
	50대	81.8	18.2
	60대	78.7	21.3
	70대	72.4	27.6
	80세 이상	61.7	38.3
최종학력	무학	62.0	38.0
	초졸	71.9	28.1
	중졸	77.7	22.3
	고졸	80.8	19.2
	대학 재학 이상	86.8	13.2
취업상태	임금근로자	84.9	15.1
	비임금근로자	80.6	19.4
	비취업자	71.5	28.5
전 체		77.6	22.4

주 : 1) 20개 CES-D 문항 중 '비교적 잘 지냈다', '적어도 보통 사람들만큼의 능력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큰 불만없이 생활했다' 3개 항목은 역코딩하여 산출함
2) 통합가중치 적용
3)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나. 장애[28]

1) 장애 진단

〈표 Ⅶ-15〉는 의사로부터 장애진단을 받아본 경험을 나타낸다. 응답자의 6.5%는 장애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성(7.8%), 80세 이상(9.9%), 무학(11.3%), 비취업자(10.0%)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애 진단 경험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15〉 장애진단 경험 유무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성별	남	7.8	92.2
	여	5.5	94.5
연령대	50세 미만	4.6	95.4
	50대	3.7	96.3
	60대	7.2	92.8
	70대	9.7	90.3
	80세 이상	9.9	90.1
최종학력	무학	11.3	88.7
	초졸	9.4	90.6
	중졸	8.0	92.0
	고졸	3.9	96.1
	대학 재학 이상	4.0	96.0
취업상태	임금근로자	3.1	96.9
	비임금근로자	3.8	96.2
	비취업자	10.0	90.0
전 체		6.5	93.5

주 :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28) KReIS에서는 건강영역에 '현재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질환' 에 대해 응답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현재 데이터클리닝 중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제외됨을 밝힌다.

2) 장애 원인 및 등급

장애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이들의 장애의 주된 원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의 원인으로는 '후천성 질환'이 63.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일반사고'의 비율이 16.7%로 나타나(〈표 Ⅶ-16〉) 대부분의 장애 발생은 후천성 질환 혹은 일반사고로 인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Ⅶ-16〉 장애진단 유경험자들의 장애원인

(단위: %)

구분		선천성	산업재해	공무상 재해	교통사고	일반사고	후천성 질환	기타	전체
성별	남	5.2	8.5	3.2	7.8	20.9	54.3	0.2	100.0
	여	11.8	1.4	0.1	2.3	12.6	71.7	0.0	100.0
연령대	50세 미만	59.3	0.0	0.0	0.0	14.8	25.9	0.0	100.0
	50대	7.7	2.4	2.4	5.5	26.8	55.2	0.0	100.0
	60대	6.8	8.0	1.3	5.4	15.2	63.2	0.0	100.0
	70대	9.3	5.0	1.1	4.2	11.7	68.6	0.0	100.0
	80세 이상	3.8	0.3	3.3	6.0	15.0	70.8	0.8	100.0
최종 학력	무학	15.9	4.5	0.5	3.2	4.0	71.3	0.5	100.0
	초졸	6.0	7.3	1.3	8.0	14.3	63.1	0.0	100.0
	중졸	11.8	6.1	0.9	4.4	19.1	57.8	0.0	100.0
	고졸	5.9	2.7	2.7	5.0	20.0	63.6	0.0	100.0
	대학 재학 이상	3.5	0.7	4.0	0.0	32.5	59.3	0.0	100.0
취업 상태	임금근로자	3.6	4.8	0.6	2.0	36.3	52.6	0.0	100.0
	비임금근로자	3.5	8.6	2.5	12.4	17.6	55.4	0.0	100.0
	비취업자	10.6	4.1	1.7	3.9	12.9	66.7	0.1	100.0
전 체		8.5	4.9	1.7	5.0	16.7	63.0	0.1	100.0

주 : 1) 장애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분석함
2) 통합가중치 적용
3)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또한 장애진단을 받은 이들의 장애등급을 살펴보면, 복지부 등록 장애등급 기준으로 1급부터 6급까지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응답자의 특성별로 장애등급이 상이하게 분포하였다(〈표 Ⅶ-17〉).

〈표 Ⅶ-17〉 장애진단 유경험자들의 장애등급

(단위: %)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전체
성별	남	6.9	19.0	16.5	19.2	18.2	20.2	100.0
	여	5.0	16.4	18.2	20.0	23.6	16.7	100.0
연령대	50세 미만	0.0	43.7	47.0	0.0	9.3	0.0	100.0
	50대	9.3	12.6	15.9	15.5	18.2	28.4	100.0
	60대	5.4	17.0	16.8	15.7	24.8	20.3	100.0
	70대	4.1	20.3	16.4	29.3	18.3	11.5	100.0
	80세 이상	6.5	19.1	20.0	17.9	23.8	12.7	100.0
최종 학력	무학	5.8	15.0	24.1	18.9	27.2	9.0	100.0
	초졸	7.0	20.1	14.4	19.3	24.1	15.2	100.0
	중졸	3.3	19.1	16.0	24.9	19.3	17.5	100.0
	고졸	4.6	17.1	19.2	14.7	17.7	26.7	100.0
	대학 재학 이상	11.3	12.7	14.5	22.6	12.1	26.9	100.0
취업 상태	임금근로자	0.0	2.5	5.2	15.2	31.1	45.9	100.0
	비임금근로자	1.8	5.8	20.2	29.9	23.4	18.9	100.0
	비취업자	8.0	23.3	19.1	18.2	18.5	12.9	100.0
전 체		5.9	17.7	17.4	19.6	21.0	18.4	100.0

주 : 1)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함
2) 통합가중치 적용
3)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3)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일상 · 사회활동 제한 여부

KReIS에서는 조사시점 현재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지를 응답받았다. 그 결과 응답자의 5.3%는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자(19.6%), 무학(15.0%), 비취업자(10.0%)의 경우 건강 문제나 장애로 인한 활동 제한을 받는 사람의 비중이 타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18〉 건강상 문제 또는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제한 여부

(단위: %)

구분		활동제한 있음	활동제한 없음
성별	남	4.9	95.1
	여	5.6	94.4
연령대	50세 미만	1.6	98.4
	50대	2.1	97.9
	60대	3.7	96.3
	70대	10.0	90.0
	80세 이상	19.6	80.4
최종학력	무학	15.0	85.0
	초졸	8.4	91.6
	중졸	5.6	94.4
	고졸	2.8	97.2
	대학 재학 이상	1.2	98.8
취업상태	임금근로자	1.0	99.0
	비임금근로자	1.7	98.3
	비취업자	10.0	90.0
전 체		5.3	94.7

주: 1) 통합가중치 적용
2)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4) 일상생활활동 및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KReIS에서는 일상생활수행능력 척도 및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척도를 조사하여 응답받고 있다. 기존 일상생활수행능력 척도(ADL)를 한국의 상황에 맞게 조정한 한국형 도구적 일상생활활동(K-ADL)에는 옷 입기, 세수하기,

〈표 Ⅷ-19〉 일상생활활동 및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수준

(단위: 점/21점, 점/30점)

구분		ADL	IADL
성별	남	20.9	29.6
	여	20.9	29.6
연령대	50세 미만	21.0	30.0
	50대	21.0	29.9
	60대	21.0	29.8
	70대	20.8	29.2
	80세 이상	20.3	27.5
최종 학력	무학	20.7	28.7
	초졸	20.8	29.3
	중졸	20.9	29.6
	고졸	20.9	29.8
	대학 재학 이상	21.0	29.8
취업 상태	임금근로자	21.0	30.0
	비임금근로자	21.0	29.9
	비취업자	20.8	29.1
전 체		20.9	29.6

주 : 1) ADL(일상생활활동)의 7개 하위문항의 응답을 점수화(1: 혼자서 할 수 없음, 2: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 3:혼자서 전혀 할 수 있음으로 역코딩)한 총합임. 점수가 낮을수록 일상생활활동의 수행이 어려움

2) IADL(도구적 일상생활활동)의 10개 하위문항의 응답을 점수화(1: 혼자서 할 수 없음, 2: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 3:혼자서 전혀 할 수 있음으로 역코딩)한 총합임. 점수가 낮을수록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의 수행이 어려움

3) 통합가중치 적용

4)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목욕하기, 식사하기, 이동하기, 화장실 사용, 대소변 조절의 7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역시 한국의 상황에 맞게 조정한 한국형 일상생활 수행능력척도(K-IADL) 척도는 몸단장하기, 집안 일하기, 식사 준비하기,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 교통수단 이용하기, 물건 사기(쇼핑하기), 금전관리, 전화사용, 약 챙겨먹기의 10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표 Ⅶ-19〉에서 일상생활활동(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및 도구적 일상생활활동(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수준은 각각 21점 만점과 30점 만점에 20.9점, 29.6점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중·고령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3. 삶의 만족도

노인의 생활만족도란 현재 상황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지위와 활동에 대하여 갖고 있는 정서적 만족감이라고 정의될 수도 있다(Havighurst, 1968). KReIS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경제 및 건강 상태, 형제자매와의 관계, 이웃·친구·가족·배우자 등과의 관계, 여가활동,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는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표 Ⅶ-20〉에서 각 영역별 평균점수를 산출해 본 결과 '부부관계'의 점수가 3.9점, '가족관계'와 '자녀관계'의 점수가 각각 3.8점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삶의 만족도의 하위 영역인 집, 이웃관계, 경제적 상태, 친구관계, 가족관계, 부부생활, 일, 건강, 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여가활동,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 모두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Ⅷ-20〉 영역별 생활만족도

(단위: %, 점/5점)

구분	응답범주별 백분율					평균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집	0.4	5.1	42.4	47.9	4.1	3.5
이웃관계	0.1	2.9	46.0	45.5	5.4	3.5
경제적 상태	2.4	18.6	48.0	28.3	2.8	3.1
친구관계	0.3	3.2	36.4	52.7	7.4	3.6
가족관계	0.2	2.4	28.6	58.2	10.6	3.8
부부관계	0.4	1.8	25.4	55.7	16.6	3.9
일	0.2	6.4	50.9	39.2	3.3	3.4
건강	3.3	16.3	41.3	36.6	2.4	3.2
자녀관계	0.3	2.0	25.9	58.3	13.5	3.8
형제·자매관계	0.2	5.5	43.5	46.0	4.8	3.5
여가활동	2.0	13.3	50.9	32.3	1.6	3.2
생활전반	0.4	5.4	48.7	44.1	1.4	3.4

주 : 1) 삶의 만족도의 12개 하위문항의 응답을 점수화(1:매우불만족 ~ 5:매우만족)하여 영역별 평균을 계산함.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
2) 통합가중치 적용

Ⅷ. 패널조사 차수별 종합 비교분석

본 장에서는 2005년부터 조사해 온 기존패널에 대한 조사항목 응답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7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기존 패널 중 1~7차년도 조사에 모두 응답한 패널들만을 추출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종단가중치를 부여하여 1~7차년도에 동일하게 측정된 조사문항들에 대한 조사차수별 응답내용을 비교하였다.

1. 가계경제

1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명목가계소득을 〈표 Ⅷ-1〉에서 살펴보면, 1차년도 25,652천원, 2차년도 27,110천원, 3차년도 27,135천원, 4차년도 25,967천원, 5차년도 28,126천원, 6차년도 26,687천원, 7차년도 29,629천원으로 나타났다. 7차년도 기준 가구주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가구주가 남성일 때 36,249천원, 여성일 때 19,684천원보다 약 1.8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5차년도에 2.1배의 차이를 보인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주 연령에 따른 가계소득 차이는 가구주 연령이 상승할수록 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소득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학력별로 살펴보면, 1~7차년도 모두 가구주 최종학력이 증가할수록 가계소득이 증가하였고, 소득 차이는 뚜렷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지 않았다. 거주지역별 가계소득의 경우 1~7차년도 조사에서 서울이 가장 높았고, 1차년도 조사에서 광역시 거주가구 소득이 도에 거주하는 가구 소득보다 높았으나 이후 조사에서 꾸준히 도에 거주하는 가구 소득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구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1~3차년도 조사에서 노인부부 가구의 가구 소득이 가장 높았던 반면, 이후 조사에서는 그 외

가구의 소득이 가장 높았으며, 노인부부 가구의 소득이 노인단독 가구의 소득에 비해 꾸준히 2.2~2.6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표 Ⅷ-2〉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가계소득의 변화를 계산한 것이다. 물가를 반영한 가계소득의 경우 1차년도 33,602천원에서 점차 감소하여 7차년도에는 29,345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Ⅷ-1〉 명목가계소득의 변화

(단위: 천원)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가구주 성별	남	32,961	34,080	34,574	32,180	35,482	34,937	36,249
	여	15,115	16,853	16,509	16,578	17,062	17,758	19,684
가구주 연령	50세 미만	24,649	29,683	31,969	35,645	41,846	41,604	48,555
	50대	28,953	34,538	36,752	37,872	43,445	43,777	48,212
	60대	34,827	36,696	36,448	34,928	37,085	36,107	38,204
	70대	21,419	20,720	19,469	18,245	19,826	20,083	20,889
	80세 이상	9,995	11,584	15,321	11,169	12,346	13,553	13,558
가구주 학력	무학	9,732	10,671	11,284	11,517	11,573	12,595	13,119
	초졸	16,824	19,524	18,456	17,205	19,884	19,812	22,027
	중졸	26,643	31,202	28,878	27,545	29,019	29,020	30,222
	고졸	32,047	33,956	33,753	32,122	35,915	35,797	37,589
	대학 재학 이상	54,514	48,793	55,815	50,239	51,595	50,072	51,546
거주 지역	서울	31,541	30,552	32,528	35,209	36,876	35,263	41,354
	광역시	24,509	25,812	24,661	22,872	25,203	25,334	26,362
	도	24,231	26,732	26,493	24,294	26,750	27,008	27,392
가구 구성	노인단독	13,505	14,602	13,830	12,893	12,086	11,331	13,154
	노인부부	34,547	34,557	34,460	30,196	30,485	30,219	29,455
	그 외	27,976	31,237	32,657	33,743	41,276	42,161	46,419
전 체		25,652	27,110	27,135	25,967	28,126	26,687	29,629

주 : 1) 가구주 및 가구특성은 7차년도 기준임
2) 종단가중치 적용
3)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 Ⅷ-2〉 실질가계소득의 변화

(단위: 천원)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가구주 성별	남	43,176	42,493	40,165	35,343	36,659	35,184	35,901
	여	19,800	21,013	19,178	18,208	17,628	17,884	19,495
가구주 연령	50세 미만	32,288	37,010	37,139	39,148	43,234	41,898	48,089
	50대	37,925	43,064	42,695	41,594	44,886	44,087	47,748
	60대	45,621	45,754	42,343	38,361	38,316	36,362	37,837
	70대	28,057	25,835	22,617	20,038	20,484	20,225	20,688
	80세 이상	13,092	14,443	17,799	12,267	12,756	13,649	13,428
가구주 학력	무학	12,748	13,306	13,109	12,649	11,957	12,684	12,993
	초졸	22,038	24,343	21,441	18,896	20,544	19,952	21,815
	중졸	34,900	38,905	33,548	30,252	29,982	29,225	29,932
	고졸	41,979	42,338	39,212	35,279	37,107	36,050	37,228
	대학 재학 이상	71,408	60,837	64,841	55,177	53,307	50,426	51,051
거주 지역	서울	41,315	38,094	37,789	38,669	38,100	35,512	40,957
	광역시	32,105	32,184	28,649	25,120	26,039	25,513	26,109
	도	31,741	33,331	30,777	26,682	27,637	27,199	27,128
가구 구성	노인단독	17,690	18,207	16,067	14,160	12,487	11,411	13,027
	노인부부	45,254	43,087	40,033	33,164	31,496	30,432	29,172
	그 외	36,646	38,948	37,938	37,060	42,646	42,459	45,973
전 체		33,602	33,803	31,523	28,519	29,059	26,875	29,345

주 : 1) 가구주 및 가구특성은 7차년도 기준임
2) 종단가중치 적용
3) 실질가계소득은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을 반영하여 산출함
4)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 Ⅷ-3〉은 가구의 규모를 반영한 가계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구 명목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본 것이다. 7차년도 기준 가구주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가구주가 남성일 때 22,544천원으로 여성일 때 15,062천원보다 약 1.7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5차년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역별 가계소득의 경우 1~7차년도 조사에서 서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표 Ⅷ-1〉과의 차이점은 1차~7차년도 조사에서 도에 거주하는 가구 소득이 광역시에 거주하는 가구 소득보다 꾸준히 많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가구 구성에 따른 차이의 경우 가구 규모로 균등화하지 않은 〈표 Ⅷ-1〉의 추세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소비자 물가지수(2015=100)를 반영하여 실질가치로 환산한 값을 보면, 1차년도 19,284천원, 2차년도 19,549천원, 3차년도 18,988천원, 4차년도 17,170천원, 5차년도 17,970천원, 6차년도 18,123천원, 7차년도 19,366천원으로 2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 4차년도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Ⅷ-3〉 가구균등화지수를 사용한 가계소득의 변화

(단위: 천원)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가구주 성별	남	18,026	18,741	19,843	18,543	20,997	21,366	22,544
	여	9,957	11,152	11,349	11,238	11,972	12,974	15,062
가구주 연령	50세 미만	12,590	14,967	15,996	18,415	21,831	21,963	26,047
	50대	13,953	16,604	18,052	19,361	22,276	23,215	26,977
	60대	18,991	20,455	21,198	20,436	22,645	23,077	25,218
	70대	13,406	13,161	12,790	12,146	13,368	13,838	14,756
	80세 이상	7,332	8,231	11,226	7,969	8,904	10,130	10,201
가구주 학력	무학	7,101	7,554	8,416	8,033	8,607	9,580	10,174
	초졸	10,435	12,125	11,918	11,176	13,178	13,591	15,891
	중졸	14,983	17,538	17,263	16,537	17,725	18,475	20,040
	고졸	17,587	18,758	19,215	18,449	21,343	22,111	23,366
	대학 재학 이상	29,418	26,867	31,861	28,902	30,096	30,153	31,870
거주 지역	서울	17,331	17,087	18,701	20,440	21,941	21,876	27,677
	광역시	13,707	14,716	14,926	13,647	15,805	16,112	17,208
	도	14,313	15,720	16,212	14,927	16,708	17,641	18,042
가구 구성	노인단독	9,732	10,525	10,580	9,970	10,008	10,178	12,622
	노인부부	19,419	19,761	20,853	18,192	19,552	20,363	20,467
	그 외	14,538	16,269	17,232	18,172	22,219	23,026	25,457
전 체	명목가치	14,721	15,679	16,345	15,634	17,393	17,995	19,554
	실질가치	19,284	19,549	18,988	17,170	17,970	18,123	19,366

주 : 1) 가구주 및 가구특성은 7차년도 기준임
2) 종단가중치 적용
3) 실질가치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을 반영하여 산출함
4)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 Ⅷ-4〉는 1~7차년도의 가구 명목소비지출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구소비지출은 1차년도 16,281천원, 2차년도 19,780천원, 3차년도 20,271천원, 4차년도 16,902천원, 5차년도 18,428천원, 6차년도 18,355천원, 7차년도 18,409천원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7차년도 가구주가 남성일 경우 여성인 경우보다 가구 소비지출이 약 1.8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1~7차년도 조사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에 따른 소비지출 차이의 경우 매 차 조사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가구주의 학력이 증가할수록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거주지역별 가구 소비지출 차이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가 가장 높은 소비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구성별 차이에서는 매 차 수 조사에서 꾸준히 노인부부 가구의 소비지출이 노인단독 가구의 소비지출보다 1.9~2.1배 높게 나타났다.

〈표 Ⅷ-4〉 명목소비지출의 변화

(단위: 천원)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가구주 성별	남	19,642	23,820	23,928	20,299	22,297	22,207	22,487
	여	11,212	13,692	14,796	11,675	12,510	12,463	12,275
가구주 연령	50세 미만	16,517	20,716	21,415	24,280	26,086	28,028	31,294
	50대	20,620	26,707	28,534	25,151	32,564	30,659	29,034
	60대	21,038	25,149	25,105	20,408	21,714	21,637	21,275
	70대	12,822	15,772	16,144	13,479	14,322	14,357	14,531
	80세 이상	8,697	10,512	12,136	9,522	9,988	10,151	11,294
가구주 학력	무학	7,407	9,735	11,142	9,070	9,371	9,806	9,703
	초졸	12,483	14,764	15,473	12,736	13,876	14,329	14,015
	중졸	17,888	21,622	21,043	18,630	18,901	18,581	18,860
	고졸	20,130	23,917	25,280	20,549	23,270	22,536	22,786
	대학 재학 이상	26,045	33,333	32,592	26,457	29,765	29,777	30,139
거주 지역	서울	19,759	22,814	21,316	20,172	22,548	21,534	24,264
	광역시	15,342	17,884	18,917	16,285	17,048	17,761	16,918
	도	15,575	19,668	20,558	16,088	17,749	17,615	17,249
가구 구성	노인단독	9,719	12,159	12,636	9,867	9,583	9,344	8,944
	노인부부	19,351	23,836	23,649	18,749	19,423	19,361	18,404
	그 외	19,108	22,535	23,839	21,428	25,774	25,850	27,515
전 체		16,281	19,780	20,271	16,902	18,428	18,355	18,409

주 : 1) 가구주 및 가구특성은 7차년도 기준임
2) 종단가중치 적용
3)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 Ⅷ-5〉는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출한 가계 실질소비지출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가계의 실질소비지출은 1차년도 21,326천원, 2차년도 24,662천원, 3차년도 23,550원, 4차년도 18,563천원, 5차년도 19,039천원, 6차년도 18,484천원, 7차년도 18,232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Ⅷ-5〉 실질소비지출의 변화

(단위: 천원)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가구주 성별	남	25,729	29,700	27,797	22,294	23,037	22,364	22,271
	여	14,686	17,072	17,189	12,823	12,925	12,551	12,157
가구주 연령	50세 미만	21,636	25,829	24,879	26,666	26,951	28,226	30,993
	50대	27,010	33,300	33,149	27,623	33,644	30,876	28,755
	60대	27,558	31,357	29,165	22,414	22,435	21,790	21,071
	70대	16,796	19,666	18,755	14,804	14,797	14,458	14,391
	80세 이상	11,392	13,107	14,099	10,457	10,320	10,223	11,186
가구주 학력	무학	9,703	12,138	12,944	9,961	9,682	9,876	9,610
	초졸	16,352	18,409	17,975	13,988	14,337	14,430	13,881
	중졸	23,431	26,959	24,446	20,461	19,528	18,713	18,679
	고졸	26,368	29,821	29,369	22,569	24,041	22,695	22,567
	대학 재학 이상	34,117	41,561	37,863	29,058	30,753	29,988	29,849
거주 지역	서울	25,883	28,445	24,763	22,155	23,297	21,686	24,031
	광역시	20,097	22,298	21,976	17,885	17,613	17,886	16,755
	도	20,401	24,524	23,882	17,669	18,338	17,739	17,083
가구 구성	노인단독	12,731	15,160	14,679	10,837	9,901	9,410	8,858
	노인부부	25,349	29,719	27,474	20,592	20,067	19,498	18,227
	그 외	25,030	28,098	27,694	23,534	26,629	26,033	27,251
전 체		21,326	24,662	23,550	18,563	19,039	18,484	18,232

주 : 1) 가구주 및 가구특성은 7차년도 기준임
2) 종단가중치 적용
3) 실질소비지출은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을 반영하여 산출함
4)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 Ⅷ-6〉은 가구 규모를 반영한 소비지출을 분석하기 위해 가구명목 소비액을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본 것이다. 7차년도 기준 가구주 성별이 남성인 경우 균등화된 가구 소비지출은 14,094천원으로 여성인

〈표 Ⅷ-6〉 가구균등화지수를 사용한 소비지출의 변화

(단위: 천원)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가구주 성별	남	10,731	13,215	13,215	11,881	13,281	13,633	14,094
	여	7,447	9,171	9,171	8,185	9,031	9,287	9,442
가구주 연령	50세 미만	8,473	10,491	11,275	12,919	13,599	14,704	16,967
	50대	9,859	12,762	13,809	12,705	16,753	16,180	16,184
	60대	11,514	14,033	14,825	12,096	13,465	13,932	13,992
	70대	8,216	10,268	10,891	9,190	9,871	10,155	10,424
	80세 이상	6,295	7,585	9,242	6,988	7,340	7,574	8,491
가구주 학력	무학	5,452	7,142	8,537	6,661	7,137	7,599	7,661
	초졸	7,796	9,280	10,253	8,513	9,419	9,939	9,839
	중졸	10,119	12,401	12,675	11,466	11,857	12,063	12,643
	고졸	11,014	13,229	14,543	11,820	13,833	13,850	14,358
	대학 재학 이상	13,942	18,441	18,642	15,304	17,356	17,906	18,785
거주 지역	서울	11,098	12,976	12,529	12,063	13,619	13,494	15,854
	광역시	8,798	10,332	11,453	10,013	10,815	11,572	11,266
	도	9,156	11,742	12,938	10,061	11,318	11,569	11,542
가구 구성	노인단독	7,123	8,888	10,030	7,810	8,153	8,408	8,666
	노인부부	10,927	13,750	14,422	11,543	12,616	13,133	12,830
	그 외	9,922	11,789	12,662	11,610	13,752	13,896	14,994
전 체	명목가치	9,421	11,605	12,483	10,425	11,601	11,915	12,236
	실질가치	12,341	14,470	14,502	11,450	11,986	11,999	12,119

주 : 1) 가구주 및 가구특성은 7차년도 기준임
2) 종단가중치 적용
3) 실질가치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을 반영하여 산출함
4)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경우의 9,442천원에 비해 약 1.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표 Ⅷ-4〉의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구 소비지출의 차이와 비교해볼 때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흐름에 따른 차이를 보면 크게 성별에 따른 가구 소비지출의 차이는 크게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는 추세를 보였다. 가구주의 연령과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4~7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최종학력이 낮아질수록 가구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뚜렷하게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거주지역 별 가구소비지출의 차이는 1~7차에서 모두 서울 거주 가구가 가장 많은 소비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형태에 따른 차이의 경우 노인부부 가구가 노인단독 가구에 비해 꾸준히 1.4~1.6배 정도 더 높은 소비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반영한 실질가치의 경우 1차년도 12,341천원에서 2차년도, 3차년도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4차년도 11,450천원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5차년도에 11,986천원으로 증가한 이후 7차년도에는 12,119천원으로 미약하게나마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제활동상태

KReIS에서 경제활동상태를 구분하는 기준이 2차년도 조사부터 변경되어 종단분석 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1차년도 조사의 경우 취업형태와 상관없이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 이상일 경우 취업자로 정의하였으므로 취업자 비중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약간 낮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 2차년도 조사부터는 통계청 기준과 동일하게 취업자의 기준을 주간에 1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에는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 이상일 경우로 정의하였다.

〈표 Ⅷ-7〉은 성별, 연령대별, 최종학력별 고용률을 시간 흐름에 따라

〈표 Ⅷ-7〉 성별, 연령대, 최종학력별 고용률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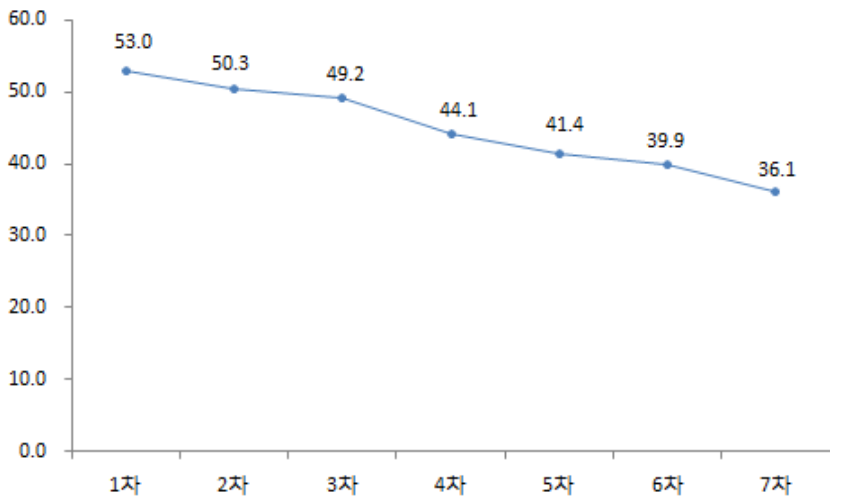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성별	남	71.7	67.5	65.3	60.4	56.4	54.7	49.7
	여	41.4	39.6	39.2	33.9	32.1	30.7	27.7
연령대	50대	59.2	64.0	64.0	62.9	63.6	62.3	58.1
	60대	66.6	63.7	62.1	57.0	54.3	54.2	49.6
	70대	49.3	45.9	45.2	39.4	36.6	33.7	31.3
	80세 이상	31.7	28.6	27.4	22.1	19.2	16.9	12.5
최종 학력	무학	45.6	41.9	41.3	34.6	30.5	25.9	21.6
	초졸	52.9	51.6	50.6	45.4	42.3	41.1	37.8
	중졸	54.1	51.7	50.6	46.7	45.7	43.9	39.8
	고졸	57.6	55.2	53.4	47.9	46.3	46.0	41.8
	대학 재학 이상	53.8	46.0	45.7	42.7	38.3	39.2	36.4
전 체		53.0	50.3	49.2	44.1	41.4	39.9	36.1

주 : 1) 가구주 및 가구특성은 7차년도 기준임
2) 종단가중치 적용
3) 연령대 별 분석에서 50세 미만은 제외하였음

살펴본 것이다. 전체 고용률을 보면 1차년도 53.0%에서 점점 감소하여 7차년도에 36.1%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다[29].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1~7차에서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고용률을 보였으나, 두 집단 간 격차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Ⅷ-1] 중·고령자의 고용률 분포

(단위: %)



주 : 종단가중치 적용

29) 1차년도에 구축한 최초 표본을 대상으로 그들의 2~7차년도의 경제활동률을 살펴본 것으로, 조사차수가 지나면서 이들의 연령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용률 또한 점차 감소하게 된다. 해당연도의 50세 이상의 고용률이 기준이 아님을 밝힌다.

〈표 Ⅷ-8〉 성별, 코호트별 고용률 분포

(단위: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코호트	Ⅰ	91.6	48.5	86.5	47.9	84.6	45.1	82.1	38.6
	Ⅱ	80.1	45.4	76.1	41.9	72.8	43.2	67.7	35.5
	Ⅲ	65.4	38.9	61.0	36.8	58.6	36.6	51.2	33.7
	Ⅳ	51.4	31.6	48.1	28.6	45.5	30.3	39.7	23.6
	Ⅴ	43.8	28.4	40.1	25.6	38.9	23.8	33.6	17.9
	Ⅵ	25.8	15.8	22.3	14.2	23.8	9.2	19.1	9.4
전 체		53.0		50.3		49.2		44.1	

구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남	여	남	여	남	여
코호트	Ⅰ	78.0	39.8	79.7	38.9	73.6	35.0
	Ⅱ	60.2	32.4	57.2	31.3	52.4	29.7
	Ⅲ	50.7	30.6	46.8	28.2	40.9	26.9
	Ⅳ	35.5	20.3	34.9	18.0	33.4	14.8
	Ⅴ	30.8	14.9	26.5	12.8	21.7	8.8
	Ⅵ	8.9	8.5	3.1	6.8	2.9	1.4
전 체		41.4		39.9		36.1	

주 : 종단가중치 적용

〈표 Ⅷ-8〉은 성별, 코호트별 고용률을 조사차수 별로 비교한 것이다. 1~7차년도에 모두 응답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시간 흐름에 따라 경제활동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비교하기 위해 코호트별[30]로 구분하였다. 1차년도 조사에서 50세 이상 개인의 고용률[31]은 53.0%에서 점점 감소하여 7차년도에는 36.1%로 감소하였다. 이는 코호트의 연령대 분포가 임금근로자의

30) 출생년도에 따른 코호트 구분 기준:

(단위: 세)

통상적 퇴직 시기와 일치하는 50~60대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코호트만 따로 분류하여 은퇴 전후의 생활을 비교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3. 노후생활

1차부터 모든 차수의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의 각 차수별 주관적 노후 필요 최소 및 적정 생활비 분석 결과를 〈표 Ⅷ-9〉와 〈표 Ⅷ-10〉에 제시하였다.

〈표 Ⅷ-9〉에서 각 차수 응답치의 평균을 살펴보면, 개인기준 적정생활비의 경우 4차년도 응답값이 이전에 비해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1차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동일한 시점 기준으로 조정하여 실질생활비로 환산한 〈표 Ⅷ-10〉을 살펴보면, 부부와 개인기준의 최소생활비는 6차 이후 7차에서 근소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생활비는 4차년도까지 등락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이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호트		Ⅰ	Ⅱ	Ⅲ	Ⅳ	Ⅴ	Ⅵ
출생년도		1951~1955	1946~1950	1941~1945	1936~1940	1931~1935	1930년 이전
연령	1차	50-54	55-59	60-64	65-69	70-74	75+
	2차	52-56	57-61	62-66	67-71	72-76	77+
	3차	54-58	59-63	64-68	69-73	74-78	79+
	4차	56-60	61-65	66-70	71-75	76-80	81+
	5차	58-62	63-67	68-72	73-77	78-82	83+
	6차	60-64	65-69	70-74	75-79	80-84	85+
	7차	62-66	67-71	72-76	77-81	82-86	87+

주 : 백분율은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

31) 고용률 = (취업자 수/생산가능인구)*100

〈표 Ⅷ-9〉 필요 최소노후생활비 및 적정 생활비(명목)

(단위: 천원)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최소	부부	1,030.6	1,116.3	1,205.7	1,296.9	1,453.4	1,569.4	1,580.6
	개인	671.5	716.6	760.6	763.5	899.1	944.4	971.7
적정	부부	1,488.8	1,621.2	1,731.8	1,829.5	2,048.2	2,159.1	2,197.4
	개인	971.9	1,042.7	1,116.4	1,088.9	1,286.6	1,331.5	1,392.0

주 : 종단가중치 적용

〈표 Ⅷ-10〉 필요 최소노후생활비 및 적정 생활비(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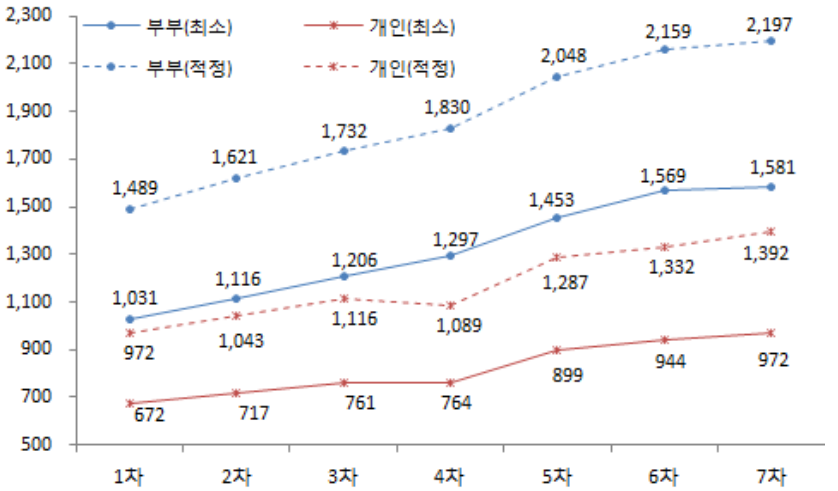
(단위: 천원)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최소	부부	1,313.8	1,357.4	1,363.1	1,369.2	1,482.3	1,569.4	1,535.6
	개인	856.0	871.4	860.0	806.0	917.0	944.4	944.1
적정	부부	1,897.9	1,971.4	1,957.9	1,931.5	2,089.0	2,159.1	2,261.8
	개인	1,238.9	1,267.9	1,262.1	1,149.6	1,312.2	1,331.5	1,352.4

주 : 1) 종단가중치 적용
2) 각 년도의 응답 기준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적용

[그림 Ⅷ-2] 필요 최소노후생활비 및 적정 생활비(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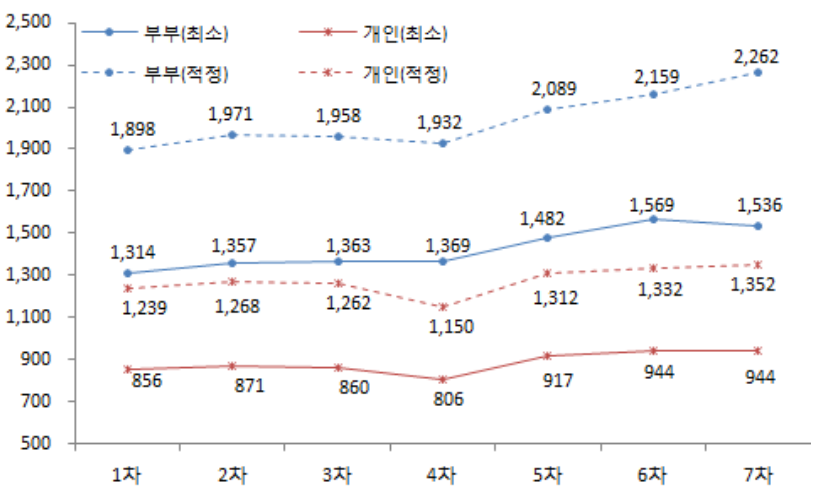
(단위: 천원)



주: 종단가중치 적용

[그림 Ⅷ-3] 필요 최소노후생활비 및 적정 생활비(실질)

(단위: 천원)



주 : 종단가중치 적용

4. 사회보장 적용실태

가. 소득보장정책

1) 사회보험

(1) 공적연금

KReIS에서는 공적연금의 가입 및 수급상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응답자가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지, 가입을 하고 있다면 어떤 종류의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만약 응답자가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현재 어떤 종류의 공적연금 급여를 수급 받고 있는지 조사한다. 본 공적연금 부분에서는 각 차수별 공적연금의 가입과 수급현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Ⅷ-11〉은 가입한 공적연금의 종류를 분석한 결과이다. 공적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의 90.0% 이상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직역연금에서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7차년도 조사에서는 공적연금가입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가 98.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Ⅷ-11〉 가입한 공적연금종류

(단위: %)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국민연금		94.1	94.5	94.3	94.3	95.7	97.8	98.3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	4.9	4.0	4.0	3.8	3.0	1.7	0.9
	사학연금	0.4	0.8	1.1	1.7	1.3	0.5	0.9
	군인연금	0.5	0.5	0.6	0.2	–	–	–
	별정우체국연금	0.2	0.2	–	–	–	–	–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종단가중치 적용

〈표 Ⅷ-12〉부터 〈표 Ⅷ-15〉까지는 공적연금의 수급현황, 수급종류, 급여별 수급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노령연금이 아닌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경우 만 60세가 되지 않더라도 수급 가능하므로, 〈표 Ⅷ-12〉부터 〈표 Ⅷ-15〉에서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수급현황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1차년도에는 응답자의 15.1%가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7차년도에는 36.4%가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가입비율은 줄어들고 수급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Ⅷ-12〉 공적연금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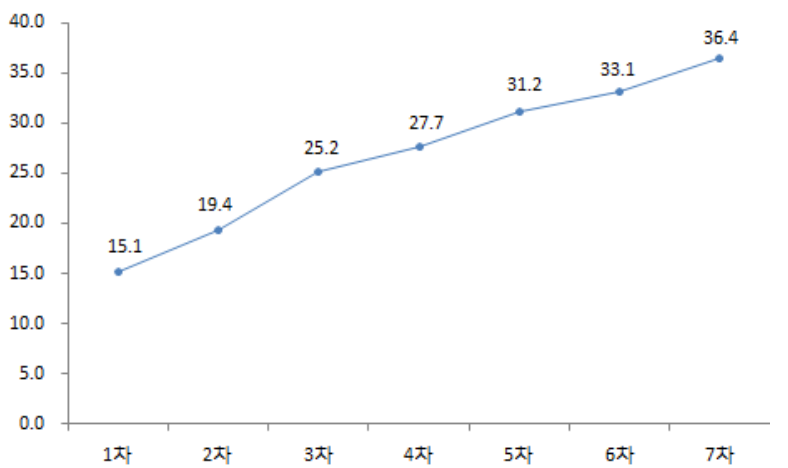
(단위: %)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공적연금 수급	15.1	19.4	25.2	27.7	31.2	33.1	36.4

주 : 1) 60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음
2) 수급현황은 전체 응답자(100.0%) 중 공적연금을 수급한 비중을 의미함
3) 종단가중치 적용

[그림 Ⅷ-4] 공적연금 수급

(단위: %)



주 : 1) 60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음
2) 수급현황은 전체 응답자(100.0%) 중 공적연금을 수급한 비중을 의미함
3) 종단가중치 적용

〈표 Ⅷ-13〉은 공적연금을 수급한다고 응답한 패널이 어떤 종류의 공적연금을 수급 받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1~7차년도 자료 모두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차수 별 수치는 조금 차이가 있으나 특수직역연금 중에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순으로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Ⅷ-13〉 수급받는 공적연금종류

(단위: %)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국민연금수급		80.9	84.4	84.7	83.8	83.6	84.7	85.4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	12.8	10.3	9.9	10.1	9.3	9.5	8.4
	사학연금	1.3	1.8	1.0	1.1	1.5	1.3	1.6
	군인연금	4.9	3.1	4.0	4.7	4.9	4.0	4.1
	별정우체국연금	0.2	0.4	0.3	0.4	0.8	0.6	0.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60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음
2) 수급종류는 공적연금 수급자(100.0%)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3) 종단가중치 적용

〈표 Ⅷ-14〉는 공적연금의 급여종류 별 수급현황을 살펴보았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해서 보았는데, 모두 비슷한 수급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85% 이상 해당하는 다수가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었으며,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의 순으로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특수직역연금 중에서도 퇴직연금의 수급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순으로 수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Ⅷ-14〉 수급받는 공적연금 급여종류

(단위: %)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국민연금	노령연금	89.7	89.2	89.8	89.2	89.6	89.2	88.4
	유족연금	8.4	9.8	9.4	8.9	8.2	9.2	10.0
	장애연금	1.0	0.9	0.8	1.2	1.1	1.0	1.1
	분할연금	0.6	0.0	0.1	0.8	1.0	0.6	0.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83.6	83.2	77.9	74.6	68.4	73.1	70.8
	유족연금	15.8	16.3	13.4	20.0	24.6	25.1	26.4
	장애연금	0.6	0.5	8.6	5.4	6.9	1.8	2.8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60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음
2) 공적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100.0%)과 특수직역연금(100.0%)으로 각각 나누어 분석함
3) 종단가중치 적용

다음 〈표 Ⅷ-15〉는 각 차수별 공적연금 수급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앞의 분석 결과, 공적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장 많고,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0세이므로, 본 부분에서는 연령을 만 60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60세 이상 가운데 공적연금 수급자는 1차년도 24.7%, 2차년도 29.8%, 3차년도 33.4%, 4차년도 35.7%, 5차년도 36.3%, 6차년도 37.1%, 7차년도 38.7%로 매 차수가 증가할수록 공적연금을 수급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Ⅷ-15〉 공적연금 수급(60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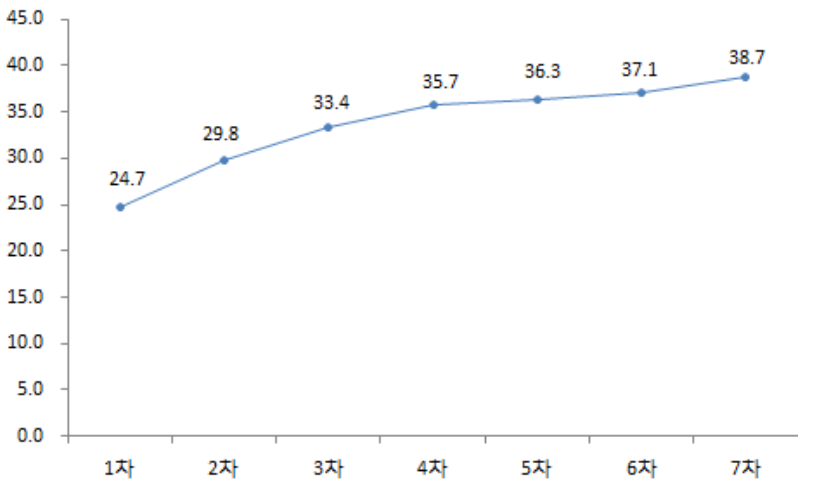
(단위: %)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공적연금 수급	24.7	29.8	33.4	35.7	36.3	37.1	38.7

주 : 1) 공적연금 수급현황의 분석대상은 60세 이상임
2) 수급현황은 전체 응답자 중 공적연금을 수급한 비중을 의미함
3) 종단가중치 적용

[그림 Ⅷ-5] 공적연금 수급(60세 이상)

(단위: %)



주 : 1) 공적연금 수급현황의 분석대상은 60세 이상임
2) 수급현황은 전체 응답자 중 공적연금을 수급한 비중을 의미함
3) 종단가중치 적용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KReIS의 각 년도별 측정방식[32]이 달라 전체 가입률을 살펴보기 어렵기 때문에, 〈표 Ⅷ-16〉과 〈표 Ⅷ-17〉에서는 측정방식이 동일한 2~7차년도의 결과를 비교할 것이다.

〈표 Ⅷ-16〉 고용보험 가입

(단위: %)

구분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고용보험 가입	15.3	18.8	22.7	19.1	17.2	16.9

주 : 1) 전체 취업자(100.0%)를 대상으로 분석함
2) 종단가중치 적용

〈표 Ⅷ-16〉은 각 차수 별 고용보험 가입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취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중은 2차년도 15.3%, 3차년도 18.8%, 4차년도 22.7%, 5차년도 19.1%, 6차년도 17.2%, 7차년도 16.9%로 나타나, 5차년도부터 고용보험 가입률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Ⅷ-17〉은 각 차수별 산재보험 가입비중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취업자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비중은 2차년도 14.7%, 3차년도 19.7%, 4차년도 21.3%, 5차년도 18.9%, 6차년도 18.0%, 7차년도 17.5%로 나타나, 고용보험 가입률과 유사하게 5차년도부터 가입률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Ⅷ-17〉 산재보험 가입

(단위: %)

구분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산재보험 가입	14.7	19.7	21.3	18.9	18.0	17.5

주 : 1) 전체 취업자(100.0%)를 대상으로 분석함
2) 종단가중치 적용

32) KReIS 조사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은 1차년도에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측정되었고, 2차년도부터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모두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측정하였으므로 단순 가입률 비교는 불가능하다.

2)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에 대한 최종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인 소득인정액이 각 연도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본 부분에서는 '가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Ⅷ-18〉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차수 별 수급비중을 분석해 둔 표다. 1차년도에는 전체가구 중 4.8%, 2차년도 5.7%, 3차년도 6.2%, 4차년도 5.5%, 5차년도 5.0%, 6차년도 4.3%, 7차년도 4.7%의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Ⅷ-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단위: %, 가구기준)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4.8	5.7	6.2	5.5	5.0	4.3	4.7

주 : 1) 전체 가구(100.0%)를 대상으로 산출함
2) 종단가중치 적용

나. 건강 및 의료보장정책

우리나라의 건강 및 의료보장정책은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과 빈곤층에게 의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로 구성된다.

건강보험은 본인이 근로활동을 하거나 재산 등 자산이 있어 가입할 수도 있고, 가족 등 타인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표 Ⅷ-19〉는 각 차수 별 건강보험 가입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1~7차년도 모두 94.0% 이상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1차년도 96.4%, 2차년도 95.0%, 3차년도 94.5%, 4차년도 95.8%, 5차년도 96.1%, 6차년도 96.5%, 7차년도 96.2%).

〈표 Ⅷ-19〉 건강보험 가입

(단위: %)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건강보험 가입	96.4	95.0	94.5	95.8	96.1	96.5	96.2

주 : 1) 전체 응답자(100%)를 대상으로 분석함
2) 종단가중치 적용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 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 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제도이다. 〈표 Ⅷ-20〉은 각 차수 별 의료급여 수급비중 및 가입자들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1차년도에는 전체 응답자 중 3.6%가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차년도에는 5.0%, 3차년도에는 5.5%, 4차년도부터 다소 감소한 4.2%, 5차년도 3.9%, 6차년도 3.5%, 7차년도 3.8%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Ⅷ-20〉 의료급여 수급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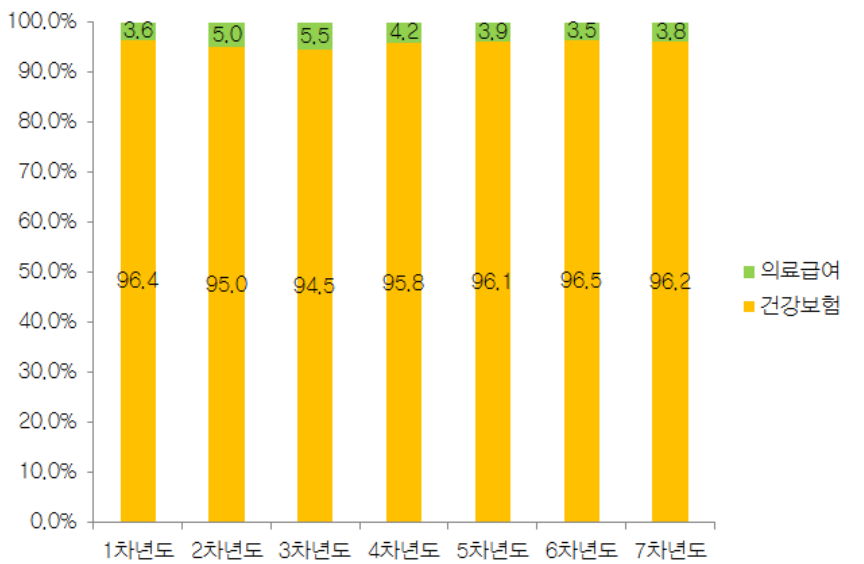
(단위: %)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의료급여 수급권자	3.6	5.0	5.5	4.2	3.9	3.5	3.8

주 : 1) 전체 응답자(100.0%)를 대상으로 분석함
2) 종단가중치 적용

[그림 Ⅷ-6]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보장비율

(단위: %)



주 : 1) 전체 응답자(100.0%)를 대상으로 분석함
2) 종단가중치 적용

5. 삶의 질

KReIS에서는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살펴보기 위해 가족관계, 건강, 삶의 만족도에 관련한 항목들을 조사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 및 환경에 영향받기 쉬운 가족관계를 제외하고, 응답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은 자신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보통' 혹은 '좋지 않은 편'으로 여기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1차~7차년도에 이르기까지 약 70% 내외의 응답자가 지속적으로 이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1차~3차년도까지는 '좋지 않은 편'의 비율이 '보통' 응답에 비해 높았으나, 4차년도 이후부터는 '보통'의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Ⅷ-21〉 신체적 건강상태

(단위: %)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매우 좋지 않다	10.3	8.9	7.1	3.8	5.1	5.1	5.8
좋지 않은 편이다	32.5	36.0	34.4	28.2	30.1	30.2	29.6
보통이다	24.4	25.0	26.1	34.2	30.2	32.4	36.1
좋은 편이다	29.1	26.3	28.1	31.6	32.3	31.2	27.1
매우 좋다	3.7	3.8	4.4	2.2	2.3	1.1	1.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종단가중치 적용

〈표 Ⅷ-22〉는 앞서 살펴본 신체적 건강상태의 응답내용을 점수화하여 응답자 특성별 평균 점수를 살펴본 것이다. 전 조사년도에 걸쳐 평균 점수는 2.8~3.0점 사이로 나타나 '보통'에 약간 부족한 수준으로,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특성별로는 여성, 70대

이상의 고연령, 저학력, 비취업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신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Ⅷ-22〉 신체적 건강상태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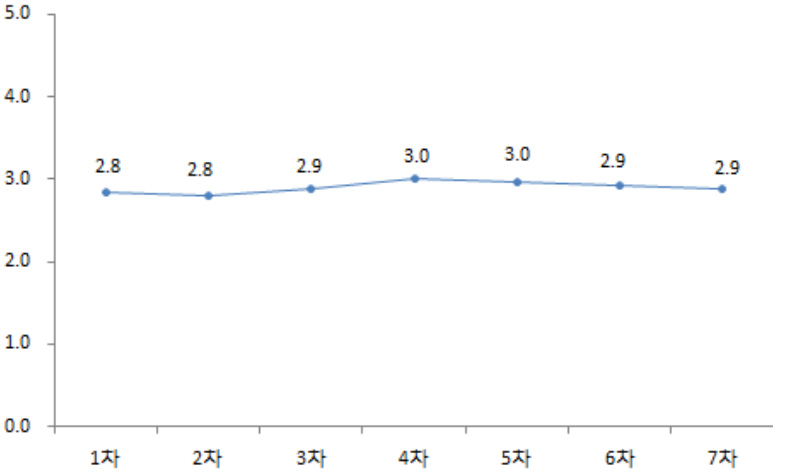
(단위: 점/5점)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성별	남	3.14	3.13	3.19	3.18	3.19	3.10	3.04
	여	2.64	2.60	2.69	2.89	2.82	2.82	2.79
연령대	50세 미만	3.93	4.07	3.33	3.26	3.67	3.43	3.24
	50대	3.26	3.09	3.18	3.47	3.37	3.38	3.46
	60대	3.09	3.06	3.18	3.26	3.23	3.19	3.13
	70대	2.71	2.68	2.75	2.88	2.85	2.83	2.76
	80세 이상	2.45	2.43	2.46	2.58	2.53	2.48	2.46
최종 학력	무학	2.24	2.22	2.35	2.56	2.46	2.48	2.41
	초졸	2.67	2.60	2.68	2.87	2.83	2.82	2.75
	중졸	2.97	2.93	3.03	3.12	3.14	3.07	3.06
	고졸	3.22	3.19	3.27	3.27	3.28	3.17	3.17
	대학 재학 이상	3.42	3.55	3.51	3.51	3.36	3.39	3.31
취업 상태	임금근로자	3.20	3.21	3.25	3.34	3.31	3.31	3.29
	비임금근로자	3.09	2.96	3.18	3.32	3.27	3.20	3.17
	비취업자	2.67	2.66	2.70	2.81	2.78	2.75	2.70
전 체		2.83	2.80	2.88	3.00	2.96	2.93	2.89

주 : 1) 각 응답범주를 점수화(1: 매우 좋지않다 ~ 5: 매우 좋다)하여 평균을 계산함.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함
2) 개인특성은 7차년도 기준임
3) 종단가중치 적용
4)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그림 Ⅷ-7] 신체적 건강상태 평균

(단위: 점/5점)



주 : 1) 각 응답범주를 점수화(1: 매우 좋지않다 ~ 5: 매우 좋다)하여 평균을 계산함.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함
2) 개인특성은 7차년도 기준임
3) 종단가중치 적용

정신적 건강상태는 신체적 건강상태와는 달리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2차년도 제외). '매우 좋다' 및 '매우 좋지 않다'와 같은 극단적인 평가는 조사년도별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Ⅷ-23〉 정신적 건강상태

(단위: %)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매우 좋지 않다	4.0	3.0	2.3	1.3	1.0	1.2	1.7
좋지 않은 편이다	21.2	21.8	12.6	12.2	14.1	12.3	14.5
보통이다	31.4	35.3	28.6	30.7	34.2	39.5	39.0
좋은 편이다	37.6	33.9	45.9	51.4	47.0	45.1	41.4
매우 좋다	5.8	5.9	10.6	4.4	3.8	1.9	3.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개인특성은 7차년도 기준임
2) 종단가중치 적용

정신적 건강상태의 응답내용을 점수화한 평균 점수는 3.2~3.5점 사이로 '보통'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신체적 건강상태와 마찬가지로 여성, 고연령, 저학력, 비취업자는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신의 심리적 건강상태를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Ⅷ-24〉 정신적 건강상태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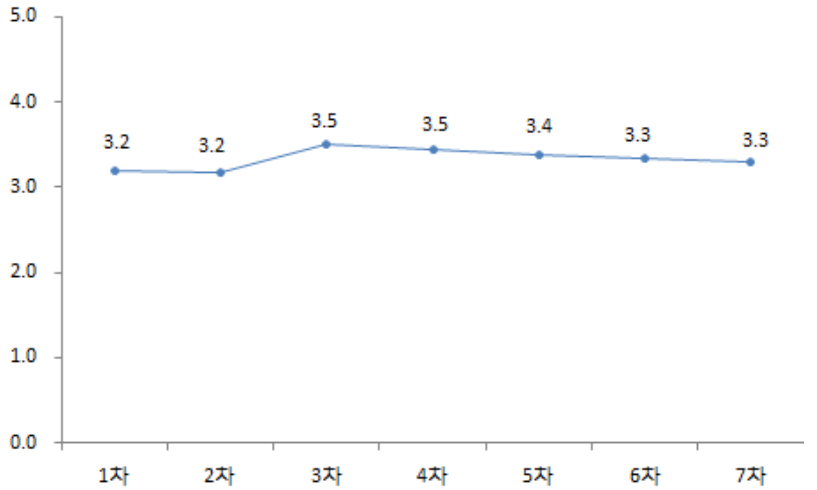
(단위: 점/5점)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성별	남	3.36	3.37	3.67	3.58	3.51	3.46	3.42
	여	3.10	3.07	3.40	3.38	3.31	3.27	3.23
연령대	50세 미만	4.02	4.24	3.50	3.26	4.00	3.57	3.41
	50대	3.46	3.36	3.68	3.87	3.74	3.59	3.60
	60대	3.32	3.33	3.66	3.65	3.57	3.51	3.50
	70대	3.13	3.11	3.44	3.37	3.31	3.27	3.25
	80세 이상	3.01	2.96	3.24	3.12	3.04	3.06	2.94
최종 학력	무학	2.81	2.81	3.08	3.15	3.02	3.04	2.94
	초졸	3.08	3.04	3.38	3.35	3.29	3.29	3.23
	중졸	3.30	3.30	3.63	3.52	3.51	3.42	3.40
	고졸	3.43	3.40	3.75	3.67	3.59	3.50	3.51
	대학 재학 이상	3.69	3.72	3.93	3.83	3.70	3.62	3.62
취업 상태	임금근로자	3.31	3.39	3.68	3.70	3.65	3.59	3.57
	비임금근로자	3.37	3.33	3.71	3.62	3.54	3.49	3.49
	비취업자	3.12	3.08	3.39	3.34	3.27	3.24	3.18
전 체		3.20	3.18	3.50	3.45	3.38	3.34	3.30

주 : 1) 각 응답범주를 점수화(1: 매우 좋지않다 ~ 5: 매우 좋다)하여 평균을 계산함.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건강 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함
2) 개인특성은 7차년도 기준임
3) 종단가중치 적용
4)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그림 Ⅷ-8] 정신적 건강상태 평균

(단위: 점/5점)



주 : 1) 각 응답범주를 점수화(1: 매우 좋지않다 ~ 5: 매우 좋다)하여 평균을 계산함.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건강 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함.
2) 종단가중치 적용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주거환경, 일(직업)등에 대한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면, 1차~7차년도에 이르기까지 평균 3.0~3.1점 사이의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연령, 저학력, 비취업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Ⅷ-25〉 삶의 만족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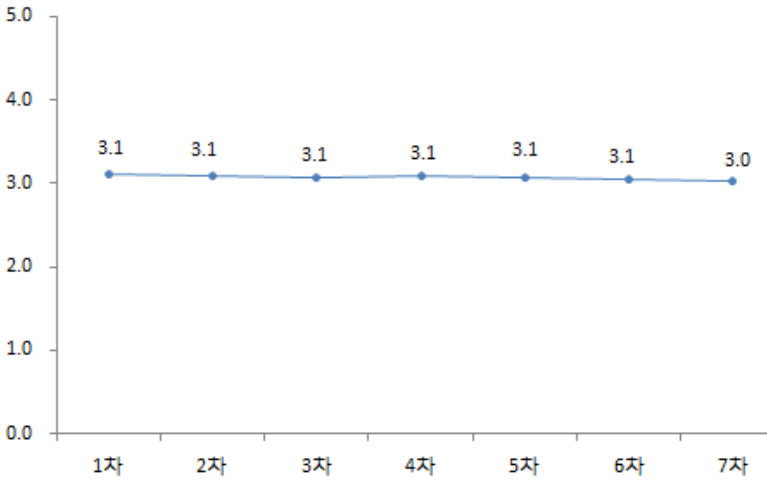
(단위: 점/5점)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성별	남	3.31	3.30	3.28	3.28	3.27	3.25	3.23
	여	2.98	2.95	2.93	2.97	2.94	2.92	2.90
연령대	50세 미만	3.21	3.18	3.00	3.07	3.22	3.19	3.46
	50대	3.30	3.26	3.26	3.34	3.33	3.30	3.32
	60대	3.25	3.24	3.23	3.28	3.26	3.25	3.22
	70대	3.05	3.05	3.02	3.02	3.01	2.99	2.96
	80세 이상	2.86	2.82	2.77	2.77	2.71	2.69	2.65
최종 학력	무학	2.78	2.74	2.70	2.70	2.66	2.67	2.60
	초졸	3.03	3.01	2.99	3.02	3.00	2.98	2.96
	중졸	3.21	3.19	3.18	3.18	3.22	3.17	3.13
	고졸	3.27	3.27	3.26	3.27	3.24	3.23	3.25
	대학 재학 이상	3.40	3.44	3.41	3.47	3.39	3.37	3.34
취업 상태	임금근로자	3.23	3.25	3.22	3.27	3.30	3.31	3.34
	비임금근로자	3.41	3.38	3.41	3.46	3.48	3.48	3.48
	비취업자	2.97	2.95	2.91	2.92	2.87	2.84	2.79
전 체		3.10	3.09	3.06	3.09	3.07	3.05	3.02

주 : 1) 삶의 만족도 9개 항목을 점수화(1: 매우 좋지않다 ~ 5: 매우 좋다)하여 평균을 계산함.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함
2) '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여가활동' 3개 항목은 3차년도 이후 추가된 항목으로 본 분석에 적용하지 않음
3) 개인특성은 7차년도 기준임
4) 종단가중치 적용
5) 50세 미만의 경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그림 Ⅷ-9] 삶의 만족도 평균

(단위: 점/5점)



주 : 1) 삶의 만족도 9개 항목을 점수화(1: 매우 좋지않다 ~ 5: 매우 좋다)하여 평균을 계산함.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함
2) '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여가활동' 3개 항목은 3차년도 이후 추가된 항목으로 본 분석에 적용하지 않음
3) 종단가중치 적용

6. 공적연금 수급자의 생활실태 변화

본 절에서는 기초적인 노후준비 수단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생활실태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에 연금 수급자의 경제상태 및 삶의 만족도, 연금 수급액 만족도 등을 살펴보고, 독립적 경제력 및 연금의 노후준비 충분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연금수급자의 취업여부 및 이전소득 추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국민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Ⅷ-26〉과 같이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해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Ⅷ-26〉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제상태 만족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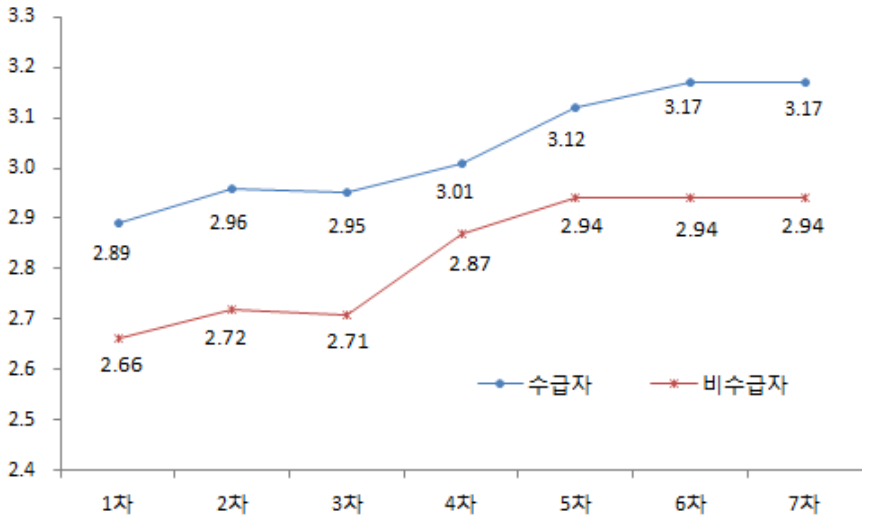
(단위: 점/5점)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수급자	2.89	2.96	2.95	3.01	3.12	3.17	3.17
비수급자	2.66	2.72	2.71	2.87	2.94	2.94	2.94

주 : 종단가중치 적용

[그림 Ⅷ-10]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제상태 만족도 추이

(단위: 점/5점)



주 : 종단가중치 적용

다음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삶의 전반적 만족도 추이를 살펴본 결과, 연금 수급자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비수급자의 삶의 만족도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Ⅷ-27〉 국민연금 수급자의 삶의 전반적 만족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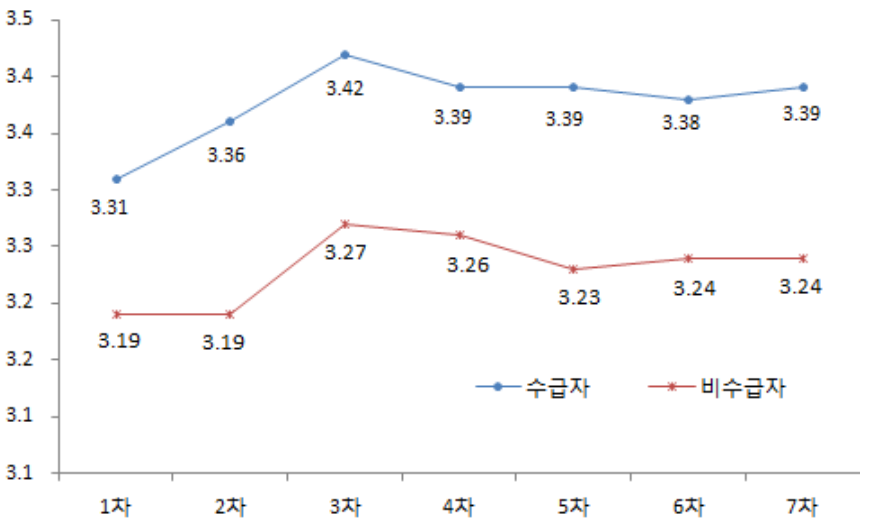
(단위: 점/5점)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수급자	3.31	3.36	3.42	3.39	3.39	3.38	3.39
비수급자	3.19	3.19	3.27	3.26	3.23	3.24	3.24

주 : 종단가중치 적용

[그림 Ⅷ-11] 국민연금 수급자의 삶의 전반적 만족도 추이

(단위: 점/5점)



주 : 종단가중치 적용

공적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급액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제도가 일찍 도입되어 연금 수준이 국민연금보다 높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수급액 만족도가 국민연금 수급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국민연금 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수급액 만족도는 조사차수가 경과함에 따라 조금씩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표 Ⅷ-28〉 공적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급액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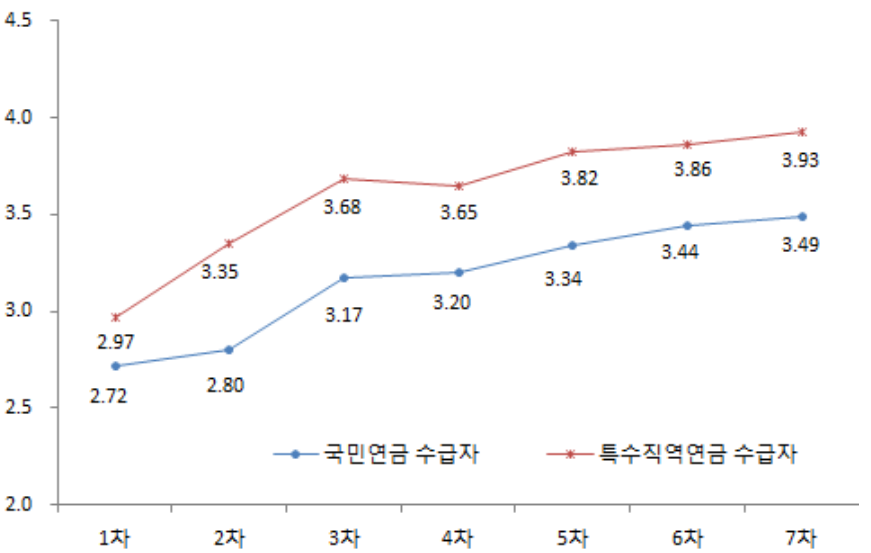
(단위: 점/5점)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국민연금 수급자	2.72	2.80	3.17	3.20	3.34	3.44	3.49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2.97	3.35	3.68	3.65	3.82	3.86	3.93

주 : 종단가중치 적용

[그림 Ⅷ-12] 공적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급액 만족도

(단위: 점/5점)



주 : 종단가중치 적용

다음으로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독립적 경제력을 가졌는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수준을 살펴본 결과, 연금 수급자의 경우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 가능한 독립적 경제력을 가졌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어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인다. 반면 연금을 수급받지 않는 경우 독립적 경제력을 가졌다는 인식 비중이 4차년도 조사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수급자와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Ⅷ-29〉 공적연금 수급자의 독립적 경제력 보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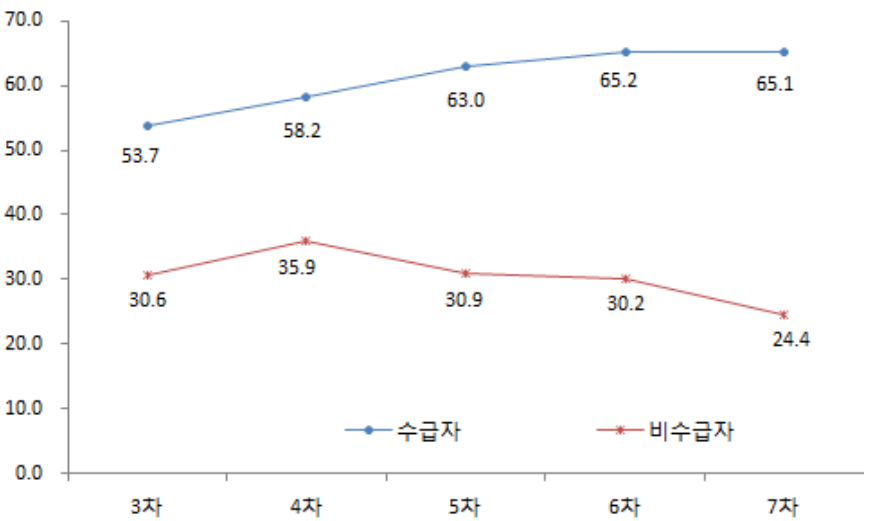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3차	4차	5차	6차	7차
수급자	53.7	58.2	63.0	65.2	65.1
비수급자	30.6	35.9	30.9	30.2	24.4

주 : 1) 종단가중치 적용
2) 3차년도부터 측정되어 3~7차년도 비교함

[그림 Ⅷ-13] 공적연금 수급자의 독립적 경제력 보유 인식

(단위: %)



주 : 1) 종단가중치 적용
2) 3차년도부터 측정되어 3~7차년도 비교함

국민연금은 가장 보편적인 노후준비 방법으로 선호되고 있기에, 노후준비 방법의 1순위가 국민연금인 사람의 경우, 이를 노후준비 수단으로 충분하다고 인식하는지 살펴보았다.

〈표 Ⅷ-30〉과 같이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가 충분하다는 응답비율은 낮은 편이나, 조사차수가 누적될수록 이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Ⅷ-30〉 노후준비방법의 1순위 국민연금 응답자의 노후준비 충분성 판단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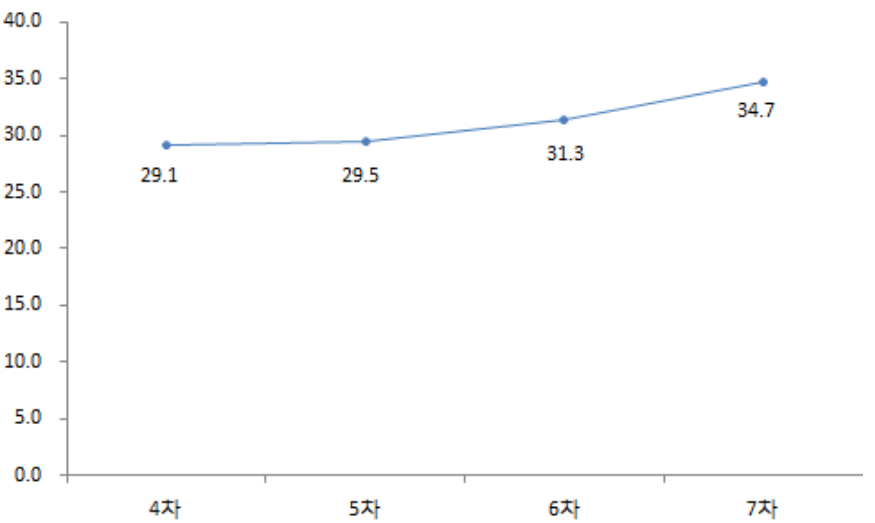
(단위: %)

구분	4차	5차	6차	7차
충분하다	29.1	29.5	31.3	34.7

주 : 1) 종단가중치 적용
2) 4차년도부터 측정되어 4~7차년도 비교함

[그림 Ⅷ-14] 노후준비방법의 1순위 국민연금 응답자의 노후준비 충분성 판단 여부

(단위: %)



주 : 1) 종단가중치 적용
2) 4차년도부터 측정되어 4~7차년도 비교함

〈표 Ⅷ-31〉에서 공적연금 수급자의 취업여부 추이를 살펴본 결과, 1~3차 조사에서는 연금 수급자 가운데 취업자의 비율이 높았으나, 4차년도 이후로는 비취업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Ⅷ-31〉 공적연금 수급자의 취업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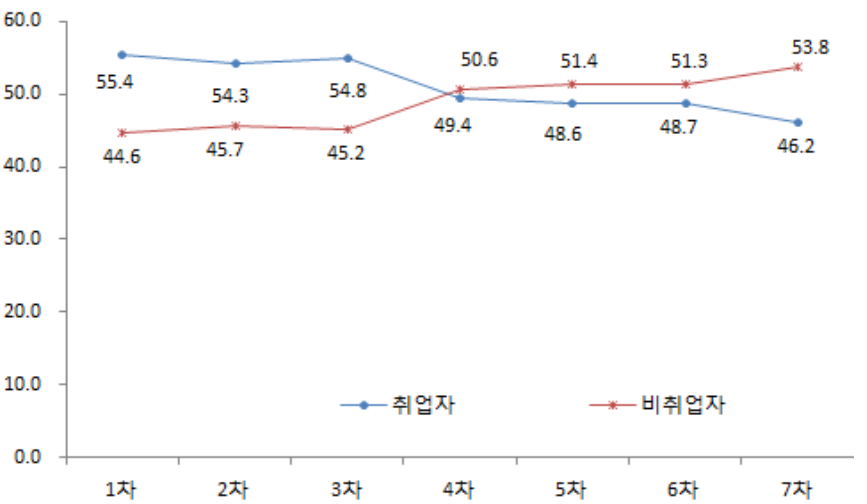
(단위: %)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취업자	55.4	54.3	54.8	49.4	48.6	48.7	46.2
비취업자	44.6	45.7	45.2	50.6	51.4	51.3	53.8

주 : 종단가중치 적용

[그림 Ⅷ-15] 공적연금 수급자의 취업여부

(단위: %)



주 : 종단가중치 적용

이전소득은 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국가나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이전소득과 자녀 및 친지 등으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된다. 이전소득 가운데 사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표 Ⅷ-32〉와 같이 나타났다.

〈표 Ⅷ-32〉를 보면, 연금수급자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이 1차년도 37.1%에서 점차 감소하여 7차년도에는 15.5%로 나타나 이전소득의 약 85%는 공적이전소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연금 비수급자의 경우 이전소득 가운데 사적이전소득이 1차년도 83.7%를 차지하여 연금 수급자에 비해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사적이전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44.7%까지 줄었다. 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사적이전소득이 감소하고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연금 수급자의 경우 이전소득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Ⅷ-32〉 이전소득 중 사적이전소득 비중

(단위: %)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수급자	37.1	35.9	20.1	14.9	15.2	14.4	15.5
비수급자	83.7	85.1	59.4	52.8	56.0	49.6	44.7

주 : 1) 종단가중치 적용
2) 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3)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등의 사회보장급여 등
4) 사적이전소득: 용돈, 생활비, 교육비 목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가족, 친척/친지 또는 사회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보조금, 이혼한 배우자가 매달 주는 별거수당 등

참 고 문 헌

건강보험공단, 2016년 건강보험 통계연보. 2016.

국민연금연구원, 2016년 국민연금 생생통계, 2017.

김대희, 건강증진 정책의 방향 및 융통성 검토,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 학회, 16(2), 1-271, 1999.

방하남 · 신동균 · 이성균 · 한준,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Work life)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0.

보건복지부a, 2017년 의료급여사업안내, 2017.

보건복지부b,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17.

이미숙, 고령화연구패널자료를 이용한 노년기 건강불평등의 구조 분석, 보건과사회과학, 25, 5-32, 2009.

조추용, 노인이 가족에게 기대하는 부양 기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4, 71-99, 2004.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8.

Havighurst. R. J., Personality and patterns of aging, Gerontologist 8, 20-23, 1968.

World Health Organization, Constitu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Chronicle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nex 1. s.29. Technical Secretariat, WHO Copenhagen, 1947.

e-나라지표. www.index.go.kr

부 록

국민노후보장패널에서 7차년도 본조사(2017년) 가중치는 1차년도(2005년) 원표본인 05표본 중 1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계속 응답한 가구 및 개인에게 부여하는 종단가중치와 5차년도(2013년)에 표본추가 하여 구축한 13표본 가구 및 개인에게 부여하는 횡단가중치, 종단가중치가 있다.

가중치 산출 작업은 기본적으로 기본 가중치 설정, 가중치 보정, 그리고 가중치 이상점 제거의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가중치는 05표본 종단가중치의 경우, 1차년도(2005년)에 계산된 가구와 개인의 가중치를 기본 가중치로 하여 가중치 보정을 시행하였으며, 13표본 가중치의 경우, 5차년도(2013년)에 계산된 가중치를 기본 가중치로 하여 보정한다. 이러한 각각의 기본가중치에 무응답 보정을 한 후 모집단 자료를 이용하여 사후보정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제 1단계 : 전국을 서울과 광역시, 도 지역으로 나눈다.

제 2단계 : 제 1단계에서 나누어진 지역 별로 지역 내 응답률이 비슷하도록 카이제곱 검정통계량을 이용한 CHAID 분석을 실시하여 무응답 층을 설정한다.

제 3단계 : 제 2단계에서 결정된 무응답 층을 이용하여 무응답 가중치 조정을 실시한다.

무응답 보정을 마친 가중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조사모집단의 분포를 반영하여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높이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중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값들을 제거함으로써 가중치 작업에 고려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다른 모수들에 대한 추정이 보다 안정적이 되도록 하고자 하였다.

가. 13표본 가구 가중치 산출

7차년도 통합 가구 가중치의 산출 대상은 5차년도에 조사 완료된 13표본 원가구 5,010가구 중 응답한 4,439가구와 13표본 신규가구 10가구를 포함한 총 4,449가구이며, 원표본과 추가 표본에 대해 각각 무응답 조정을 마친 후 통합하여 모집단 자료를 이용하여 raking ratio adjustment method를 적용하였다.

(1) 무응답 층의 결정

무응답 보정 승수를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인구학적, 경제학적, 지역적 변수를 이용하여 무응답 층을 결정한다. 다음은 tree 모형을 위해 사용된 변수에 대한 설명이다.

〈부표 1〉 tree 모형을 위해 사용한 설명

변 수	설 명
지역	1. 서울 2. 광역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3. 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동부 읍면부	1. 동부 2. 읍면부
거주하는 주택형태	1.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주택 4.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5.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6. 기타
거주하는 주택소유형태	1. 자가 2. 전세 3. 월세 4. 자가/전/월세 아님
가구원수	
50세이상 가구원수	

변 수	설 명
가구주 연령	
가구주 성별	1. 남 2. 여
가구주학력	1. 무학 2. 초등학교 재학/중퇴/졸업 3. 중학교 재학/중퇴/졸업 4. 고등학교 재학/중퇴/졸업 5. 대학교(2,4년제) 재학/중퇴/졸업 6. 대학원석사 재학/중퇴/졸업 7. 대학원박사 재학/중퇴/졸업 8. 미조사 및 무응답
가구내 취업자수	

무응답 층을 나누기 위한 tree 모형을 기존 표본에 대해 서울, 광역시, 도 지역별로 각각 적용하여 전체 15개의 무응답 층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결정된 무응답 층 별로 다음과 같이 무응답 보정 승수가 계산된다.

$$f_g = \frac{\sum d_i}{\sum d_i R_i}$$

d = 5차년도 13표본 가구 가중치,

R = 응답여부 지시변수 (1:응답, 0:무응답)

다음은 각 층별로 산출된 가구 무응답 보정 승수의 결과이다.

〈부표 2〉 각 cell 별 가구 무응답 보정 승수

지역	변수명	CELL		
		Cell No.	N	무응답 보정승수
서울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대 지역	1	207	1.228
		2	107	1.317
		3	80	1.048
		4	125	1.254
		5	339	1.034
광역시	50세이상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대 거주하는 주택소유형태	6	855	1.084
		7	166	1.209
		8	126	1.36
		9	162	1.09
도	가구주 연령대 거주하는 주택소유형태 가구주 학력 가구내 취업자 수	10	497	1.207
		11	1291	1.129
		12	52	1.077
		13	569	1.029
		14	333	1.204
		15	101	1.702

이렇게 계산된 무응답 보정 승수를 5차년도 13표본 가구 가중치에 곱하면 기존 표본 가구 무응답 조정가중치를 얻게된다.

- 가구 무응답 조정가중치
  = 5차년도 13표본 가구 가중치 * 가구 무응답 보정승수

(2) 13표본 가구 가중치 보정

통합 가구 가중치의 보정에는 지금까지 가구 가중치 보정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벤치마킹 변수가 사용되었다.

(a) 지역별 동부/읍면부
(b) 지역별 가구주 연령대 : 30대 이하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c) 지역별 가구주 성별 : 남 / 여
(d) 지역별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e) 거처종류 : 아파트 / 단독주택 /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 / 기타
(f) 점유형태 : 자가 / 전세 / 월세 / 무상

즉, 동부/읍면부, 가구주 연령대, 가구주 성별, 가구원 수는 16개 지역 내에서 그 지역의 모집단 총계와 일치하도록 보정하였고, 점유형태와 거처종류는 전국단위에서만 일치하도록 해 주었다. 통합 가구 가중치 보정에서는 2010년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모집단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가구 가중치에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이용하는 것은 미국의 주요 국가 통계의 가중치 작업에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33] 이 보정을 위해서는 먼저 1차로 각 지역 내에서 raking ratio adjustment method를 이용하여 1차 최종 가중치를 계산하고 이 최종가중치와 기본가중치의 비율로 보정 factor를 구해야 한다. 이 때, 지금까지 결정 된 cell collapsing 결과대로 층을 만들어서 그 층별로 raking ratio adjustment method를 적용하였다. 이렇게 구해진 보정 factor를 이용해서 최종 가중치를 구현하게 되었다.

(3) 가중치 절삭

이렇게 해서 얻어진 최종 가중치는 다시 가중치 절삭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별로 평균 가중치의 1/3 이하 이거나 3배 이상이 되는 경우를 가중치 이상점으로 규정하고 가중치 절삭을 실시하였다.

33) 미국 Census Bureau 의 경우는 가구주의 인종/성별/연령대/가구원수를 이용함.

가중치 절삭 후, 다시 가중치 평균을 계산하여 절삭 전과 절삭 후의 평균의 비를 곱해 줌으로써 지역별 가중치 합이 같아지도록 하였다.

(4) 각 세별 사망률 적용

가중치 절삭까지 마친 최종 가중치에 대해 마지막으로 시간에 따른 조사모집단 자체의 감소를 반영하기 위해 (1-각 세별 사망률)을 곱해줌으로써 모집단 규모의 감소를 가중치 산출에 반영하였다. 마찬가지로 가구 가중치의 경우에는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각 세별 사망률을 가중치에 적용하였다.

나. 13표본 개인 가중치 산출

(1) 무응답 층의 결정

13표본 개인 가중치 대상이 되는 개인은 총 7,315명으로 13표본 원표본의 개인 7,122명과 신규개인 193명이다. 통합 개인 무응답 보정승수는 통합 가구 무응답 보정승수와 마찬가지로 전체 통합 개인 데이터를 총 15개의 무응답 층으로 나누어서 각 층 별로 무응답 보정승수를 계산하였다. 즉, 각 개인들이 속한 가구에 해당되는 무응답 층이 개인의 무응답 층이 되었고, 다음은 각 층별로 산출된 통합 개인 무응답 보정 승수의 결과이다.

무응답층은 가구 자료를 이용하여 설정되며,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가구의 응답 여부가 그 가구에 속한 개인의 응답 여부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개인의 무응답층도 그 개인이 속한 가구의 무응답층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렇게 결정된 무응답 층 별로 무응답 보정 승수가 계산되면, 각 층별로 계산된 무응답 보정 승수를 기본 가중치에 곱하면 표본의 무응답 조정 가중치를 얻게 된다.

〈부표 3〉 각 cell 별 가구 무응답 보정 승수

지역	변수명	CELL		
		Cell No.	N	무응답 보정승수
서울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대 지역	1	371	1.366
		2	119	1.367
		3	117	1.082
		4	220	1.221
		5	623	1.102
광역시	50세이상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대 거주하는 주택소유형태	6	1,728	1.121
		7	166	1.189
		8	126	1.420
		9	162	1.103
도	가구주 연령대 거주하는 주택소유형태 가구주 학력 가구내 취업자 수	10	720	1.265
		11	2,366	1.157
		12	100	1.133
		13	987	1.065
		14	489	1.312
		15	117	1.783

(2) 개인 가중치 보정과 절삭

개인 가중치의 보정에는 동부/읍면부, 성별, 연령대 변수가 사용 되었다. 방법은 가구 가중치 보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가중치 조정에 사용한 cell collapsing 결과대로 층을 만들어서 그 층별로 raking ratio adjustment method를 적용하였다. 이렇게 구해진 보정 factor를 이용해서 최종 가중치를 구현하게 되며, 최종 가중치는 다시 가중치 절삭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3) 각 세별 사망률 적용

가중치 절삭까지 마친 최종 가중치에 대해 마지막으로 시간에 따른 조사모집단 자체의 감소를 반영하기 위해 (1-각 세별 사망률)을 곱해줌으로써 모집단 규모의 감소를 가중치 산출에 반영하였다. 마찬가지로 개인 가중치의 경우에는 50세 가구주를 가진 가구원의 연령 분포를 기준으로 각 세별 사망률을 가중치에 적용하였다.

다. 05표본 종단 가중치 산출

7차년도 종단 가중치는 1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모두 응답한 가구와 개인에 대해서 산출되었다. 7차년도 종단 가중치 대상이 되는 가구는 총 3,061가구이고 개인은 총 4,405명이다.

가구 종단 가중치 산출 대상이 되는 3,061가구를 응답층으로 하여 무응답 층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무응답 보정 승수를 1차년도 가구 최종 가중치에 곱하면 가구 종단 무응답 조정가중치를 얻게 된다. 그 다음 동부/읍면부, 가구주 연령대, 가구주 성별, 가구원 수는 16개 지역 내에서 그 지역의 모집단 총계와 일치하도록 보정하였고, 점유형태와 거처종류는 전국단위에서만 일치하도록 해 주었다. 가구 가중치 보정에서는 2005년의 인구 주택 총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모집단 자료를 이용하였다.

개인 종단 가중치의 경우, 1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모두 응답한 개인 4,405명에 대해 종단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무응답 보정을 위한 무응답 층의 결정은 개인이 속한 가구의 무응답 층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무응답 보정 승수를 1차년도 개인 최종 가중치에 곱하면 개인 종단 무응답 조정가중치를 얻게 된다. 최종 가중치는 다시 가중치 절삭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에 따른 조사모집단 자체의 감소를 반영하기 위해 각 세별 사망률을 최종적으로 절삭을 마친 가중치에 곱해줌으로써 모집단 규모의 감소를 가중치 산출에 반영하였다.

국민연금연구원 발간보고서 목록

2017년도

연구보고서 2017-01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남북연금 통합 기본계획 연구	이용하, 소성규 외	2018.4.
연구보고서 2017-02	국민연금기금 전략적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에 관한 연구	황정욱, 강병진	2018.4.
연구보고서 2017-03	명목확정기여방식에 관한 기초연구	유호선, 유현경	2018.4.
연구보고서 2017-04	노령연금 수급실태에 관한 연구	김혜진	2018.4.
연구보고서 2017-05	중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 특성과 삶의 질 연구	송현주, 임란	2018.4.
연구보고서 2017-06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평가	유희원, 한신실	2018.4.
연구보고서 2017-07	전망기간 연장을 고려한 중기재정추계모형 재구축	신경혜, 박성민	2018.4.
연구보고서 2017-08	가입행태를 고려한 국민·퇴직연금의 급여분석모형 구축과 노후소득 보장효과	한정림, 최경진	2018.7.
연구보고서 2017-09	조기노령연금 감액률 및 연기연금 증액률의 적정성 분석	신승희, 권혁진, 손현섭	2018.7.
연구보고서 2017-10	고령화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성명기, 이진웅	2018.4.
연구보고서 2017-11	중기 거시경제 전망모형 개선 연구	성명기	2018.4.
연구보고서 2017-12	국민연금기금의 목표초과수익률 설정에 관한 연구	황정욱, 태엄철	2018.4.
연구보고서 2017-13	국내주식 포트폴리오 및 강화지수 연구: 기업부채비율 행태를 반영한 요인(factor)구성을 중심으로	강대일, 태엄철	2018.4.
정책보고서 2017-01	국민연금 상품 투자에 관한 연구	주상철, 이정화	2018.4.
정책보고서 2017-02	2016년도 국민연금기금의 성과평가	황정욱, 강대일 외	2018.4.

정책보고서 2017-0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방안 검토	최옥금, 이은영	2018.4.
정책보고서 2017-04	국민연금 부동산 자산의 정책벤치마크 설정에 관한 연구	최영민, 김민정	2018.7.
정책보고서 2017-05	국민연금 해외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주상철, 원상희	2018.7.
정책보고서 2017-06	국민연금기금의 기준포트폴리오 설정 방안	박태영, 원상희	2018.7.
정책보고서 2017-07	국민연금 수급권 변동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정인영, 유현경	2018.7.
정책보고서 2017-08	기초연금의 차등보조율 개선방안 연구	안서연, 한신실	2018.7.
정책보고서 2017-09	지역가입자 징수율 및 납부예외자 비중 전망	윤병욱, 송창길	2018.4.
정책보고서 2017-10	확률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국민연금 ALM에 관한 연구- I	김민정, 최영민	2018.7.
조사보고서 2017-01	중고령자의 비재무적 노후생활 실태: 여가, 대인관계, 건강을 중심으로	송현주, 임란 외	2017.12.
연차보고서 2017-01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신경혜, 박성민 외	2017.6.
연차보고서 2017-02	2018년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ALM 분석을 중심으로	최영민, 김민정 외	2018.7.
용역보고서 2017-01	내과상병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선에 관한 연구 -일반상태 구분표를 중심으로	대구대 산학협력단	2018.7.
용역보고서 2017-02	한국과 일본의 인구구조 고령화의 가계경제에 대한 영향 비교연구	유경원	2018.4.
용역보고서 2017-03	한국과 일본의 인구구조 고령화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비교연구	박철성, 김보민	2018.7.
용역보고서 2017-04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 I, II	고려대 산학협력단	2018.4.
요약보고서 2017-01	2017년도 연구분야별 주요 연구결과 요약집		2018.9.
연구자료 2017-01	2017년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 평가보고서	황정욱, 태엄철 외	2018.7.
연구자료 2017-02	국민연금 가입제도 형평성 제고 방안 연구	김헌수, 김아람	2018.8

연구자료 2017-03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미국 OASDI의 소득계층별 수급부담 구조 비교분석	최기홍, 이진웅	2018.8
연구자료 2017-04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관계에 대한 연구	김형수	2018.8
프로젝트 2017-01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 2016	재정추계분석실	2017.5.
프로젝트 2017-02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최옥금, 이은영	2018.4.
프로젝트 2017-03	2017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최옥금, 안서연 외	2018.7.
프로젝트 2017-04	독일의 공·사적 연금제도 연구	유호선, 김진수 외	2018.7.
프로젝트 2017-05	영국의 공·사적 연금제도 연구	정인영, 정창률	2018.7.
프로젝트 2017-06	우리나라 공사연금제도의 내실화 방안과 정부의 역할	김헌수, 유호선 외	2018.7.
프로젝트 2017-07	일본의 공사연금제도 연구	김헌수, 김재현	2018.7.
단기과제 2017-01	단기연구과제1 •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제한 검토 •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제도 개선 방안 검토 • 소재 불명자 등에 대한 지급정지제도 개선 방안 검토 • 사망일시금 지급액 산출기준의 적정성	유호선, 김헌수, 정인영, 김혜진 외	2018.8
단기과제 2017-02	단기연구과제2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도구 비교분석(활동능력평가 도구를 중심으로) • 구상•환수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국내외 사례 연구 • 일용•단시간 근로자 대상 소득기준 적용방안 • 외국 연금기관의 연금급여사업 성과지표 조사 • 양육 크레딧 신설 방안 검토	오욱찬, 유현경, 최옥금, 정인영, 안서연, 황정욱 외	2018.8
단기과제 2017-03	기금운용 관련 정보공개의 해외 사례 비교 연구	황정욱, 이정화	2018.8

2016년도

연구보고서 2016-01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	민기채, 조성은 외	2017.1.

연구보고서 2016-02	베이비붐 세대의 부양부담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송현주, 임란	2017.1.
연구보고서 2016-03	가입기간별 가입자 추계 2016	박성민	2017.3.
연구보고서 2016-04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수급부담 통계모형	최기홍, 신승희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05	국민연금의 일반균형 세대간회계 연구	최기홍, 김형수	2017.3.
연구보고서 2016-06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연금액 추계 2016	한정림, 신승희	2017.3.
연구보고서 2016-07	국민연금 보험료수입 추계 2016	한정림, 김형수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08	국민연금 가입자 추계 2016	김형수	2017.3.
연구보고서 2016-09	해외주식운용 장기성과 개선을 위한 포트폴리오 연구(비공개)	강대일, 황정욱	2017.3.
연구보고서 2016-10	국민연금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추계 2016	신경혜, 송창길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11	국민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추계 2016	신경혜, 송창길	2017.3.
연구보고서 2016-12	공적연금 연계모형 구축과 기초율 산정 연구 2016	박성민, 송창길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13	장기 거시경제 전망모형 연구	성명기	2017.3.
연구보고서 2016-14	국민연금의 장기 거시경제 영향 연구	성명기, 홍기석	2017.3.
연구보고서 2016-15	자산군 프로파일 변경에 기반한 전략적 자산배분에 관한 연구	최영민, 손경우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16	팩터 기반 인덱스의 전술적 활용 방안-해외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손경우, 최영민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17	국민연금 액티브운용 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액티브 위험 한도 설정 체계를 중심으로(비공개)	강대일, 이지연 외	2017.4.
연구보고서 2016-18	독자적 투자전략과 펀드성과의 관계 분석	이지연	2017.3.
정책보고서 2016-01	우리나라 유족보장의 개선방안연구 -유족기초연금의 도입을 중심으로-	이용하, 최인덕 외	2017.1.

정책보고서 2016-02	성직자 노후보장실태와 국민연금 가입 제고 방안	유희원, 한신실	2017.1.
정책보고서 2016-03	기초연금 운영국가의 급여수준 검토 및 시사점	최옥금, 한신실	2017.1.
정책보고서 2016-04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	유호선, 유현경	2017.1.
정책보고서 2016-05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방안 연구	정인영, 유희원 외	2017.1.
정책보고서 2016-06	은퇴 예정자를 위한 노후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성혜영, 김아람	2017.3.
정책보고서 2016-07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및 규모 전망 연구	윤병욱, 송창길 외	2017.3.
정책보고서 2016-08	국내채권 기대수익률 산출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이상헌	2017.3.
정책보고서 2016-09	노인기초보장제도의 관리운영방식에 관한 국제비교	이용하, 최옥금 외	2017.4.
정책보고서 2016-10	2015년 국민연금기금의 성과평가	강대일, 이지연 외	2017.3.
정책보고서 2016-11	해외투자시 동태적 환헤징 전략에 관한 연구	주상철	2017.3.
정책보고서 2016-12	해외 주요 연금의 기금운용부문 개혁 사례와 시사점	박태영, 이정화	2017.3.
정책보고서 2016-13	국민연금의 직접운용과 위탁운용 비교에 관한 연구(비공개)	정문경, 태엄철 외	2017.3.
조사보고서 2016-01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제6차(2015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기초분석보고서-	송현주, 임란 외	2017.1.
조사보고서 2016-02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의 국제비교 연구	국민연금 연구원 연금제도팀	2017.3.
연차보고서 2016-01	2017년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ALM분석을 중심으로(비공개)	최영민, 박태영 외	2017.3.
용역보고서 2016-01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거시경제변수 전망	김성태, 권규호 외	2017.5.
요약보고서 2016-01	2016년도 연구분야별 주요 연구결과 요약집		2017.6.

워킹페이퍼 2016-01	국민연금 국내주식의 위탁규모 증가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문경, 이정화	2017.4.
연구자료 2016-01	2016년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 평가보고서	황정욱, 태엄철	2017.4.
프로젝트 2016-01	해외 연기금의 책임투자관련 주요 현황	이정화, 원상희	2017.3.
프로젝트 2016-02	통일 대비 효율적인 연금통합 방안 연구	이용하, 이철수 외	2017.4.
프로젝트 2016-03	2016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최옥금, 이상붕 외	2017.4.
프로젝트 2016-04	국민연금과 국민경제 연구	성명기 편	2017.5.
단기과제 2016-01	단기연구과제1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역할정립 및 연계방안, 국민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판정기준 연계방안)	오욱찬, 이재은	2017.4
단기과제 2016-02	단기연구과제2 (공단 내· 외부 데이터를 융합한 가치 창출 및 업무 활용방안,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연금 부정수급 예측모형 개발 방안)	유호선, 왕승현, 이은영	2017.4
단기과제 2016-03	단기연구과제3 (60세 이후 연령대별 필요 생활자금 조사, 노후준비 교육의 체계 및 주제 분류, 내연금 사이트 종합재무설계 내용 개선)	성혜영, 김아람	2017.4

2015년도

연구보고서 2015-01	자녀세대의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과 노후준비	송현주, 임란	2016.3.
연구보고서 2015-02	결측치 대체방법 연구(비공개) -국민노후보장패널 소득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박주완, 김호진	2016.3.
연구보고서 2015-03	중기 거시경제 전망모형 연구	성명기	2016.3.
연구보고서 2015-04	국민연금이 소비와 저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명기, 이준상	2016.3.
연구보고서 2015-05	미국의 경기국면의 예측과 투자전략	손경우, 최영민	2016.3.

연구보고서 2015-06	자산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GIPS®기준의 국민연금 성과평가 적용에 관한 연구	정문경, 이지연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07	노인가구의 경제적 가치 수준과 빈곤완화 효과 분석 -한국, 미국, 영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이상붕, 이은영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08	국민연금가입자 중기전망방법 개선 연구	박성민, 송창길	2016.3.
연구보고서 2015-09	기초연금 재정시뮬레이션(비공개)	신경혜, 김형수	2016.3.
연구보고서 2015-10	국민연금 보험료수입 및 신규수급자의 기본연금액 추계를 위한 소득지수 개선방안 연구	한정림, 송창길	2016.3.
연구보고서 2015-11	사망률 전망 모형의 선택과 전망된 사망률에 기초한 국민연금의 수익비와 재정효과 분석	최장훈, 권미애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12	출산율과 사망률 변경에 따른 인구전망	최장훈, 김형수	2016.3.
연구보고서 2015-13	미시모의실험 모형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세대내 소득재분배 측정	최기홍, 신승희	2016.3.
연구보고서 2015-14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정책의 평가: OG모형 파레토개선 접근법	최기홍, 신성휘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15	재무곤경위험을 고려한 해외주식 포트폴리오 구성전략에 관한 연구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강대일, 조재호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16	외부 위탁운용 매니저의 군집투자 행태(herding)와 유인에 관한 연구	이지연, 태엄철	2016.3.
연구보고서 2015-17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전망방법 개선 연구	한정림, 허재준 외	2016.5.
정책보고서 2015-01	기초연금 급여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연동방법 검토	최옥금, 한신실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2	고령화의 진전과 공사적 연금자산 성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박태영, 원상희	2016.3.
정책보고서 2015-03	국민연금기금의 통화 오버레이 전략에 관한 연구	주상철, 노상윤	2016.3.
정책보고서 2015-04	국민연금 부동산투자 다각화 방안에 관한 연구	노상윤, 주상철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5	CVaR를 사용한 전략적 자산 배분에 관한 연구	최영민, 손경우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6	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운용 관리개선에 관한 연구	정문경, 황정욱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7	2014년도 국민연금기금의 성과평가	강대일, 정문경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8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증가요인분석과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하, 김원섭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9	공적연금제도와 고령자 고용정책의 보완적 발전 방안	정인영, 민기채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10	생애주기별 소비 및 저축실태 분석에 따른 노후준비 전략	성혜영, 이은영	2016.3.
정책보고서 2015-11	국민연금 목표초과 수익률 산출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강대일, 정문경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12	정년제와 공적연금제도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김헌수, 유현경	2016.5.
조사보고서 2015-01	중·고령자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대처 전략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 부가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송현주, 박주완 외	2016.3.
연차보고서 2015-01	2016년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ALM분석을 중심으로(비공개)	최영민, 박태영 외	2016.3.
연차보고서 2015-02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6-2020)	박성민, 신경혜 외	2016.5.
용역보고서 2015-01	싱가포르 공적연금 기금운용의 시사점	이준희	2016.5.
용역보고서 2015-02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주은선, 김진석 외	2016.5.
용역보고서 2015-03	기금규모 증가에 따른 국민연금의 시장영향력 분석(비공개)	이재현	2016.5.
워킹페이퍼 2015-01	가입자 및 수급자 추계의 기초율 추정	김진미	2016.3.
연구자료 2015-01	2015년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 평가 보고서	황정욱, 태엄철	2016.5.
프로젝트 2015-01	해외 연기금의 기금관련 주요 현황	이정화, 원상희	2016.3.
프로젝트 2015-02	주요 동유럽 체제전환 국가의 경제사회적 성과 비교 -동독, 체코, 헝가리, 폴란드를 중심으로	이용하, 민기채 외	2016.5.
프로젝트 2015-03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의 종합적 고찰	이용하, 김원섭 외	2016.5.

저자 약력

• **송 현 주**
인하대학교 졸업
인하대학교 박사(소비자학)
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 **임 란**
연세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석사(사회복지학)
현 국민연금연구원 전문연구원

• **왕 승 현**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석사(경제학)
현 국민연금연구원 주임연구원

• **이 은 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석사(통계학)
현 국민연금연구원 전문연구원

조사보고서 2018-01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2018년 12월 일 인쇄
2018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 김 성 주
편집인 : 이 용 하
발행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TEL : 063-713-6778 / FAX : 063-715-6564

ISBN 978-89-6338-426-9

중 · 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NPS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